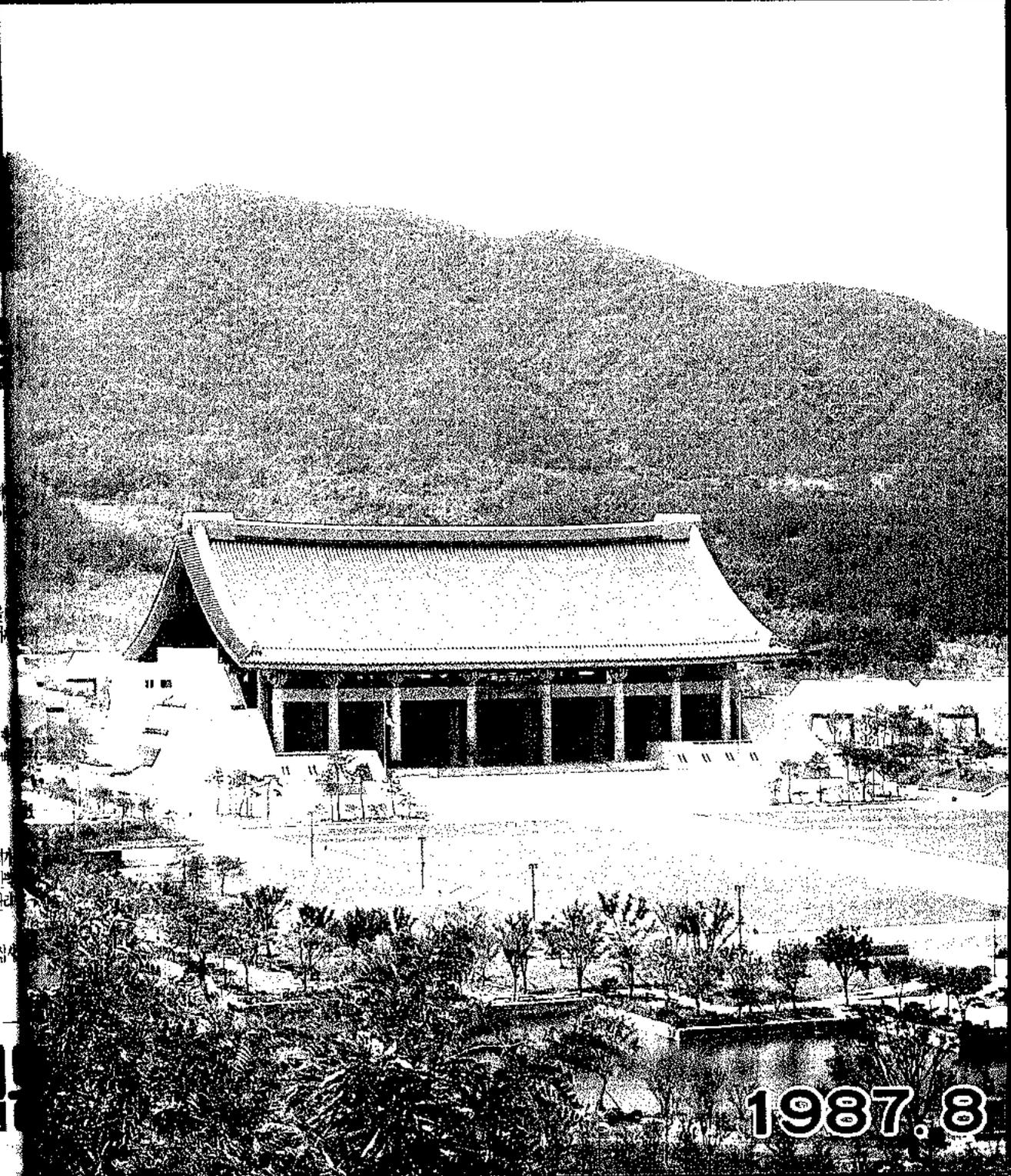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AUGUST 1987. NO. 251
TH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EGISTERED ARCHITECTS

創刊: 1937. 6. 15 1935. 12. 31 第3種郵便物(4)刊誌認可 郵便番號: 133



정판

입니다?
입니다.
재중 흡음율이 가장 뛰
내한 흡음율이 50%이
들어줍니다.

니까?
이 해결했습니다.
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취기를 깨끗하고 인락하

입니다?
해결했습니다.
새 임면이 주원료로 화
율이 매우 낮아 냉난방

때문입니까?
문제없습니다.
의 천정판에 비해 무게
의 하중을 줄여주며 완
고 있어 자공·보수·관

정엔 경제적인 가격
! 마이톤을 사용해 주십

견 단열천정판

마이
MITONE

1987. 8

현대 건축을 위한 장비!



「중외 에어슈터」는 첨단 O.A 시대를 리드하는 최신 설비!

■ 에어슈터란 각종 서류, 전표, 문서, 현금, X-Ray 필름 등을 보내고 싶은 층(層)의 방(房)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최신 설비로 고급 인력의 시간 절약은 물론 전사원의 업무 능률 향상의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특징

- 각종서류, 문서 등의 신속한 전달
- 사무자동화로 인건비, 관리유시비 절감
- 조작이 간편하며 극소면적 차지
- 기존 건물에도 시공 가능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경매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빌딩 및 공장 건물 속의 작은 트럭!

■ 「중외 버티컬 콘베어」는 중량 30kg 이하의 운송 물품을 원하는 층, 방까지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는 운송장비입니다. 특히 병원의 각종 약품, 은행, 오피스의 각종 서적 및 장부류에서 공장에서의 각종 소형 운송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특징

- 전자동 연속 작동으로 대량 운송 가능
- 사용, 취급이 간편함.
- 수직, 수평 이동이 가능함.
- 안전설계로 사고 방지.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현대인을 위한 건강 청소 중외 센츄럴 크리너!

■ 「센츄럴 크리너」란 종래의 습식 청소방식에서 탈피, 선진국형인 건식 청소 설비입니다. 건물이나 공장내에 산적해 있는 먼지나 오염을 자동으로 흡입식 공기 압력으로 완전 제거하는 최신 청소 장비입니다.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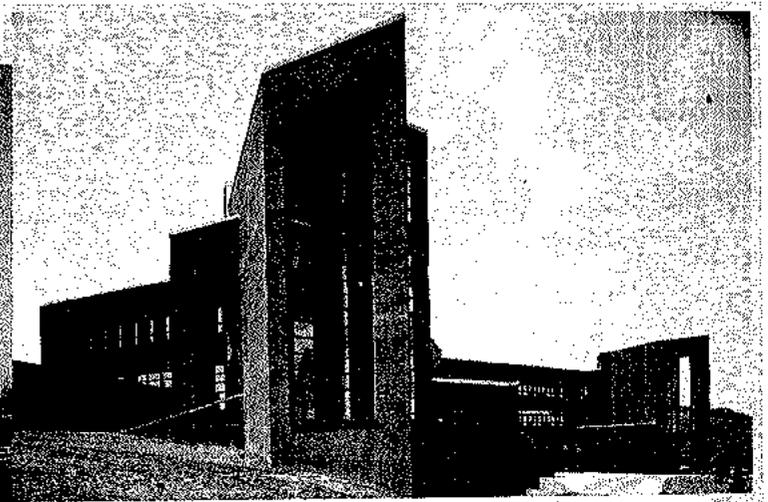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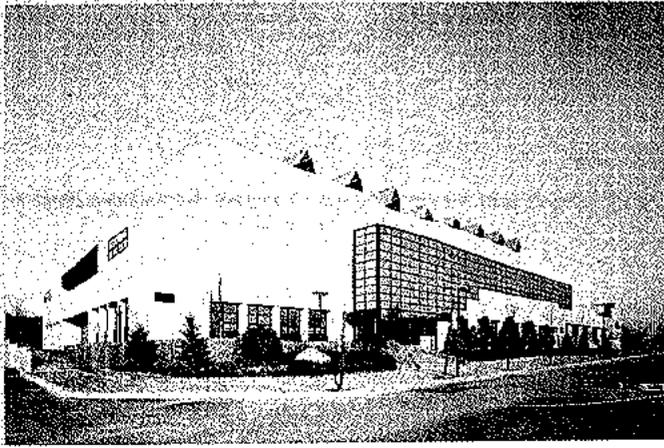
-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 청소작업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 서비스 및 이미지 향상

용도

- 병원, 호텔, 은행, 오피스빌딩, 공장.
- 유통기관, 보도기관, 도서관, 관공서 등

주식 중외상사

서울·동작구 신대방동 698 (대표) 841-1212, (직통) 841-2721~3



'87 建築士 設計作品展示會 出品作 公募



본협회에서 회원의 건축설계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일반인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건설부 후원 아래 매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 '87년도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본전시회가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조형창작예술인의 긍지를 높이는 전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회원으로부터 수준높은 작품의 응모를 기대합니다.

■ 출품요령

1984년부터 1987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된 작품중 본협회가 주최한 전시회에 출품하지 아니한 작품.

■ 패널제작 방법

1. 패널크기 / 90cm X 90cm (가로 X 세로)
2. 제작요령 / • 패널에 계첨된 내용이 순회 운송중 파손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유리, 스티로폴 등 충격에 약한 재료 사용 금함).

- 벽면에 간편하게 걸 수 있도록 패널후면에 견고한 고리를 부착할 것.

-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할 것.

3. 패널수량 / 1 작품당 3개 이내

4. 공통사항

우측 상단에 출품자 사진(명함판)을 부착하고 건축사 사무소명을 기재할 것 (단, 작품명, 사무소명, 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 출품마감

1. 종합작품집 제작에 필요한 자료

패널에 계첨된 내용과 동일한 별도의 흑백사진·설계개요 인물사진을 8원30일까지 제출 (작품명, 사무소명·출품자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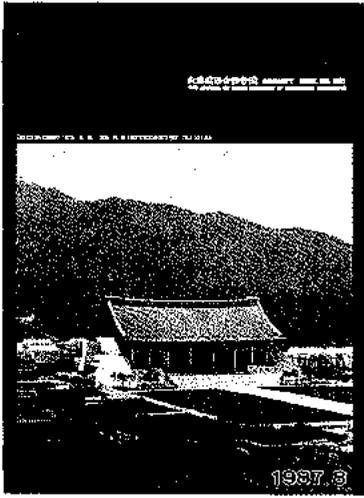
2. 패널은 9월20일까지 제출

■ 시상내용

- 대 상 (1) 건설부장관상
- 최우수상 (1) 협회장상
- 우 수 상 (2) 협회장상
- 장 려 상 (6) 협회장상

■ 기타 유의사항

1.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만이 시상대상이 됨.
2. 제출처 및 문의처 / 본협회 출판사업부, (581-5711~4)



建築士

차 례

1987년 8월호 (통권 221호)

표지설명: 독립기념관
설 계: 김기웅(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발행인 안기태

편집위원회

위원장 안장원 위 원 강태석
부위원장 김 린 위 원 변기석
위 원 김기호
위 원 박영호
위 원 김정동

편집 출판사업부

발행=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우편번호 135

전화: 서울(02) 교 581-5711(대)
5712, 5713, 5714

등록번호 제라-1251

등록일자 1967년 3월23일

U. D. C. 69 / 72 (054-2) : 0612 (519)

인쇄: 광문경판사

인쇄인: 전윤규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Ahn, Chang Won

Vice Chairman: Kim Lin

Member: Kang, Tae-Suck

Byun, Yong

Kim, Ki-Seok

Park, Young-Ho

Kim, Chung-Dong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Editorial Department

Editorial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Kangnam-gu, Seoul Korea

☎ Seoul 581-5711 ~ 5714

Zip Code: 135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72(054-2): 0612(519)

Print: Kwangmoon Printing Co.

Printer: Jeon Yun Kyu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論 壇

6 말없는 말.....宋 旼 求

會 員 作 品

7 독립기념관.....金 基 雄

10 여전도회관.....崔 英 集

14 새한미디어 충주공장 관리동·식당동.....公 日 坤

18 송탄시청사.....李 珏 杓

20 대전신신농장 예식원.....吳 英 治

22 대일빌딩.....李 鍾 祥

일하며 생각하며

25 장이들은 어디갔나?.....姜 純 一

哲學的 散 策 / 建 築 은 무엇인가 ⑦

26 “建築너 뭣고”(2).....崔 昌 奎

寄 稿

32 獨立記念館의 自初至終.....金 洄

批 評

38 獨立記念館의 韓國性과 記念性.....金 廣 현

企 副 連 載

44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4).....金 晶 東

研 究 報 告

56 1987 베를린 국제건축박람회(完).....張 慶 浩

66 先史時代의 우리나라 建築.....朴 舒 弘

72 중국전통건축의 이해(2).....金 永 德

80 葬禮儀式場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完).....金 永 德

88 新入會員

89 資 料

98 協會消息

전국시도지부 및 본소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강남구서초동1603-55 / 581-5715-8

서부본소/서대문구연희동169-16/333-1873

남부본소/관악구신림동1422-17/882-6744

북부본소/도봉구수유동191-13/903-3425

강동본소/강동구성내동317-4/484-6387

강서본소/강서구화곡동1105-5/604-7168

동대문본소/동대문구신설동101-7/923-6213

상동본소/상동구구의동252-16/446-5244

영등포본소/영등포구당산3가81/634-2143

부산직할시지부/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11(부산대파트내)
(051) 23-3584-5

대구직할시지부/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71-8/
(053) 72-5141-2

광주직할시지부/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323-11/(052) 521-7598

인천직할시지부/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경기도지부/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24-5/(0331) 42-6490
7072

안양본소/안양시인양동719-9/(0343) 2-2698, 2-0012

부천본소/부천시원미동74-6/(032) 63-3144

성남본소/성남시신항동5512/(0342) 2-5445

의정부본소/의정부시외정부동182/(0351) 2-1083

송탄본소/송탄시신장동21/(0333) 4-6153

고양본소/고양군원당읍주교리38보력16롯데/(0344) 63-8902

구리본소/구리시수택동409-2/(0346) 63-8112

아침본소/이천군이천읍종리216-8/(0336) 2-3396

광명본소/광명시철산동464-7/682-2875

김원도지부/김원도춘천시옥천동39-5/(0361) 2-2442

원주본소/원주시일산동206/(0371) 42-3257

강릉본소/강릉시성내동6/(0391) 2-2262

속초본소/속초시중앙동468-66/(0392) 2-5081

삼척본소/삼척시남양동55-43/(0397) 2-3106

영월본소/영월군영월읍영흥1리959-35/(03732) 2659

충청북도지부/충청북도천주사북문로27116-168/
(0431) 2-2752

충주본소/충주시역전동673-1/(0441) 2-3082

제천본소/제천시익림동8-8/(0443) 2-6253

옥천본소/충북보은읍삼산리139-4/(0433) 2461

충청남도지부/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충동487-1/
(042) 22-4088

천안본소/천안시문화동160-14/(0417) 2-4551

홍성본소/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0451) 2-2853

부여본소/부여군부여읍동문리710-2/(0463) 2-2217

전라북도지부/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륙빌딩508)
(0652) 3-3881

이리본소/이리시남중동1가77-22/(0653) 52-3304

군산본소/군산시중앙로1가85/(0654) 2-4060

남원본소/남원시정령동105-2/(0671) 2-6002

전라남도지부/전라남도서귀포시정동783-23(추선회관)
(062) 364-7567

목포본소/목포시호남동1/(0631) 2-7280

순천본소/순천시장전동51-3/(0661) 2-7892

여수본소/여수시관문동435/(0662) 64-1144

경상북도지부/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5번지/
(053) 45-4904

포항본소/포항시죽도동96-70/(0562) 74-9713

경주본소/경주시노동동9-1/(0561) 2-2680

구미본소/구미시원평동356-2/(0546) 52-7903

안동본소/안동시상산동125-19/(0571) 2-3641

김천본소/김천시남산동23-10/(0547) 2-2263

영주본소/영주시영주4동470-17/(0572) 2-4566

문경본소/경주시점촌동261-2/(0581) 2-2706

경상남도지부/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가3
(0551) 2-4530-1

울산본소/울산시남구신정동585-6/(0522) 74-8836

74-2555

진주본소/진주시본성동7-20/(0591) 2-6403, 42-3434-5

충무본소/충무시서호동177-101/(0557) 2-2504, 2-7420

김해본소/김해시부원동25B-17L/(0594) 2-3155

밀양본소/밀양군밀양읍내일동67-1/(0527) 53-2110

거창본소/거창군거창읍하동483-9/(0598) 2-3777

양산본소/양산군양산읍다방리500-3/(0523) 4-2669

거제본소/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0558) 32-1088,
2-3372

제주도지부/제주도제주시도1동1289-6/(064) 22-3248

52-3248

서귀포본소/서귀포시서귀동425-1/(0642) 62-3920, 3322

CONTENTS

August 1987, Vol. 221

FOCUS

Somewhere Our's Will Song, Min-Koo 6

WORKS

The Independence Hall Kim, Ki-Woong 7

Christian Hall Choi, Young-Jeep 10

Sachan Media Co. (Choongju Factory) Kong, Il-Kon 14

Songtan City Hall Lee, Kak-Pyo 18

Shin Shin Farm Wedding Hall Oh, Young-Chi 20

Daeil Building Lee, Jong-Sang 22

OCCASIONAL THOUGHTS

..... Kang-Soon-Il 25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Choi, Chang-Kyu 26

FEATUR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Independence Hall Kim, Won 32

CRITICISM

Korean Nature and Commemoration Nature of The Independence Hall 38

..... Kim, Kwang-Hyun

SERIAL

A Study on the Mordern Architecture of Seoul Kim, Chung-Dong 44

REPORT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Berlin 1987 Kang, Byung-Keun 56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Chang, Kyung-Ho 66

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Park, Suh-Hong 72

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gn of Funeral Ceremony Hall Kim, Young-Duk 80

NEWLY ADDMITTED MEMBER

METERIALS

KIRA NEWS

말없는 말

宋旼求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람건축

Focus/Somewhere Our's Will
by Song, Min-Koo

日帝의 壓政 밑에서 2차대전을 겪어야 했고, 8.15解放을 맞이하자 萬感이 가슴을 넘쳤었다. 그 후 6.25사변, 4.19, 10.26, 5.18 등 격동하는 過渡期 속에서 그야말로 일생을 살아야 했다. 언제 한번 泰平歲月에 살아보는가,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政治라는 것에 대해 아예 혐오감마저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정치는 아편과 같다"는 것인데, 그렇게도 정권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心性을 마비시키고 마는 것일까. 신문의 정치난이라고는 보기도 싫던 필자가 4.13 이후 紙上에 宣言教授, 宣言藝術人 등의 이름이 보도되자 建築界에서는 혹시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여 朝刊, 夕刊할 것 없이 기사를 내리 훑게 되었다. 급기야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이 드러나자 그날 수업은 할 기분마저 사라지고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道德性이 무너진 責任이 우리들 기성세대에 있었다는 自責感에서 학생들을 대할 면목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학생들은 "선생님 막걸리나 한잔 하시지요"하기에 없는 학생들 돈의 "동동주"를 나누며 "여러분 세대에서나 복된 세상을 만났지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고작이었다. 또 다시 "우리 강아지야"하고

절규하는 이한열군의 母情에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례식에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수많은 인파가 온통 거리를 뒤덮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한구석의 그 "말없는 말"을 가슴 속에서 되씹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 하면 두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애조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번만은 前撤을 밟아서는 안되며, 民主化의 巨步를 내디더야만 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이다. 국토는 작고 자원은 없으며, 인구는 늘어날데로 늘어나는 오늘날 오직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은 工業立國이외는 없다. 그나마도 현대사회는 지극히 多面化하고 있다. 산업사회만 하더라도 극도로 발달하는 工學에 의해 분업화작용을 가속화하였던 것이며, 각 분야마다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이 교육수준을 불가불 높이게 되는 한 구실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中產層들로 하여금 사회구성원의 핵심을 이루게 하고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게 한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서와 같이 한 사람의 천대에 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던 시대는 지났으며, 복잡한 과정을 협동하여서만 무엇인가를 낳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강한 自我意識이 함양되어 왔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이르는 과정은 마치

西歐에서 산업혁명의 여파로 1848년에서 1849년에 이르는, 각국에서 일어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自由主義를 외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아진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준엄한 것이다.

물론 西歐의 민주화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200년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넘어야 할 단계가 얼마나 고난에 찬 것이었던가를 역사는 가르쳐 주고있다. 그들은 예술을 통해서도 抗拒하였다. 浪漫主義가 그것이며, 浪漫主義는 개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내용적으로 풍부히하였고, 민족사회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의 세력을 강화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문학에서 괴테, 빅토르 위고 등을, 음악에서 베토벤, 메를리오즈 등을, 미술에서 들라크로아, 고야 등을 잊지 않고있다.

지금 우리들은 그 고난에 찬 길에 처음으로 진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들 建築界 주변 역사 省察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크고 작은 모순들을 과거의 타성에서와 같이 諦念속에서 그냥 스치고 가서는 안된다. 연일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국민의 소리는 대권을 누가 장악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민주화를 어떻게 실천에 옮기고 있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의치고 있지않은가.

한결같이 민주화라는 것은 自由가 아니고 自律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상에서 일체의 權威主義의 그림자는 제거되어야 한다. 또 앞에서 말한 바 浪漫主義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숙명적으로 民族主義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生存權을 위협하는 외국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6.29 선언이 나온지 한달이 넘었는데도 우리들 건축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없는 말"마저 지니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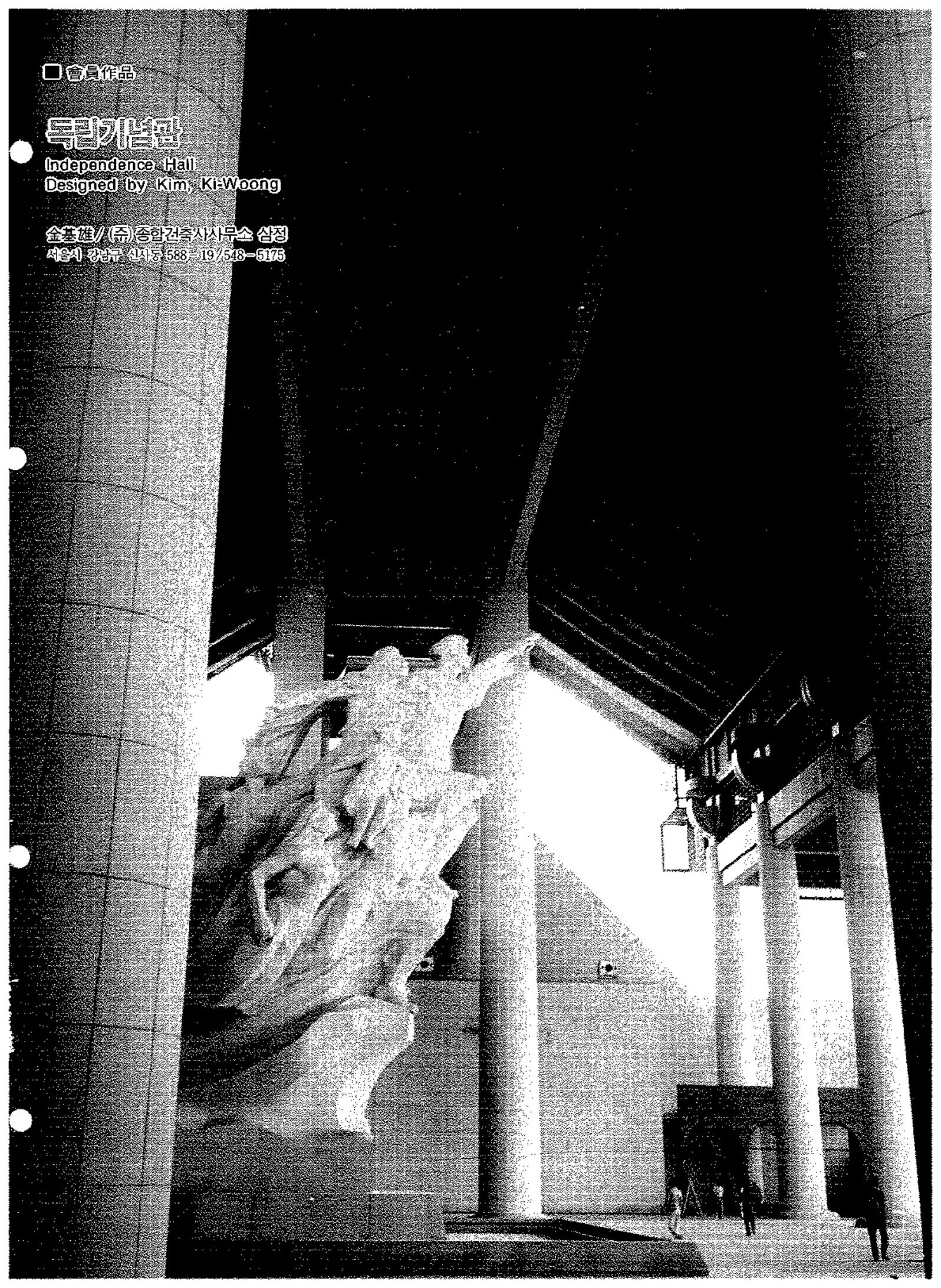
독립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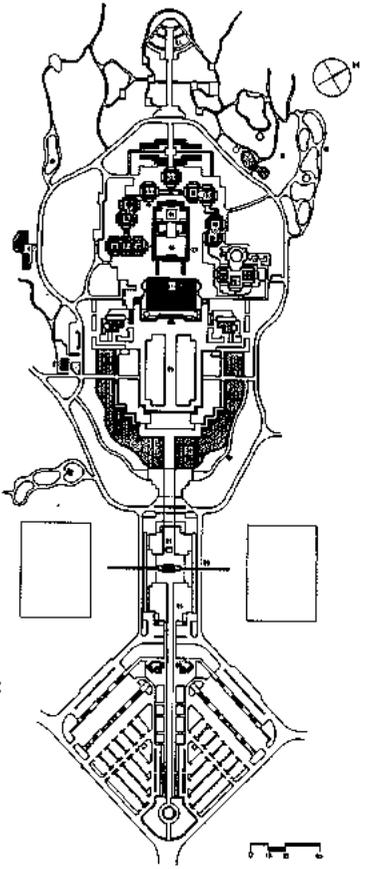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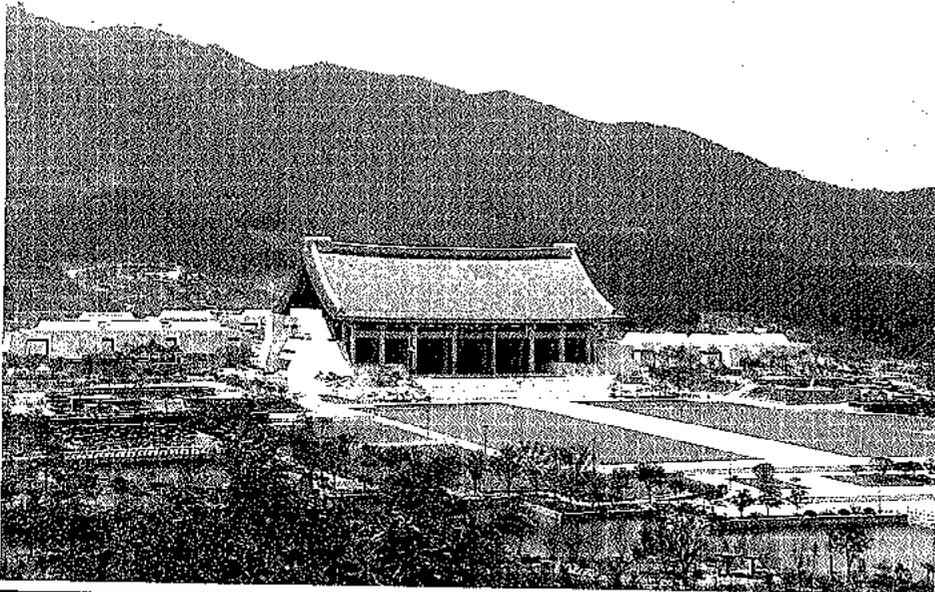
Independence Hall

Designed by Kim, Ki-Woong

金基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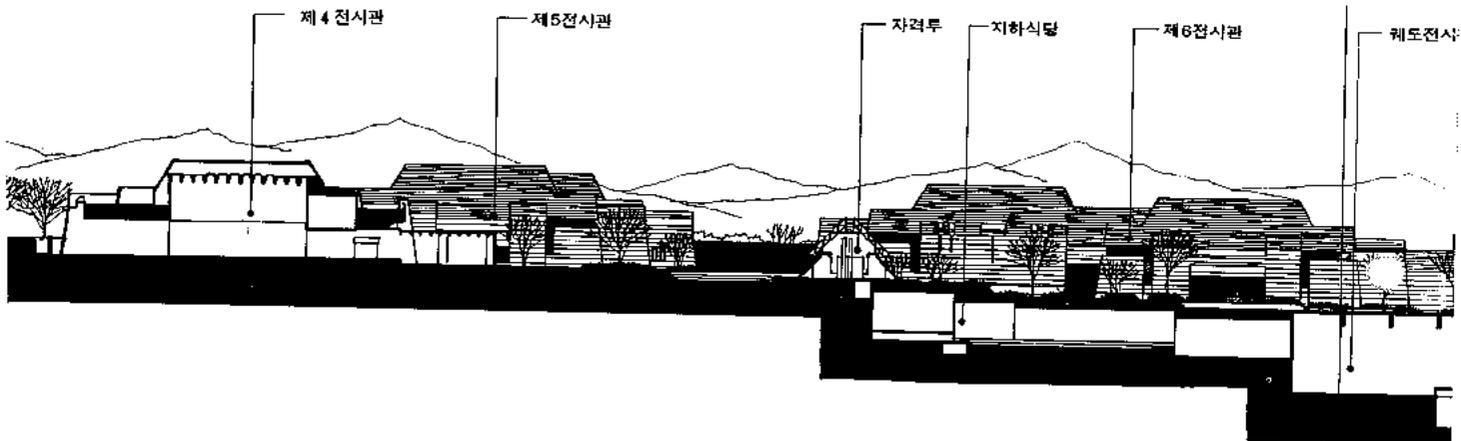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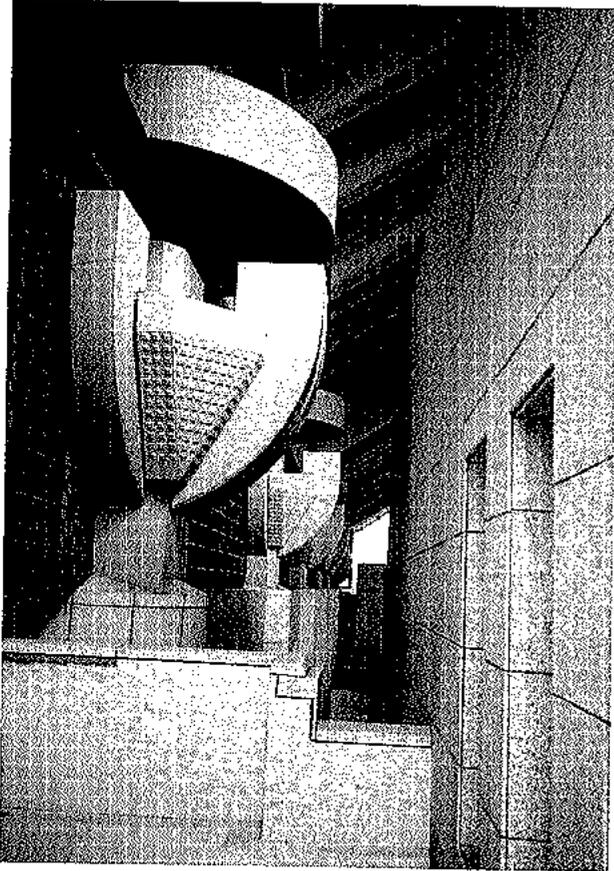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8-19 / 548-5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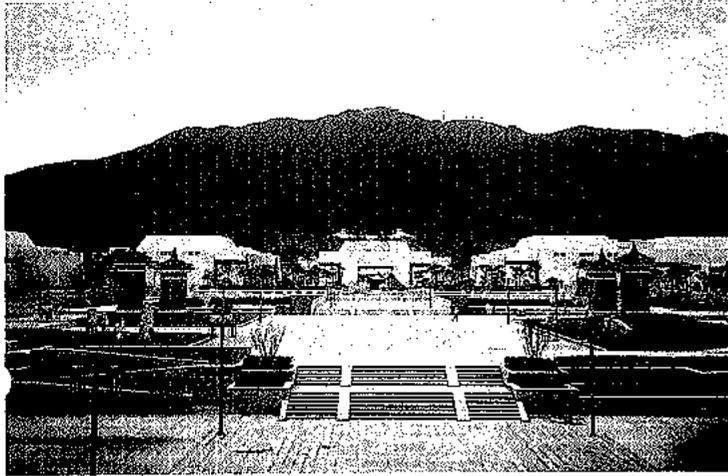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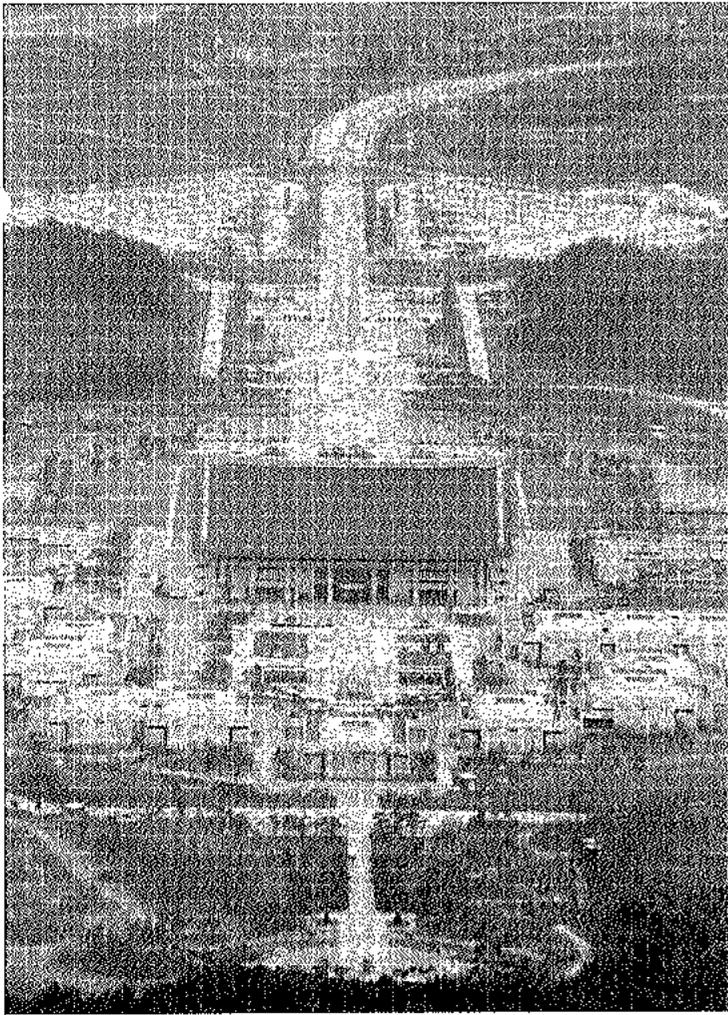




- ① 기념관
- ② 제 1 전시관
- ③ 제 2 전시관
- ④ 제 3 전시관
- ⑤ 제 4 전시관
- ⑥ 제 5 전시관
- ⑦ 제 6 전시관
- ⑧ 제 7 전시관
- ⑨ 영상전시관
- ⑩ 자격루
- ⑪ 회랑
- ⑫ 동력공급실
- ⑬ 옥외식당
- ⑭ 독립대문
- ⑮ 매표소
- ⑯ 안내 휴게소
- ⑰ 추념의 장
- ⑱ 기도광장
- ⑲ 독립광장
- ⑳ 연지
- ㉑ 상징탑
- ㉒ 주차장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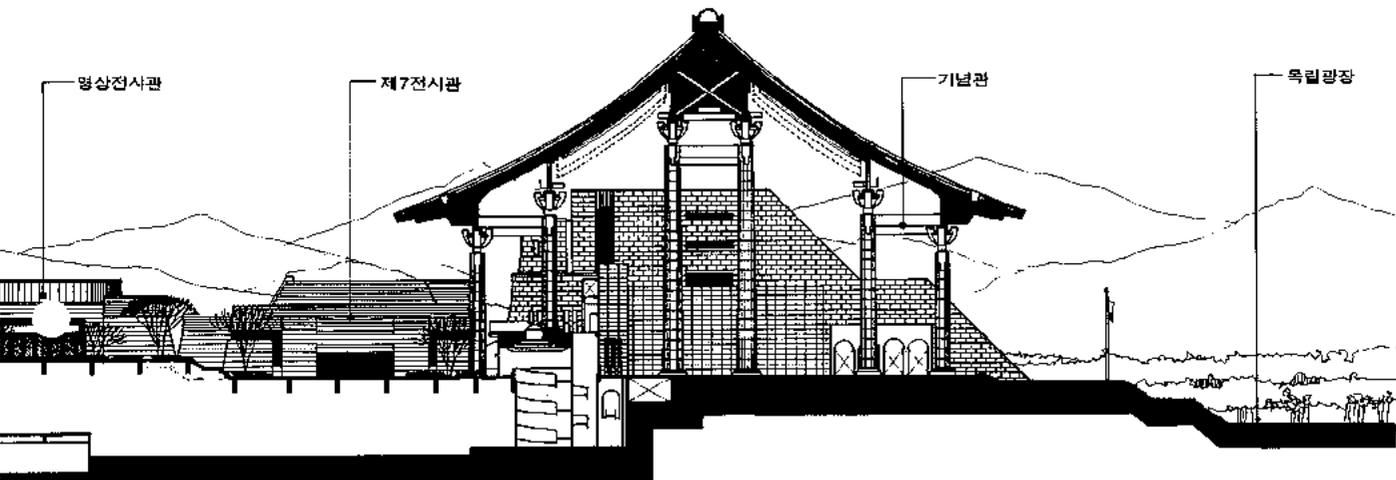




정면도

■ 설계개요

- 대지위치 : 충남 천원군 목천면 신계리
- 대지면적 : 910,417㎡
- 건축면적 : 40,581㎡
- 연면적 : 50,562㎡
- 기념관 : 7,852㎡
- 전시관 : (1-7전시관, 케도전시장, 영상전시관) / 34,642㎡
- 부속건물 : (연결통로, 지하식당, 지각루, 독립대문) / 34,642㎡
- 편의시설 : (안내휴게소 : 동력공급실, 매표소(2), 식당(1), 화장실(11), 소방서, 피죤소) / 4,169㎡
- 규모 : 기념관 / 지하1층, 지상4층 전시관 및 부대시설 / 지하1층, 지상1층
- 구조 : 기념관 /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전시관 / 철근콘크리트조
부속건물 및 편의시설 /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 주요요장 : 기념관 / 화강석바나구이, G.R.C, P·C개판위 등기와 없기
전시관 / 화강석바나구이
부속건물 및 편의시설 / 붉은벽돌, 외장타일
- 전시내용 : 제1전시관 / 민족전통, 국난극복실
제2전시관 / 근대민족운동실, 구국계몽운동실, 의병실
제3전시관 / 일제침략실
제4전시관 / 3·1운동실
제5전시관 / 독립군실, 의열투쟁실, 사회운동실, 학생운동실, 문화운동실
제6전시관 : 재외동포실, 대한민국임시정부실
제7전시관 : 대한민국관 (정부수립과 국토분단, 경제발전, 국력신장과 통일외지)
- 기념관 총 면적 : 78m×39m=3,042㎡
- 지붕형태 : 맞배지붕
- 지붕높이 : 19m~47.6m
- 지붕면적 : 111m(길이)×78m(폭) = 8,658㎡
- 기와 : 두께 0.5mm종판기와
- 기념관주요재료 : 바닥 / 화강석바나구이
기둥 / Ø2400 Ø2100, 40개, 두께 100mm화강석도두락다들
- 장방 및 주두 : G, R, C
- 서까래 : 갈바름·강판
- 축면통관 : 알미늄·캐스팅그릴
- 기념관·소강당 수용인원 : 250석
- 전시관 높이 : 12.9m(평균)
- 전시관 주요재료 : 바닥 / 화강석을 깔기, 바닐석면타일, 벽 / 알미늄모틀판, 마직벽지
천정 / 알미늄·격자천정
외벽 / 화강석바나구이
- 구조설계 : 미준경, 이주관
- 기계설계 : 김주영, 성아실비, 다운실비
- 전기설계 : 윤전기, 삼영전기



여전도회관

Christian World
Designed by Choi, Young-Je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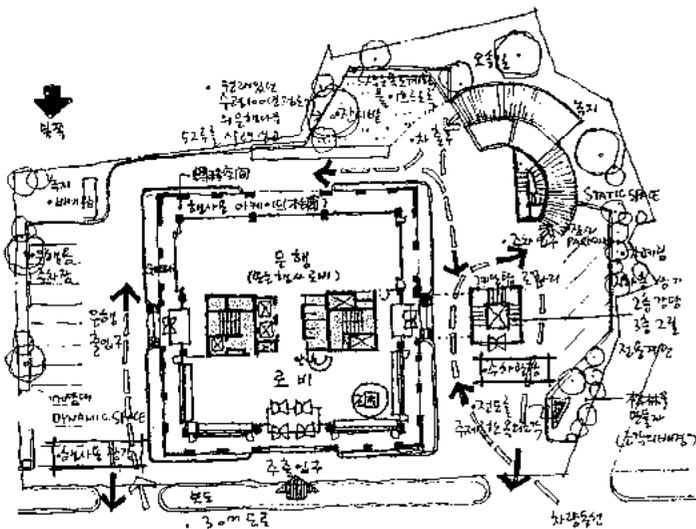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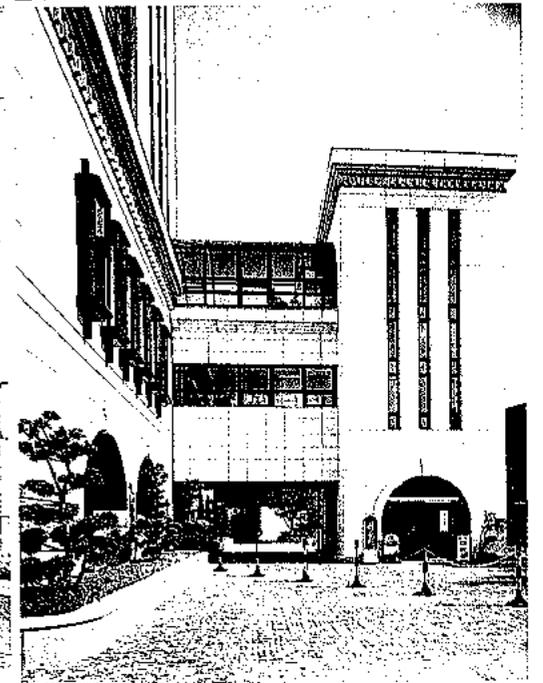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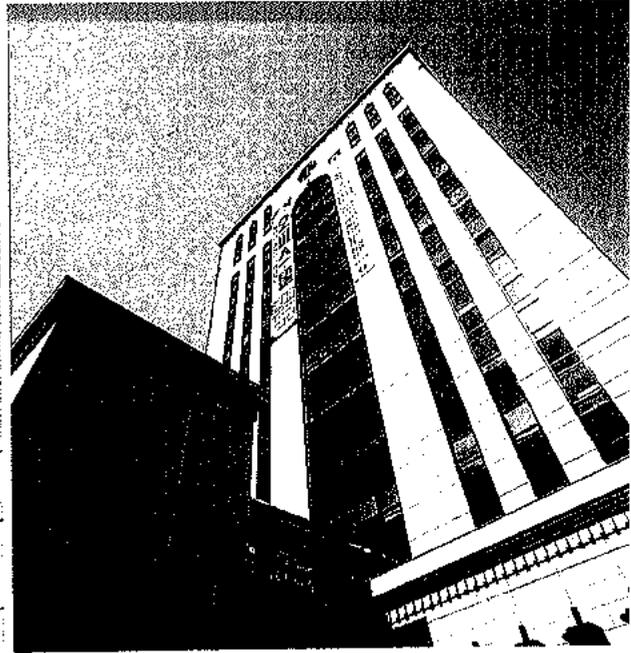
崔英集 / 종합건축사사무소 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20/542-3721, 543-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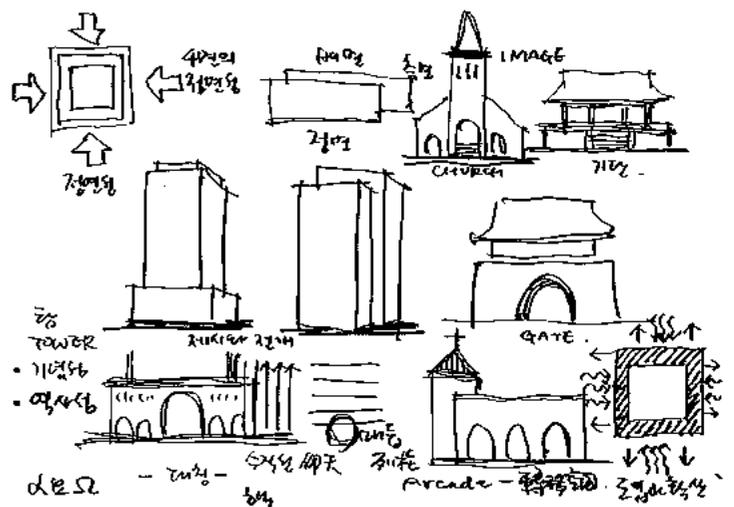
사진: 정정웅

-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 대지면적: 3,393.65㎡
- 지역·지구: 2종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상업지역
- 건축규모: 지하4층, 지상14층, 옥탑2층
- 주용도: 사무실, 연수실, 오피스텔, 강당, 연회장
- 구조: 철근콘크리트멘조
- 건축면적: 1,094.42㎡
- 연면적: 18,09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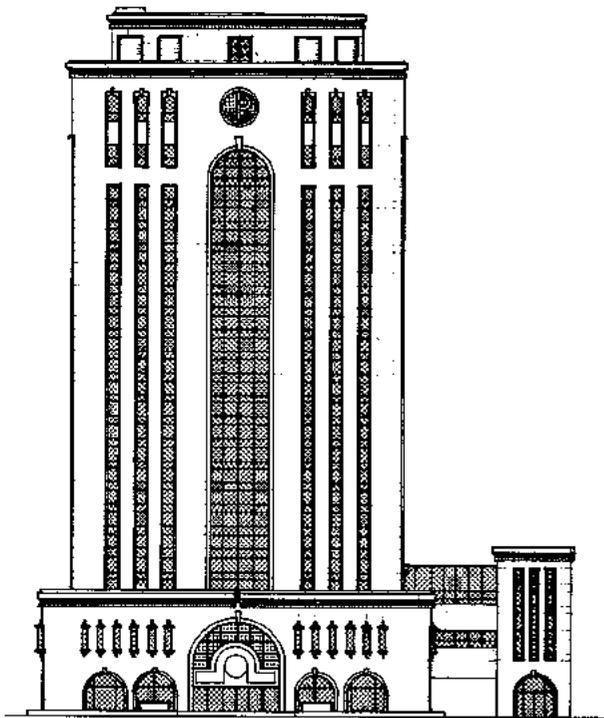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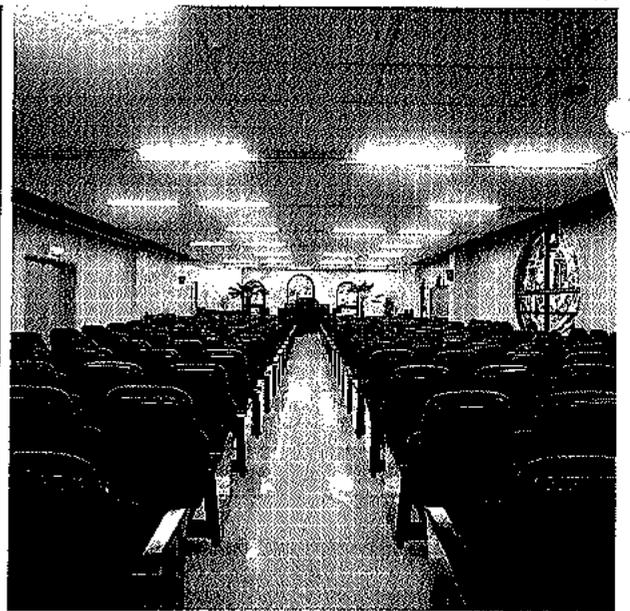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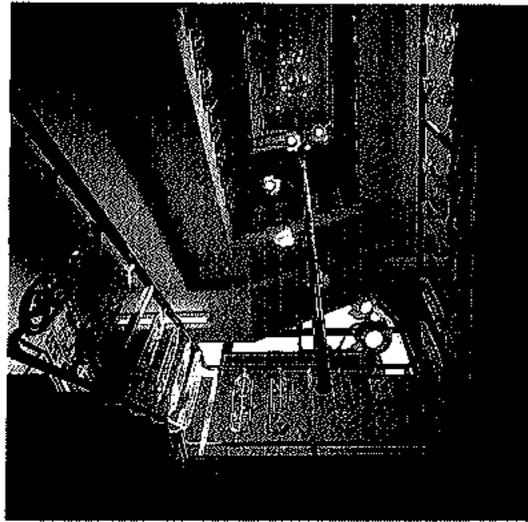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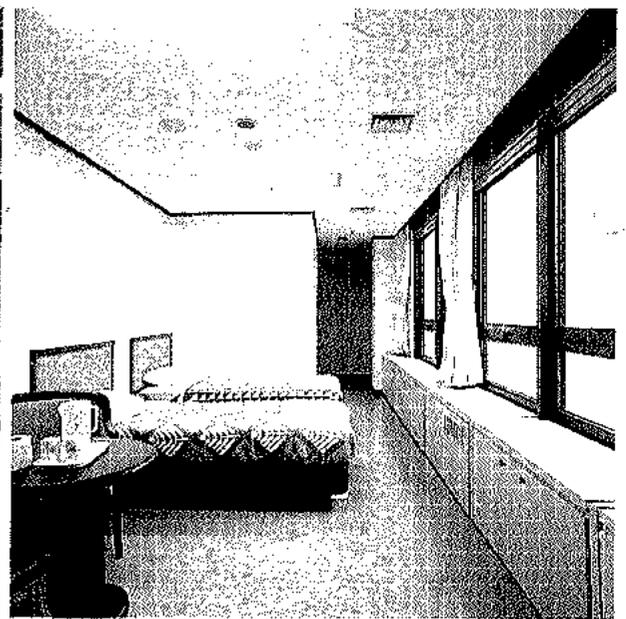
- 건폐율: 32.24%
- 용적율: 360.47%
- 높이: 59m
- 예술품: 조각 / 최국병·방상숙
회화 / 김정자·장해웅
- 시공: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 설계기간: 1983.5~1984.9
- 공사기간: 1984.9~19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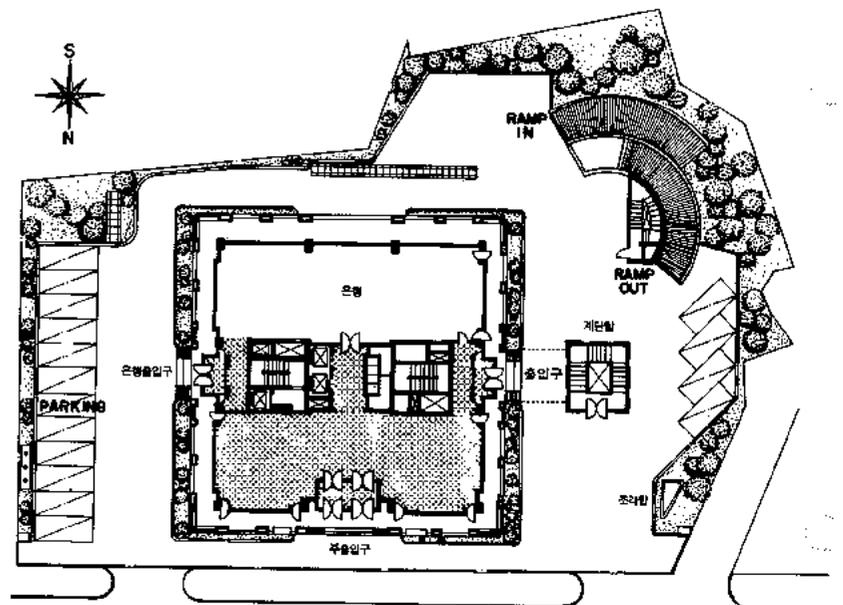
배치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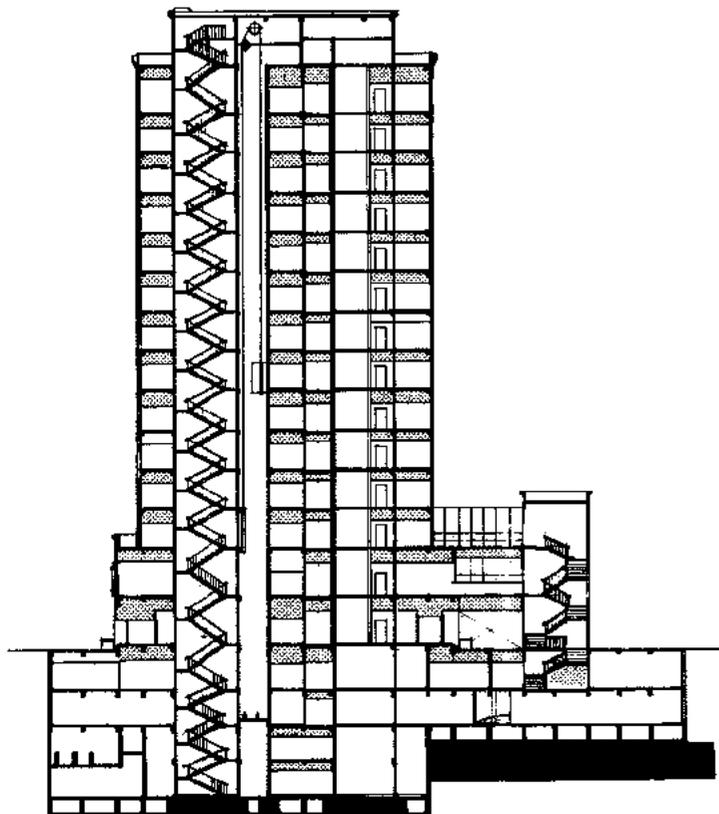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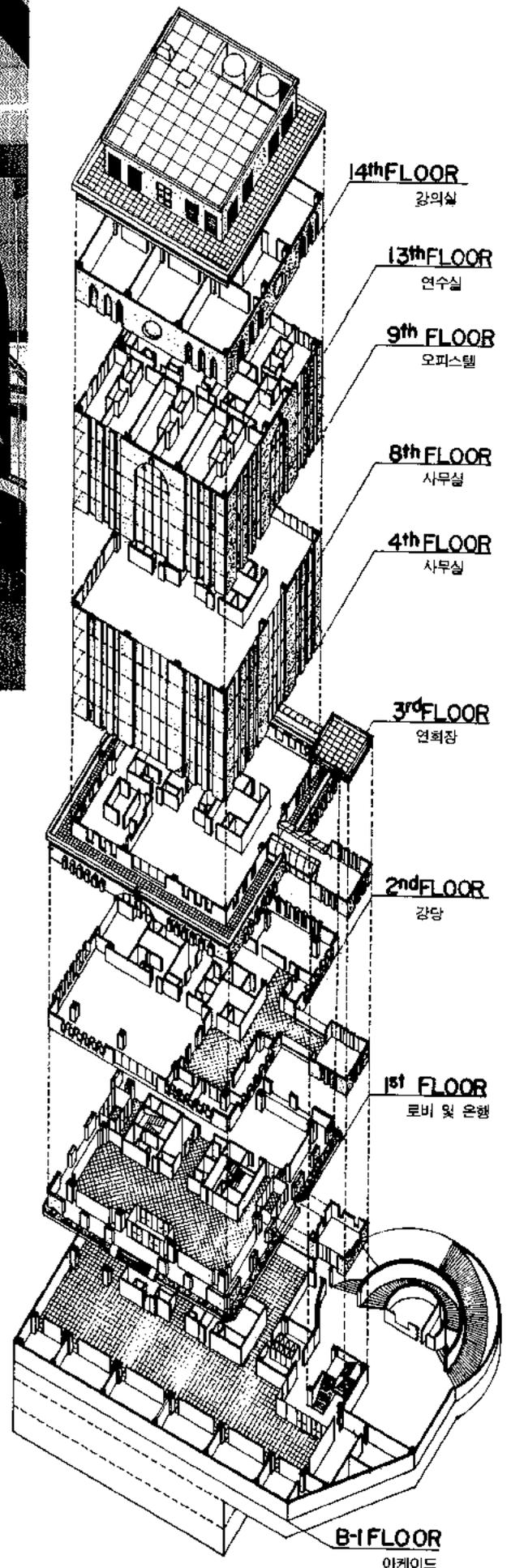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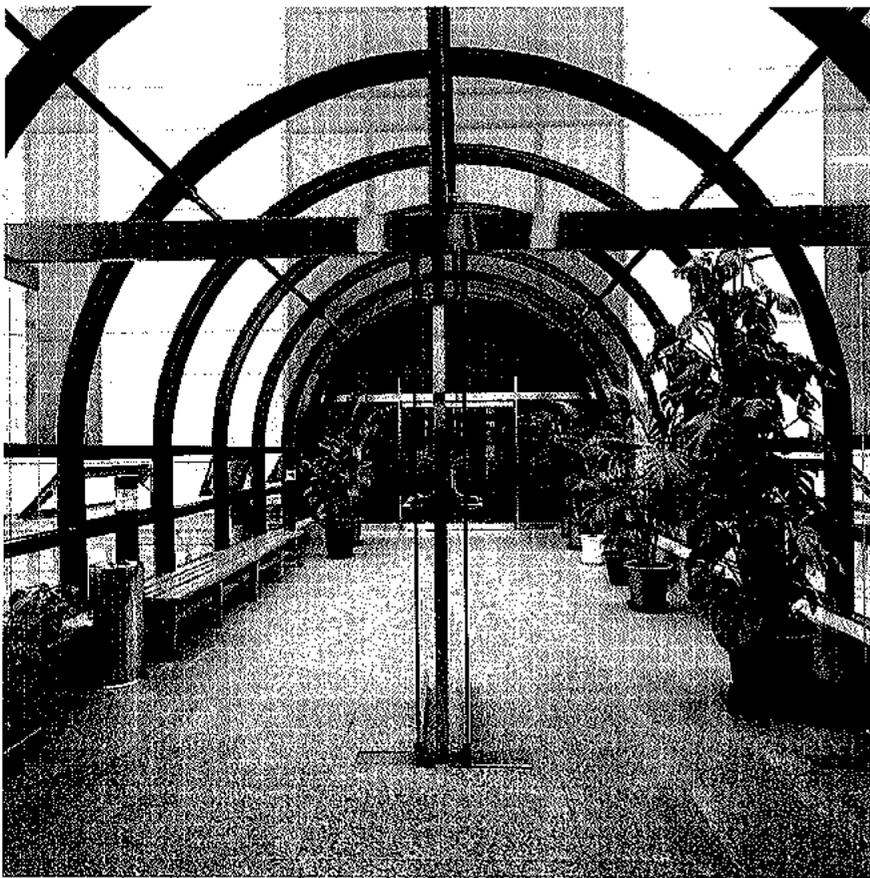
개념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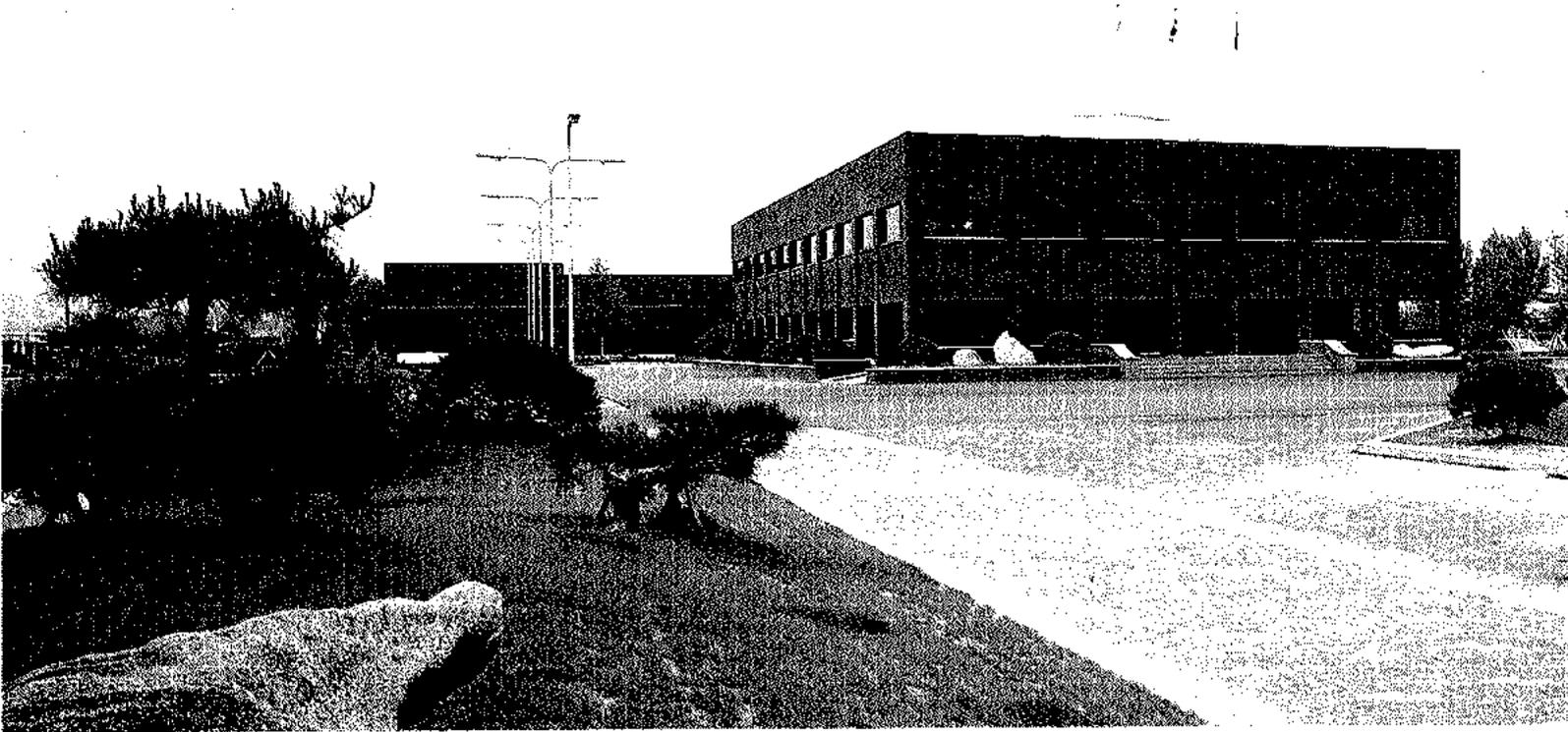


1층평면도



주단면도

엑소노메트릭



■ 會員作品

새한미디어 충주공장 관리동·식당동

Saehan Media Coporation(Chungju Factory)
Designed by Kong, Il-Kon & Park, Kee-Yong

公日坤・朴基用 / 향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0 / 795-8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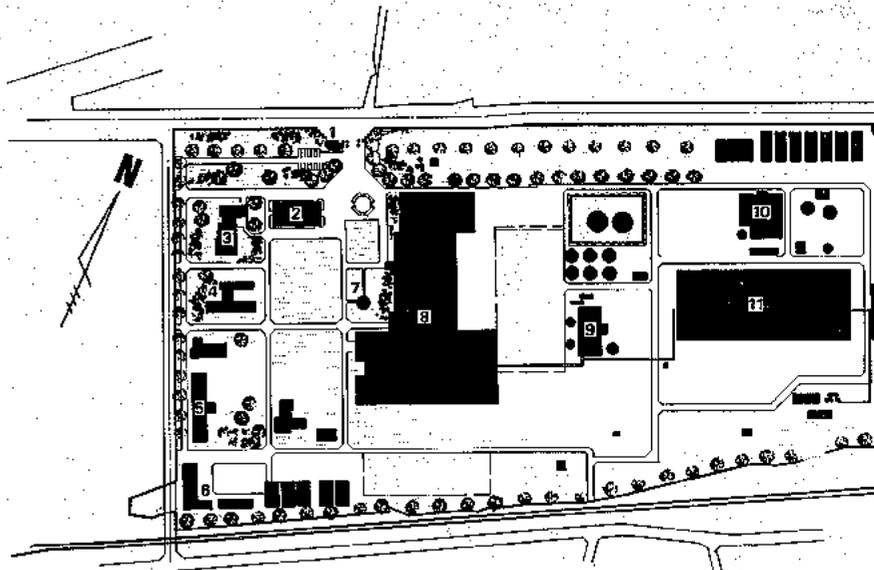
■ 관리동

-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옥영동
- 대지면적: 340,073㎡
- 건축면적: 1,268㎡

■ 식당동

-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옥영동
- 대지면적: 340,073㎡
- 건축면적: 1층 / 1,324㎡
2층 / 680㎡
계 / 2,004㎡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 1987.2
- 시공자: 삼성종합건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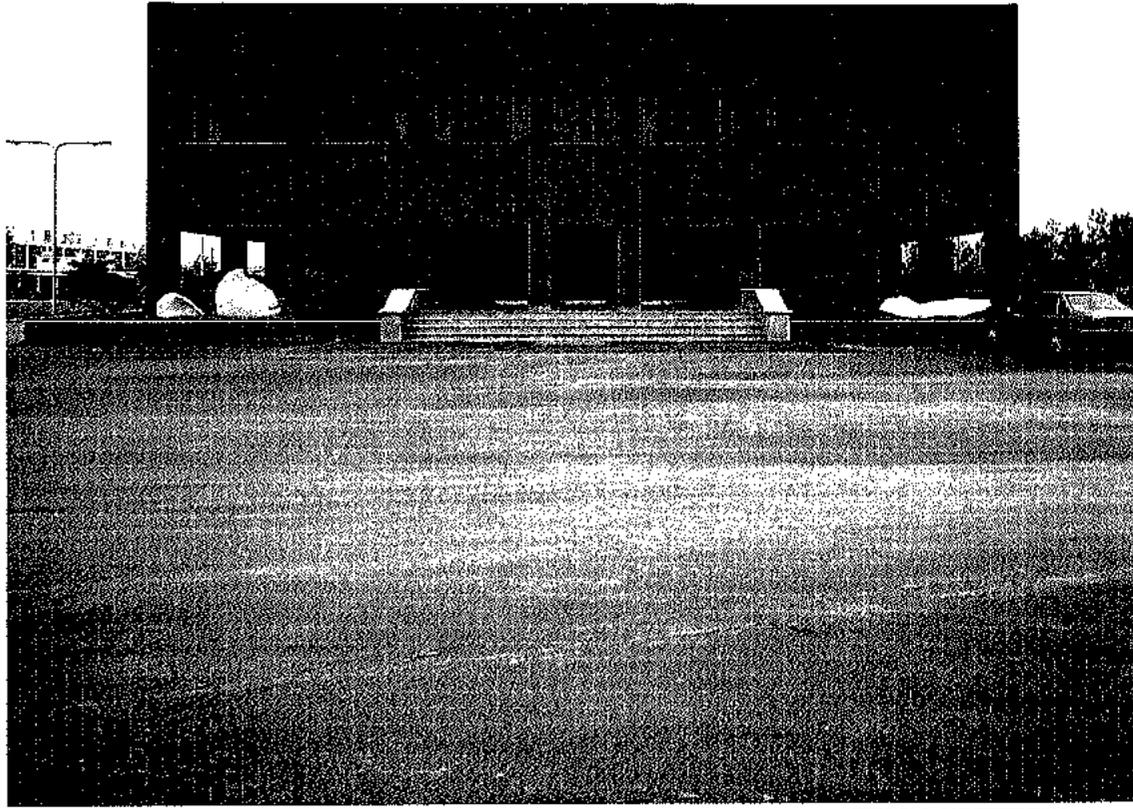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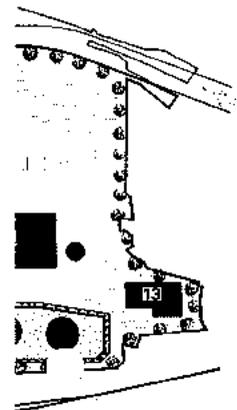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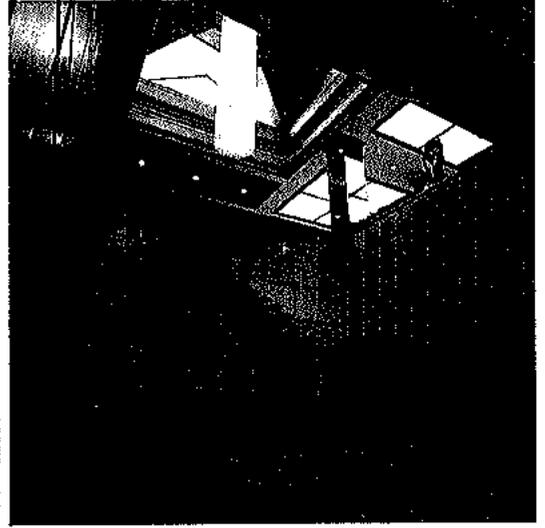


사진 : 임정의



1. 관리동전경
2. 관리동장면
3. 관리동 2층로비
4. 관리동계단홀
5. 관리동 1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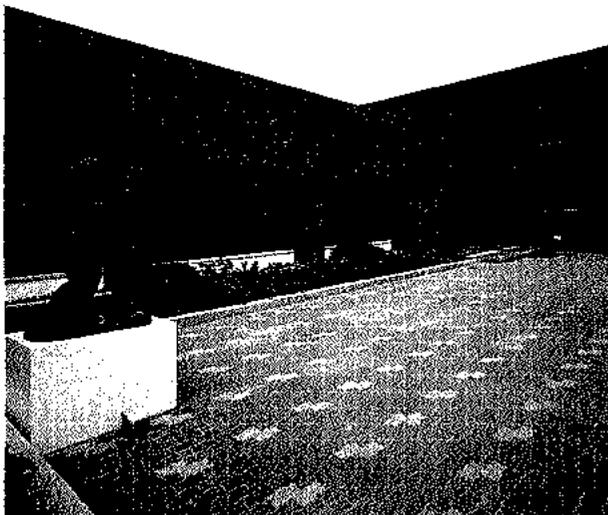
- 별례
1. 대운
 2. 본관 (사무실)
 3. 식당
 4. 후생관
 5. 기숙사
 6. 장비장
 7. 다목적터워
 8. 분공장
 9. 월병함기계실
 10. 공무기계실
 11.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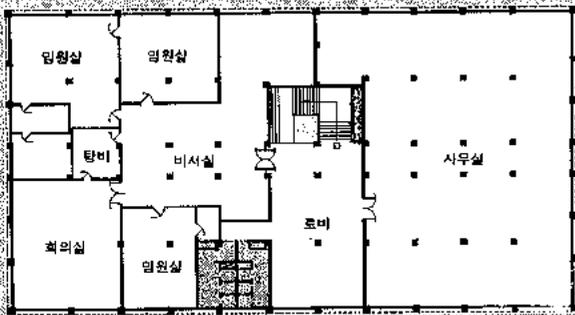
▲식당동전경

◀식당동동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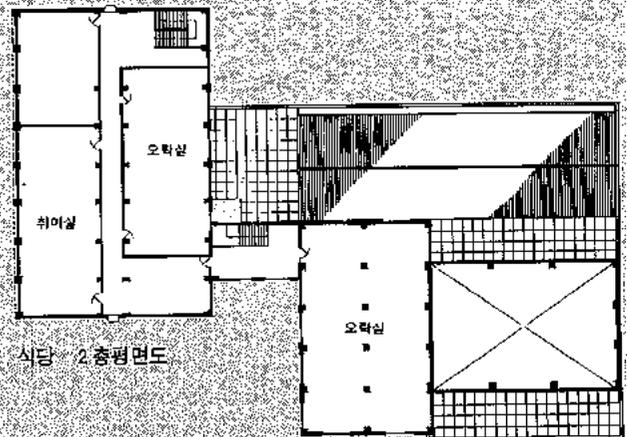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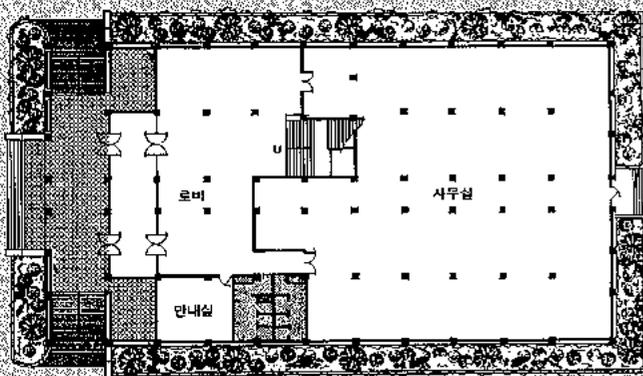
식당동 내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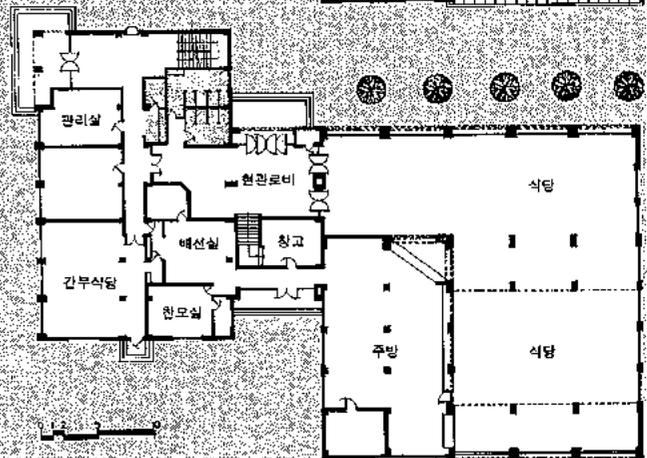
본관 2층평면도



식당 2층평면도



본관 1층평면도



식당 1층평면도

송탄시청사

Songtan City Hall
Designed by Lee, Kak-Pyo

李珪杓 /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 736-3129

- 대지위치 : 경기도 송탄시 서정택지구개발사업지구
- 대지면적 : 33,881㎡
- 건축면적 : 1,793.94㎡
- 연면적 : 5,854.85㎡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외장재료 : 외장용자기질타일
- 시공자 : 태평양건설(주)
- 준공일자 : 1986. 11월
- 주차대수 : 58대



사진 : 정정웅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대전 신신농원 예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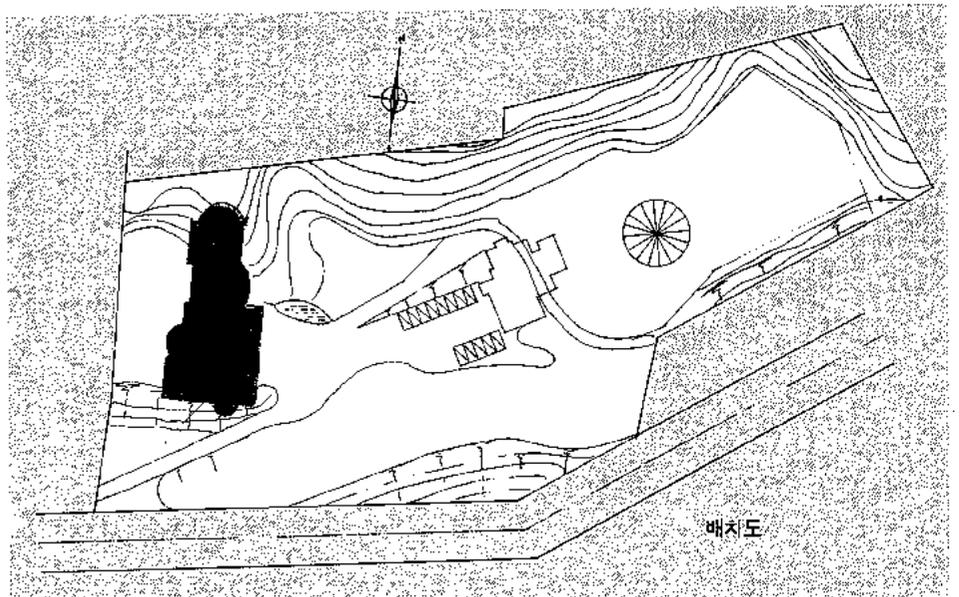
Shinshin Farm Wedding Hall
Designed by Oh, Young-C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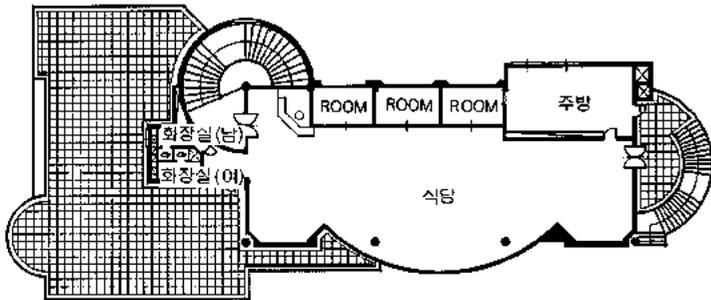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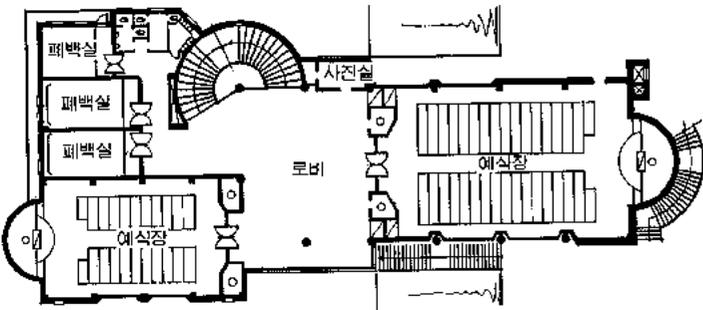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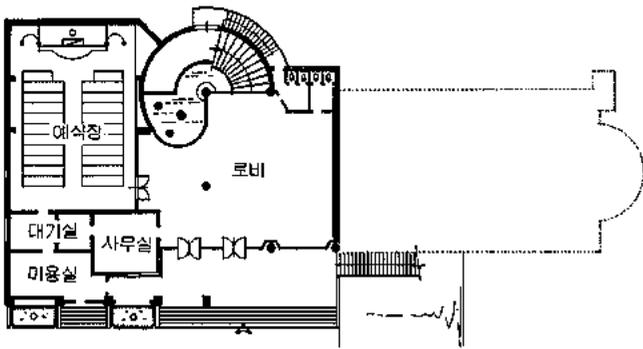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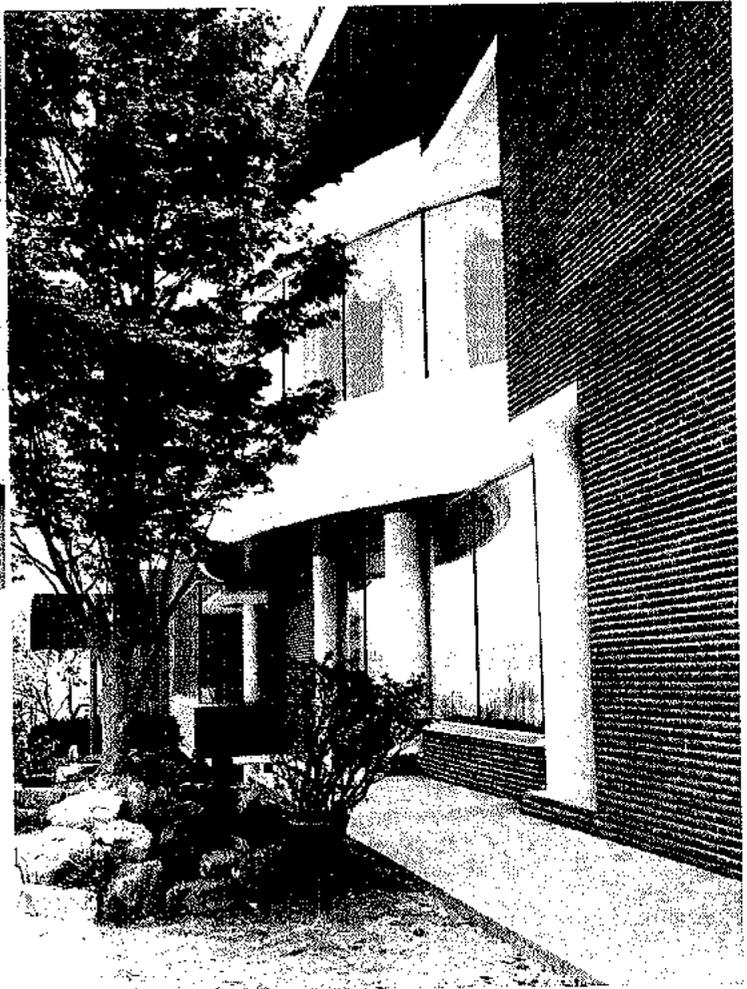
吳英治 / 건축사사무소 技美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은행동 163-1 (042) 253-2920, 26-4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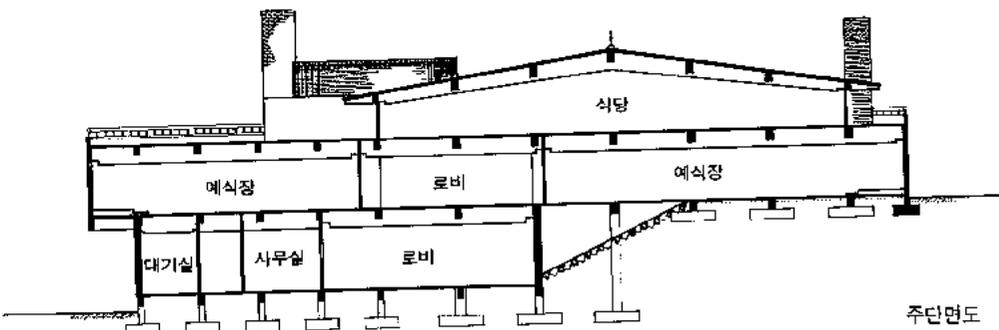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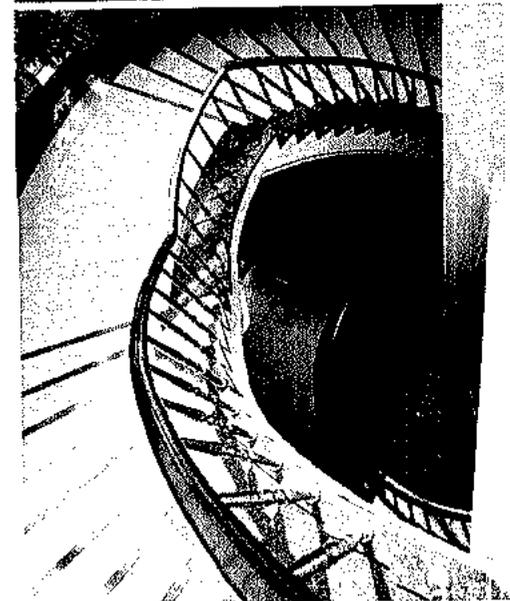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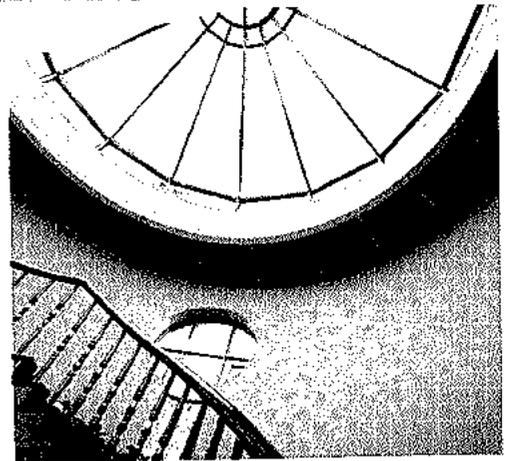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충남 대전시 중구 월정동 19-5
- 대지면적 : 16,030.21㎡
- 건축면적 : 773.63㎡
- 연면적 : 1,766.16㎡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적벽돌치장쌓기
- 건폐율 : 9.34%
- 용적율 : 18.31%
- 주용도 : 예식장 및 식당





上 : 1층 평면도
 中 : 2층 평면도
 下 : 3층 평면도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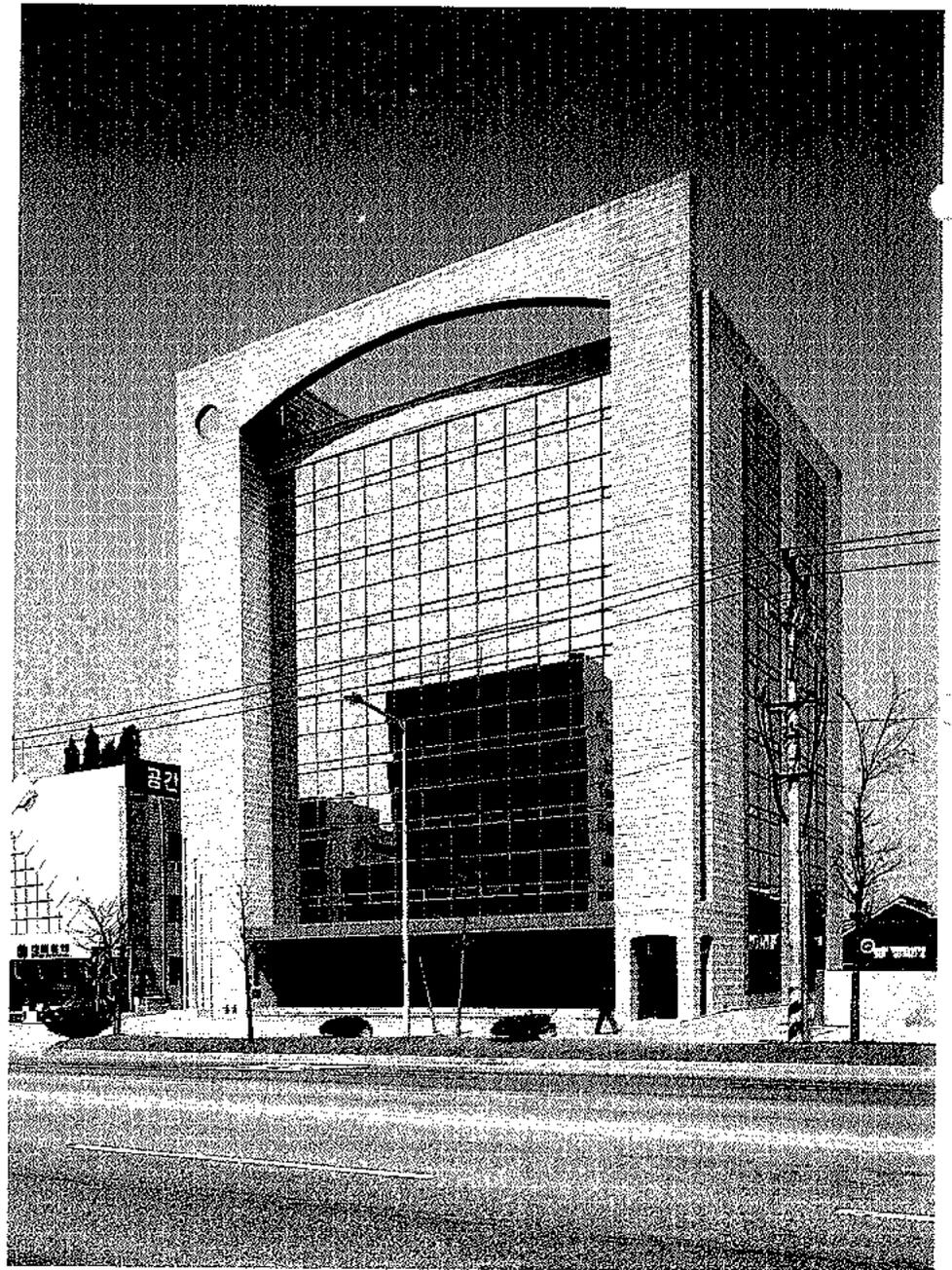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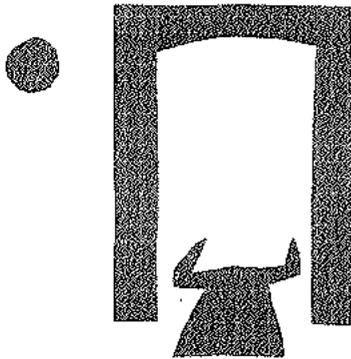
대일빌딩

Dae-il Building
Designed by Lee, Jong-Sang

李鍾祥 / 단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장원동 64-4 / 590-8031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 대지면적 : 1510.3㎡
- 건축면적 : 629.29㎡
- 연면적 : 7340.57㎡
- 규모 : 지하 3층, 지상 8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장재료 : 화강석타일
- 설계일자 : 1985. 12
- 준공일자 : 1986. 12
- 시공자 : 우성건설
- 구조설계 : 한건축
- 전기설계 : 우원전기
- 설비설계 : 고려설비
- 설계담당 : 홍봉식, 박영호, 심재봉



■ 설계소묘

이 건물이 위치한 강남구 지역의 가로현황은 강북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단순한 도로계획에 따른 필지나누기의 결과로서, 필지의 크기에 따라 건물규모가 결정되는 노선상가 건물의 나열이라 볼 수 있다.

가로변의 건물들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가로의 통일된 성격을 형성하거나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무질서한 간판으로 뒤덮힌 각각의 얼굴들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무성격 한 가로에서 가로의 콘택트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는 실제적인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가에게 있어서는 막연한 일이며, 무거운 짐인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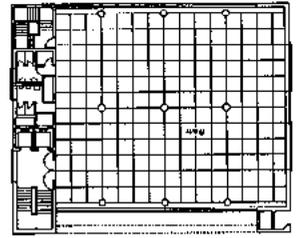
1985년 겨울 대지를 처음보고 느낀점은 대지 크기에 비해 전면도로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었고, 70m나 되는 전면도로 폭에 대응할만한 큰 스케일의 건물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건축주는 임대료가 비싼 1층과 지하 1층을 가능한 한 크게 확보하고 상층부의 임대사무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관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원했다.

서울시 조례와 옥외주차장 비율에 의해서 결정된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와 건축주의 요구를 정리한 평면형식의 결과는 입면상의 어려움(옥상부분 코어치리)을 감수하더라도 사이드·코어형의 건물로 결정되었다. (설계행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통상의 상업적 임대사무소 건물의 배치계획은 서울시 건축조례의 조정면적 비율과 옥외주차장 비율로 거의 결정되어 버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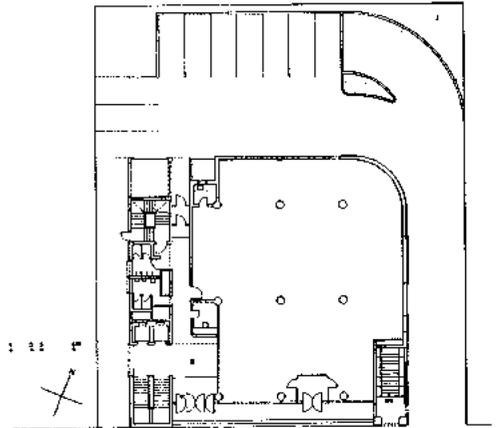
건물의 입면은 전면도로가 70m라는 것과 평면이 사이드·코어형식의 건물이라는 점, 공사비에 따른 시공성을 고려하면 로우·테크의 건물로 시공될 것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당시의 생각은 가로건축의 피사아드는 측면과 분리되어 독립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것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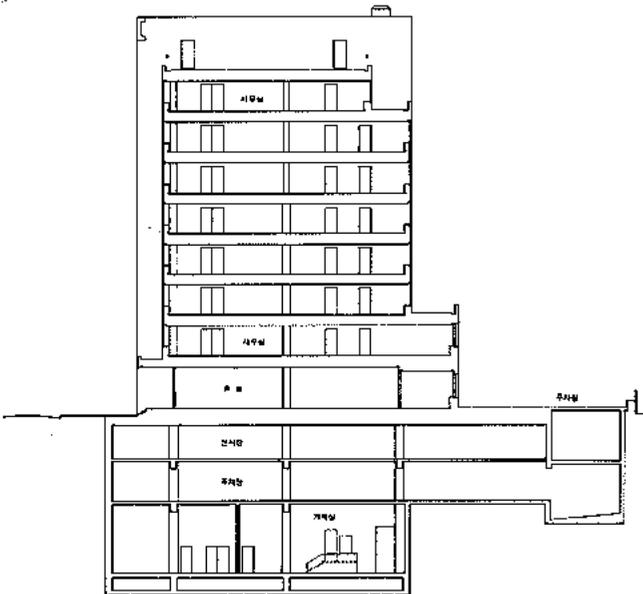
도시 스케일에 대응하면서도 보행자 스케일에 맞아야 하며, 하나의 판으로 보이면서도 완전한 판은 아닌 것이고, 건물의 전체적 인상은 단순하면서도 해학적인 건물이 되기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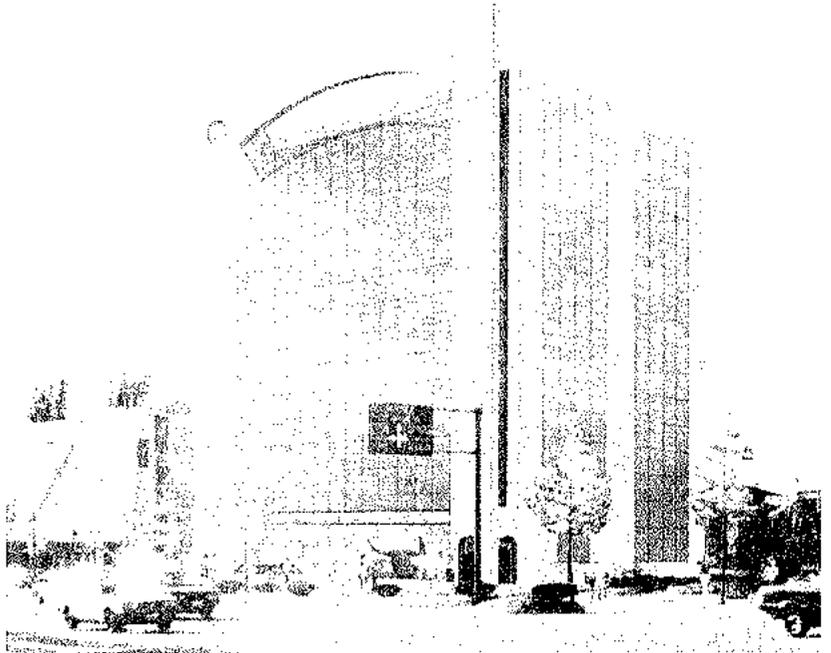
2층(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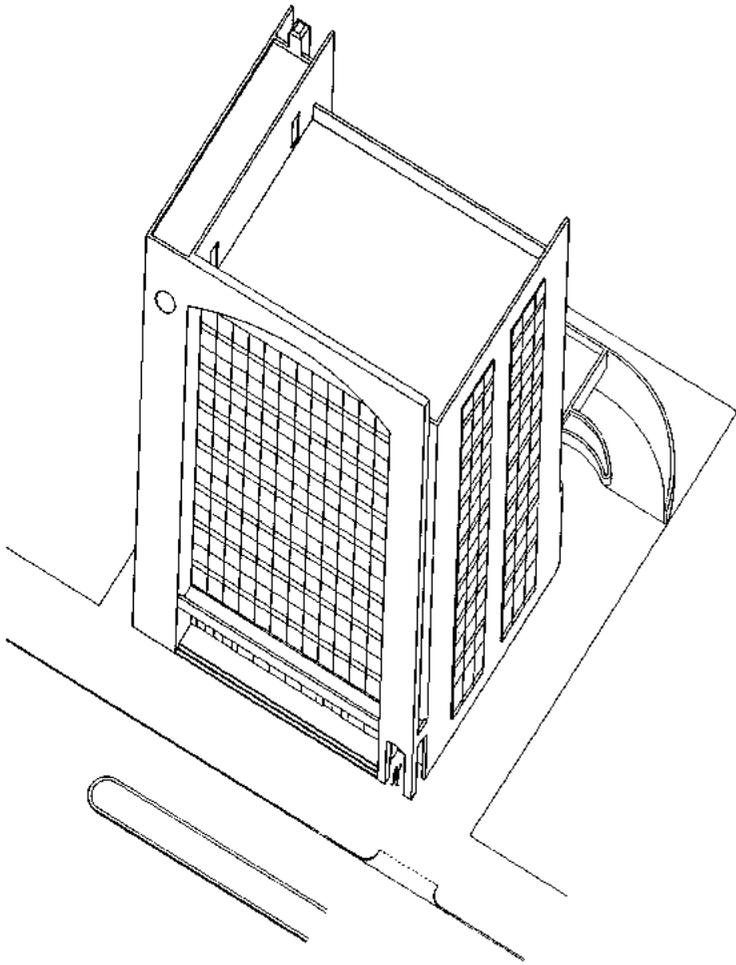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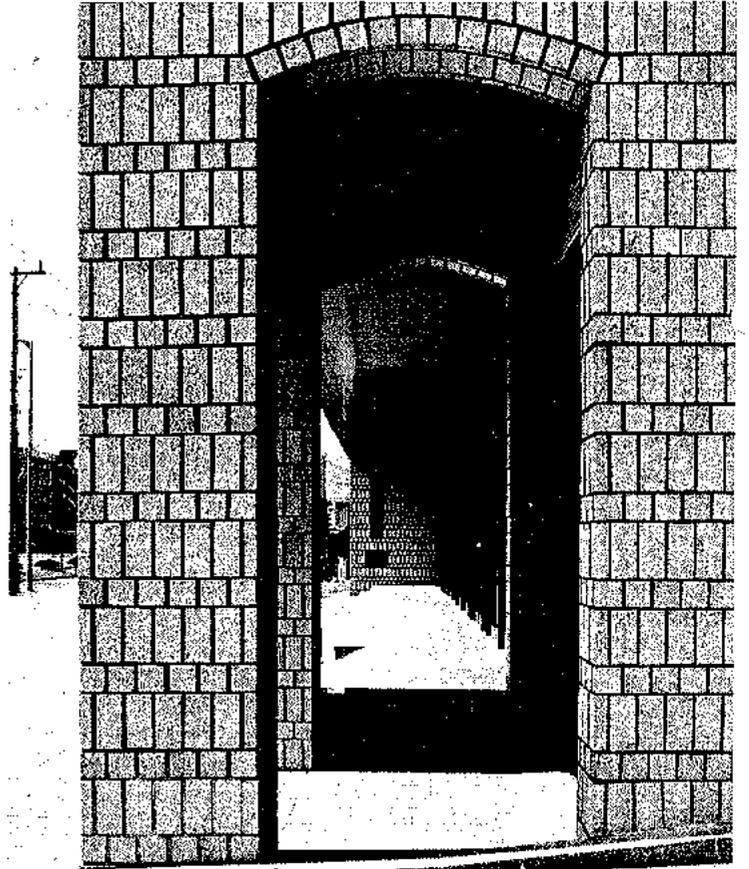


주단면도





엑소노메트릭



외국을 드나드는 사람들 눈에는 이제 우리도 꽤 많이 성장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특히 가까운 일본만해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지구촌의 한 지역에 불과하다는 느낌밖에는 별다른 감회가 없다.

그만큼 가까워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장했다는 실증이기도 하다. 건축을 하는 입장이나 도시환경을 보고 건축물을 볼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머무는 시간과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관심에 비례해서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요소가 아닌 내면적인 면에서의 격차다.

오래전부터 新建築이라는 日本建築 전문지를 구독하지 않기 시작했는데 이유인즉 별로 불만한게 없다는 단견이었다.

조형공간연출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을 뿐더러 그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때때로 국내 건축물설계를 외국에 의뢰할 때마다 우리건축계에서는 반발을 일으키고 특히 일본건축가에게 의뢰했다면 더욱 언짢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 했다는데에 있다.

교포 한 분이 일본인에게 이렇게 나를 소개했다. 한국에서 건축설계를 하는 분입니다. 한국의 건축설계분야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그 어떤 분야보다 더 앞서있고 그러기에 어쩌면 당신네 수준과 맞먹을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암시하듯 주장했다) 듣기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지나쳐 버릴 얘기도 아닌 것 같다. 정말 그럴까하는 거다.

나의 사건이지만 조형공간을 연출하는 솜씨는 우리가 일본보다는 뛰어난것 같다. 단지 그 공간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편의나 건물의 유지관리, 안전, 경제성 등 그 외형적 요소를 뒷받침해 줄 내실에는 아직 많은 허점이 그들보다는 많다는 것이다. 디자인 센스는 훌륭하나 그것을 뒤따라야 하는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 설계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일하며 생각하며

“장어들은 어디 갔나?”

姜純一

상지·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바로 이것이다.

작은듯 하면서도 소중하고 사급한 이 문제를 우리 모두는 외면하거나 회피해 온 것만은 사실이며 우리의 영역밖의 일이라고 버려두었다. 메이카나 시공자들의 손에 맡겨버리기 일쑤다. 그러기에 이윤추구나 공사의 편의성이 우선되는 디테일 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당연히 획일적일 수밖에 없다. 조형공간의 개성만큼이나 디테일의 진보나 개성은 찾아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물론 산업 전반적인 발전과 분화수준의 향상이 언젠가는 구석구석까지 신경을 쓸때가 오겠지만 그때를 적어도 우리분야에서 만큼은 앞당기고 싶고 또 그럴때도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 형태의 가치 기준이 있겠지만 나는 가장 작은부분을 소홀히 넘겨버리지 않는 작가의 성실성에 두고 싶다. 때로는 그것에 신경을 쓰다가 경영의 손해를 본다든지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놓쳐 버리는 바보스러운 장어의 근성을 가진 양심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랄 뿐이다.

요즈음 꽤나 많은 건축전문지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작품의 외형적면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지양하고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전문지도 있었으면 좋겠다. 누구나가 다 콘택터가 될수는 없다.

열심히 한 파트를 연주해 주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연주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주는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의 관계로 오케스트라를 완성하는 것처럼 건축가와 협력할 수 있는 훌륭한 장인들이 있어서 좋은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

적어도 창의력은 주종의 관계에서는 생성될 수 없고 협력의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록 대학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공교나 전문학교 과정에서 디테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전문인을 양성해서 얼마든지 일터를 보장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장어로 살아도 부끄러지지 않고 천대시 하지않는 풍토 그것이 일본과는 다르며 내면적인 격차를 가져온 동기라고 본다.

나도 언젠가는 건축사 자격을 따서 독립하고 남을 부리며 일한다는 잘못된 의식이 사라지고 전문성의 권위와 존경이 어떤 위치에 있던 문제시되지 않는 그런 의식의 사회가 앞당겨질 때에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부터 건축을 잘모르는 건축주로부터 설계사 그 양반 하는 얘기를 간혹 들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모멸당하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다.

작가라는 얘기는 붓들을 지언정 설계사라는 어휘의 뉘앙스는 설계쟁이라는 그것과 진배없는게 아닌가하고 언짢게 느껴 지는데 우리의 의식구조 가운데 뿌리깊게 내려오는 양반 상놈의 귀천사상 때문이 아닌가 본다.

임진란때 일본으로 잡혀간 도공의 후예들이 지금도 14대, 15대 인간국보로 존대를 받는 그 풍토가 오늘의 일본을 우리와 다르게 하고있다.

이땅에 장어들이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둘 수는 없는가? 그것만이 내면의 격차를 줄이는 길이다.

“ 建築 너 뭣고 ” (2) (饒舌的建築愚論)

■ Essay
Want to Know What is Architecture
by Choi, Chang-Ku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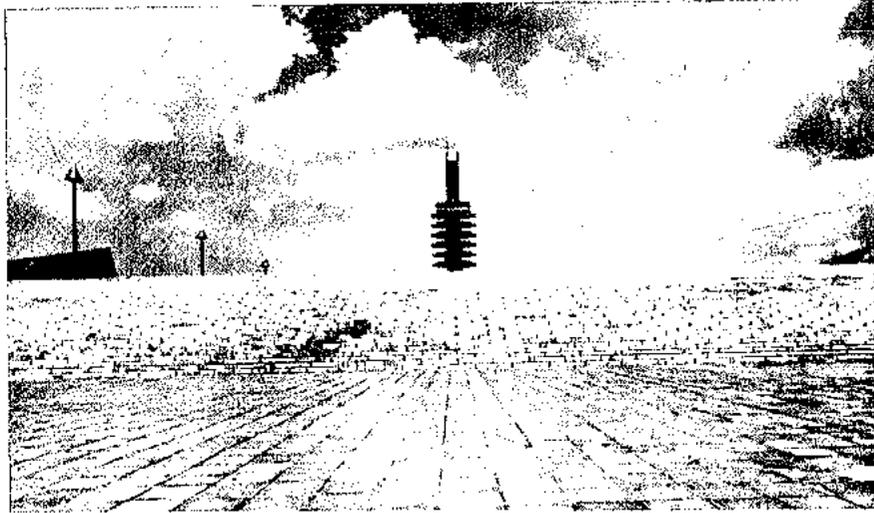
이러한 느낌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란 오직 순수하게 학문적이거나 製圖板上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못됨을 알 수가 있다. 더많은 더 복잡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일키고 설켜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학문이 학문다운 주장만을 고집할 그런 것만은 아닌 것만 같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들이 다양하다느니 복합적이라느니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있는 사회적 문제들 (특히 대도시에서 있어서의 공통적인 취약점들) 교통, 취직, 교육, 주거라는 몇가지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그것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누가 연구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우린 建築이니 都市計劃이니 造景이니 인간환경의 창조니 인류문화의 구축이니라는 거창한 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천직으로 삼고 생활(생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냉철히 생각해 보면 얼마만한 수의 인구를 가진, 얼마만한 규모와 시설을 가진 도시가 우리들의 사회에 가장 적절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거나 제안한 일은 없다. 모든 학문의 분야는 세분되고 다양해 가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제시나 모델이나 주장이 없다는 것은 참말로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들은 오직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분야에 국한된 일만은 아니지만 이상하고 놀라운 뿐만 아니라 우린 그동안 무슨 의도들을 하고 있었든가하는 自省마저 하게 된다. 모든 도로의 원리가 1점에서 1점으로의 직선이 최단거리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단의 도로는 경제면에서도 투자가 가장 적게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개의 도로는 직선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느낌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란 오직 순수하게 학문적이거나 製圖板上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못됨을 알 수가 있다. 더많은 더 복잡한 사회적인 여건들이 일키고 설켜 있다는 뜻이 되겠지만 학문이 학문다운 주장만을 고집할 그런 것만은 아닌 것만 같다. 따라서 이러한 학문들이 다양하다느니 복합적이라느니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특히 대도시에서 있어서의 공통적인 취약점들) 교통, 취직, 교육, 주거라는 몇가지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런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그것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는 누가 연구하고 누가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이다. 政治家, 經濟人, 一般消費者, 政府라는 이름의 기구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일까? 이것은 확실히 새로운 社會企劃이라든가 미래학직 분야에서 흥미있는 自由時間 都市構想이나 파괴공학의 개발이나 接觸과 斷絶과 解體와 廢棄라는 새로운 분야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요구될 것이겠지만 침묵과 고독이나 열연과 의욕적인 활동이라는 상대적인 문제들의 분석이나 더크게는 세계 각지에서 서서히 대두되고 있는 從屬의 關係와 상상못할 새로운 Style 의 종교나 국가해체 도시연맹에서부터 Entropy 이론이란 다각적인 새로운 학문의 출현이야말로 우리들의 건축이나 도시계획의 신차원에 영감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는 생각이나 요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10평미만의 주택조차도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는 이때이기는 하지만 우린 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것이다.

上記한 바와 같은 饒舌的인 問題들이 비록 오늘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결부가 되지 않는다해도 믿을 수 없는 관리행정적인 정부에 맡겨 버릴 그런 것이 될 수도 없다. 솔직한 견해로선 우린 그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하는 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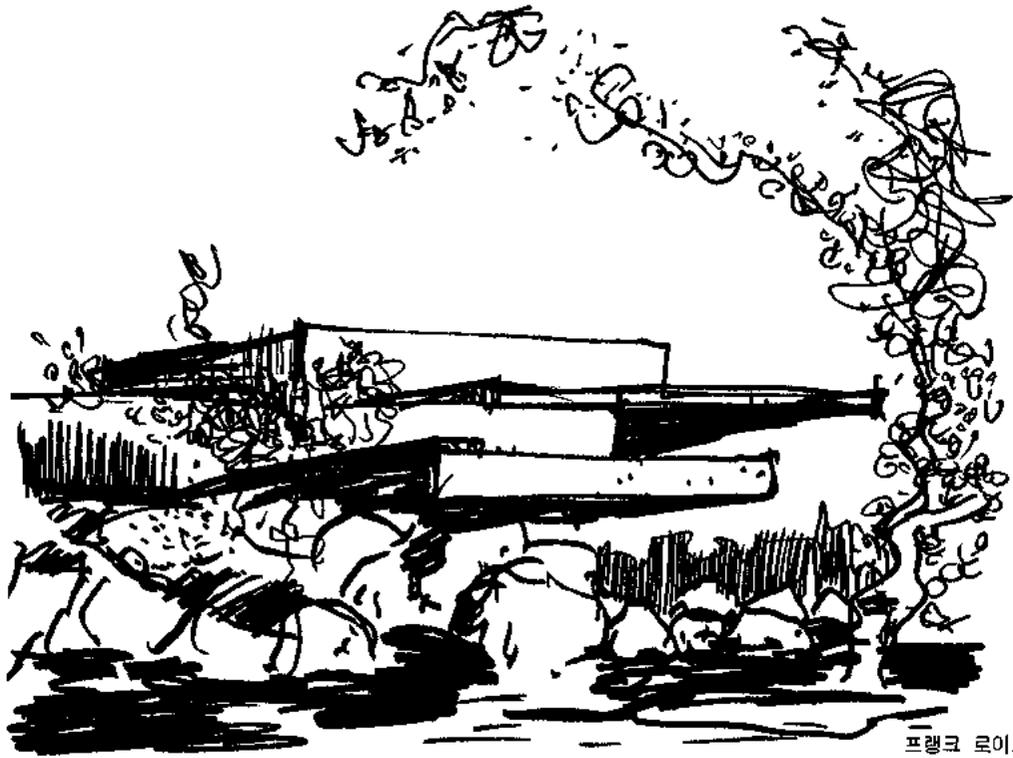
崔昌奎
건축사사무소 신진



菅原義信 東京 Olympic 駒沢公園

아니다. 일맥의 희망 같은 것을 가져 볼 뿐이다. 이 세상에 누가 동치 당하는 것을 원할 사람이 있겠는가. 선량하고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회라면 정부 따위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다. 그것은 그들의 권력남용이라든가 근절될 수 없는 부정이나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눈앞에 내세우는 決定權의 무지가 우리 실망시키는 데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한결같은 변명이나 명분은 한정되어 있다. 국가와 민족의 변명과 풍요로운 사회건설이란 固定述語이다. 忠誠과 愛國의 깃발은 드높지만 君主(帝王) 없는 충성의 의미도 그리하거나 길거리에서 하니같이 자기는 애국자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사회문제는 연장적으로 연속된다. 愛國의 뚜렷한 증거물은 銅雀洞 國立墓地이었으나 역시 회의는 있다. 국가를 망쳤고 위태롭게 한 사람도 그곳엔 많이 묻혀 있다. 허나 아무리 찾아 보아도 건축가나 도시계획가의 무덤은 발견 못했다. 확실히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은 애국할 분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일까? 그래도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 결론적으로 평등이나 공평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과연 인류나 국가나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인가고, 인류나 문화나 예술이나 기술이라는 의미가 우리사회에 어느정도 이해되고 먹혀 들어가고 있는가이다. 夏歪라는 칠(계절)이 지났다. 곧 장마가 온다고 한다. 부덤고 불쾌한 일기가 연속될 것이다. 곧 불쾌지수란 활자가 신문지상에 등장할 것이다. 과학적으로야 불쾌한 정도의 어떤 선을 정해 놓고 그 선을 넘는 온도나 습도를 지수로 불쾌지수 얼마나 하겠지만 수많은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기분의 공동분포를 통계적인 Delta 나 수식으로 나타낼에 불쾌하다. 인간이 얼마만한 극한에서까지 살 수 있을까를 정의한 적은 아직 없다. 馳順의 능력은 요즈음 서울시민들에게 최류탄가스에 대한 면역성을 상승시킨

것도 사실이다. 어떤 환경에 익숙해졌다. 익숙할 수가 있었다에 대한 실제적 또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가?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일들은 건축이나 도시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이런 문제는 누가 규정하고 또 해내야 할 일들인가.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들이 했을까, 해야 할 일일까? 환경청이나 정치가들이 할 일일까? 홍수나 화재의 예방적인 조치나 연구는? 다량소비를 미덕이라고 광고하는 상인들이 다량소비에서 부산물로 나온 오물이나 공해물질에 대해 책임진 일이 있었는가? 다량생산해서 다량소비시켜서 이윤을 추구해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공해물질이나 오물물질을 무해하게 처리했다든가 資源化로 循環시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은 돈을 벌게 해주고 해를 우리가 입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정치라고 한다면 그런 정치는 우리에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마땅히 거부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이고 좋은 싫든 이런 문제는 어떤 분야가 반드시 담당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라는 사회에선 우습게 보고 있는 분야들이 거룩하게도 인간의 생명이나 인간생활의 환경의 淸燈이니 쾌적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해결해 볼려고 하고 있는 분야들인데도 공기의 고마움을 잊은 듯이 당장에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인데도 별로 관심조차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제 饒舌의인, 頭序없이 건축이란 무엇이나? 건축 너는 대체 무엇이나? 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다. 건축이란 결국은 수와의 함수관계가 있다. 前記한 대도시의 四大脆弱點도 들었지만 교통의 정체도 취직의 어려움도 학교의 수용능력도 주거의 부족 상황도 결국은 數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 통계가 비중있게 대우받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세상에 통계처럼 부정확한 것도 없는 데도 통계처럼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落水荘

참고가 되든지 기획이니 정책수립에 필요한 것도 없다. 아마도 이것이 통계의 魔力 아닌 魅力인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건축이나 인간생활의 환경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면 반드시 도시의 상황을 말하게 된다. 그렇다고 지방의 농어촌엔 인간이 살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그런 곳에서 생산적인 상황은 더 일어나고 어려운 운송을 거쳐서 도시로(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보내져서 화폐와의 교환, 소비가 된다. 인구의 밀집도 지역과 시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진다. 요는 어떠한 생산품이 인구밀도가 많은 곳으로 이동되게 마련이고 비록 그것이 단시간적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성물질은 그리로 가고야만한다. 이것은 상업의 원리이고 소유와 이용과 교환의 원리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철도역이나 공항, 선착장이나 종교적 집회소나 많은 사람들이 集散離舍하는 곳은 반드시 商行爲가 활발하여지는 곳이다. 근사에 두두러지게 나타난 예가 아마도 공항일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공항에도 수송이나 교통이란 본연의 목적 이외에 가장 상행위가 성행하는 구역이다. 편리와 친절, 봉사와 협조라는 美名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엔 그 저변에 상행위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학교 교문앞의 분위기가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교환되는 소유의 행위와 소비의 행위와 폐기의 행위적 도식은 유흥지나 명산대천의 위락지는 물론이고 멀리 우리 조상들이 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날을 정해놓고 풍속적으로 이루어 졌던 “장”날 역시 오늘의 이런 상황과 다를 바가 없고 거기서 또한 자신의 친척 같은 것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고 보면 오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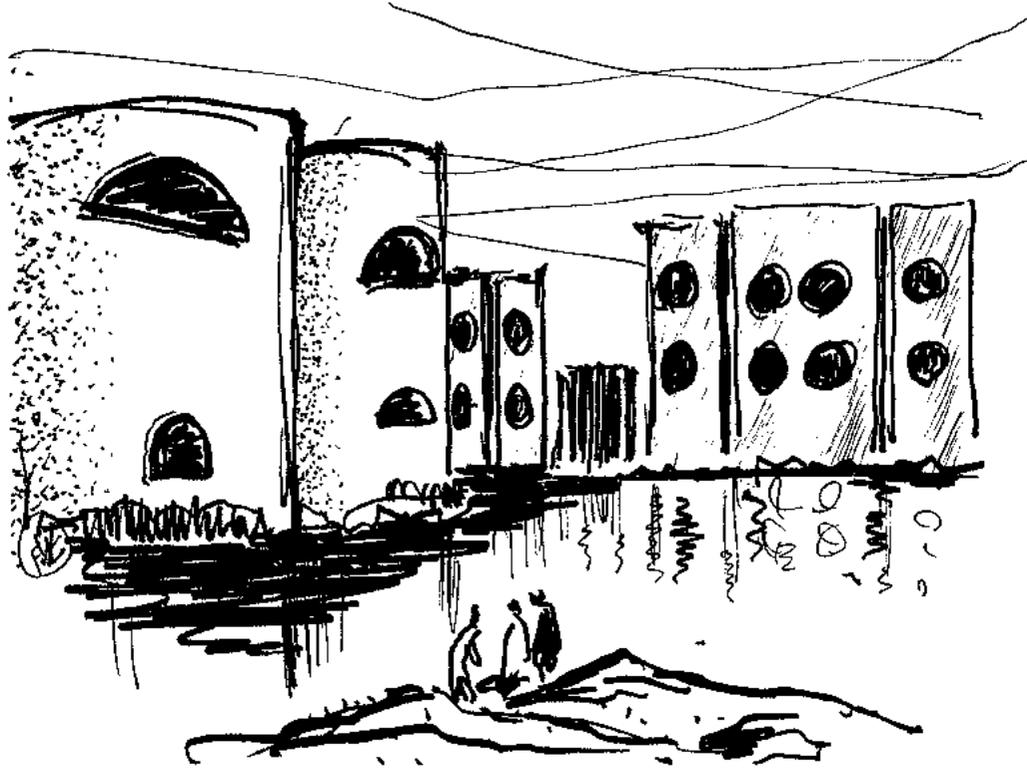
수많은 직종의 발상은 그런데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자~ 바로 이런 인간생활의 전부를 포함하는 場과 行爲를 어떻게해서 편리하고 정연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계획, 시설, 장치하느냐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창안해 내는 것이 바로 이글의 제목의 “건축! 너는 대체 무엇이나”인 것이다.

사회는 건축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느니 싫어한다는게 맞는 말이다. 그러나 두고 보자 未久의 인간사회에선 사회가 먼저 건축가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로서 이런 말을 믿거나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는 정조가 보이고 있다. 건축과 인간이라는 문제는 현재도 그러하지만 정치와 인간이나 경제와 인간이란 문제보다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지구상에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일들보다 더 근원적(몹시도 시간성을 띠, 원초적인 문제들)인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귀로 들려오기도 한다. 이때까지 우리가 건축을 공부하며 생각했던 그런 일들과는 관계없는 초연한 대자연적인 순환같은 것들의 정조가 나타나고 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의 세력이나, 문화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상상도 못할 속도의 이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들의 내용적 변화와 양식이나



백그라밋수행정센터 및 병원 (루이스 카할)

행사들도 그리하다. 인간들의 사상의 급변이나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장식에 대한 변천은 놀라울 뿐이다. 사고와 판단과 상식이 무너져 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렇게 급변해 가는 세계에서 고대부터 장시간동안 유지해온 인체의 생태마저도 외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다. 학분, 학설, 이론들이 교정되어가는 소리, 고정되어서 불변할 것이라고 믿었던 思惟의 방향이 예측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건축이라고 해서 고대서부터의 역사적 전철을 답습만 할 순 없다. 순간적인(비시간적인, 수명이 몹시도 짧은) 건축의 양식이나 사조의 파악은 더욱 어렵게 하고 건축이란 교향악무대에 등장했던 악기들이나 악사들의 모습은 바뀌어만 간다. 이때 이 교향악을 지휘할 건축가는 新樂器의 연주자는 못될 방정 그 새로운 악기들의 성질이나 능력이나 음질 정도는 알아야만 지휘할 것이고 멋진 교향악이 울리퍼질 터인데 聽衆이나 악사나 음악회 기획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그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잘하겠지 하는 정도의 태도이다. 이러한 예분은 세계적 음악의 거장의 연주회에 모여든 有志들이 사회적 위치나 뽐내려고 숙연히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서 고역을 치루면서 음악이 끝도 나지 않았는데 박수를 치는 그런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오직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은 우리 건축계에도 허다함은 살 알고 있는 터이다. 이것은 확실한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 너는 과연 무엇이나? 아무도 대답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약간의 그럴싸한, 건축의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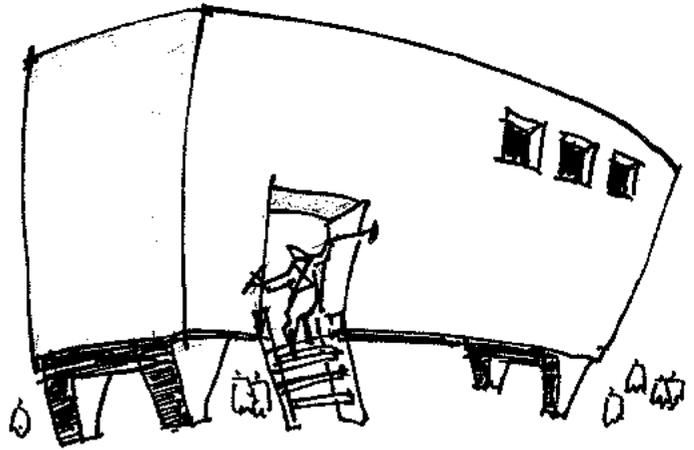
부분은 설명했다고 해서 정답이 될 수 없다. 건축가란 우직한 친구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웅변을 해도 소녀에게 조용히 사랑을 속삭이듯 정답을 할 수 없다. 정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벌써 건축은 별망했을 것이다. 혼미에 빠졌든 정치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한두사람의 결심으로 기적적인 해결과 화합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우선 시각적으로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 건물에서 사용하듯 생활해보아야 한다. 외양이 어떠한지 내외부의 공간이 어떻게 지저귀 해보아야 별도리가 없다. 어떤 시간동안 그속에서 생활하며 느껴 보아야 한다. 고래등 같은 고대광실은 우리 조상들이 가난한 생활을 할 때, 사회의 위계가 엄정할 때 건축에 대한 추상적이면서도 기대하고 동경했던 표현이었다. 초가삼간이니 개딱지 같은 집이니, 판자집, 하꼬방, 담장이나 토끼장 등의 건물에 대한 각계각층의 희망이나 총망의 표현은 너무도 많다. 이것은 건축 자체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크던 작던 호화롭든 빈약했던 건축은 틀림없는 건축이고 그속에서 인간들은 휴식이나 담소를 했던 것은 사실이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多様, 多變, 多極의 건축은 건축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애한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우기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외양이나 이론이니 주장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때에 폐쇄된 동양의 작은 半島에서 그것도 두동강이 된 이 山河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입수나 이해도 하기전에 建築云謂한다는 자체가 우습기도 하거니와 하나의 정보를 읽어 보기도 전에 또

“

오직 믿는다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요
 절대적인 태양은 믿을 것이다.
 “25時”를 쓴 게오르규는
 절대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다.
 어느 철학자는
 “We Believe the Sun Even When it is not Shing.”
 라고 했다.
 우리 태양이란 건축은 믿는다.
 오직 그것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건축 너 뭣고” 그것은 건축이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다.

”



高原義信 (外部空間의 美学에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낙후나 열등의식마저 느끼게 하는
 이때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학교에서 교수님들은 목청 높여서 학생들에게 건축을
 설명(강의)한다. “건축이란 기능이상적인 것이다.
 현대건축이란 실제적이고 합리적이고 편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기능이란 어떤 것이고 실리나 합리란 어떤
 것이고 어떤 規準인지조차 설명할 시간조차도 없다.
 기능적이란 形이 주어진 과제와 내적조건의 총체서부터
 만에서 축출해 내려는 생각의 구체화를 의미할 것인데
 비해 인간들은 오직 경제적 상호관계에서부터 기분이나
 분위기 감동까지도 경제적으로 풀이하려고만 하며 그것을
 기능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이란 화폐로
 환산해서 수지가 맞으면 건물은 기능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들은 사회의 모든 문제들(감정이나
 감동까지도) 경제에 관련시켜서 해석하려는
 습관성소아병인 것이다. 기능적이란 최종적으로는 形이
 예지된 것이 아니고 습目的思考와 목적에 관계없는
 思考와의 創造的 交流에 의해서 추출되거나 발견되어야만
 할 터인데 기능적이야 한다는 목적의 불명확성은 도리어
 수단과 방법의 풍부성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비능률적인
 결과를 낳고 비효율적이 되어 가는 것이 현대건축이라고
 생각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이라고 목청을 높인다.
 건축은 물론이고 주택 역시 평면에서부터
 구성되어(입면에서부터 구성하는 경우도 물론있다) 평면이
 形을 주고 形자체가 내외의 공간을 구성하면서 기능을
 부여해 감은 당연한 일인데도 평면부터가 기능적이야
 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動線이나 효율이나 합리를
 기능으로 혼돈한데서 온 것이 아닌가고도 싶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젊은 학생들에게 건축을
 설명한다든가 형태구성의 혼란이나 형태분석을 설명하기란
 첫아이 낳기보다도 더 힘든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은
 학생들의 자각과 느낌과 예감이나 숙련에서만 체험화나
 신념화시킬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기쁜 일일까마는
 그렇치가 못하니 안타깝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은 오직
 건축자체에 관한 이야기긴 하지만 일단 이 건축이
 사회적인 문제로 변할 땐 법이다 행정이다 절차와
 건축주와의 문제에서부터 현실의 시공이나 시공밀도문제에
 까지 이르러서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다.
 건축이란 철학과 공학 사이에서 인간의 住라는 문제는
 시작되었고, 건축의 역사 역시 인류역사와 동시에
 始發되었고 인류멸망의 날까지 병행할 것은 틀림없고,
 이때 건축이란 무엇이나이니 예술이나 공학이나 따위의
 문제는 훨씬 후의 일이지 그 당시는 그런 문제는 아무런
 의미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기계문명이나 과학문명의
 대두에서부터 분업의 효율성에서든지 경제나
 소유관념에서, 職別에서 오늘날은 골치 아픈 많은 분야가
 생겨나고, 주택이란 문제에서 시공이나 사용의 편리 등이
 건축을 공학으로 규정지어 버렸고, 근자에 와서
 서서히나마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라는 서열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서구의 어떤 나라에선 건축을 독립된
 건축학, 건축대학으로 변천한지 이미 오래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공간이나 시간이나 표현, 의장이란
 분야가 이해되기 시작되어 왔다고 보아야겠다.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날 內藏山 留軍峙고개를 넘어 한참
 가면 白羊寺가 있다. 연못을 끼고 山門에 들어서면
 거대한 비석이 서있고 오직 “너 뭣고”라고 불교적인



필립 존슨 이스라엘 레오헛트원자로

자기인정이나 無我의 뜻을 돌에 깎어 글을 새긴 것이 있다.

그 비석 앞에 서서 한참 생각을 했다. 불교, 종교, 자비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名僧이 “너 밋고”라고 경상도사투리를 새겨 놓았다. 여기서 “건축 너 밋고”와 일맥상통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까지 긴 세월동안 불교를 대중이 알기 쉽게 설명한 명승이 있었는가? 부분적인, 알송달송한 불교의 이차야 히구 많지만 불교란 전체를 객관적으로 설명한 명승은 없다. 그들의 행적이나 수도의 고행이나 일화야 허다하지만 “건축 너 밋고”에 대한 대담 역시 이 비석에 쓰여진 문구와 꼭 같은 것이다. 수많은 거장들의 부분적인 철학이나 사상, 일화야 허다하지만 건축 자체를 일괄 명쾌히 설명한 건축가는 없다. 따라서 많은 후인들은 그 어떤 부분만을 건축의 전부인 양 착각도 했고 거장들의 오묘한 언어를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보방이나 연상으로써 직업으로서 무심코 연속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건축에 대한 추측이나 예감따위도 막연하기 그지 없는 것이다. 근자 우리 주변에 유식하게 떠들어 대는 “아키그램”, “메다포르즘”, “포스트 모더니즘”, “레이트 모더니즘”, “세미오로지”, “메다화”, “新古典主義”에서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기괴할 정도의 “한타지칼리즘” 더하기 “전위건축”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건축의 이론이나 도식들은 一過用이나 一회用 상품과도 같이 市井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우기 이에 따르는 관리행정측의 아리송한 임시용변이나 형식적인 각종의 한정통제, 규제의 法이나 規定이니 습이나 條例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의 두뇌들도 혼란되어 소회시킬 수 없는 多寄復雜한 규정들 속에서 空間을 劃하고 造形을 試圖하는 建築, 과연 너는 밋고라고 소리쳐보고 싶은 심경이다. 보람있는 직업이기도 하고 무한히 고독하고 외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고달픈 직업이기도 한 건축. 그저 묵묵히 미래를 꿈꾸며 순수나 예술이나 하면서 시도볼 거듭하는 “시지프스”의 전설같이 무의미한 반복의 형벌을 받는 건축가들. 이기와 이윤에 인생을 걸고 허덕이는 건축주 후보자들 속에서 읽고 그리고 시도하는 獨高하고 孤寂한 무리들은 오늘도 清潔한 인간생활의 場을 그려본다.

미와 감각을 착각하고, 세련과 지식을 혼돈하고, 기호와 취미, 근면과 실제적 체험의 차는 어찌 되는 것이며 양심과 독선이나 과장과 위세가 인생의 전부인양, 하나밖에 없는 자기육체를 혹사하는 것을 전직으로 삼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회적인 지능적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닌 인류원초의 무리들이 이땅에 있는 한 “建築 너는 밋고”라는 의문을 그들에게 묻지말라. 그들은 그것을 지향하면서 몸과 정신을 불사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는 않는다.

오직 믿는다면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일 것이요 절대적인 태양은 믿을 것이다. “25時”을 쓴 게오르규는 절대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했다. 어느 철학자는 “We Believe the Sun Even Wnen it is not Shiung.” 라고 했다. 우린 태양이란 건축은 믿는다. 오직 그것이 빛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이다. “건축 너 밋고” 그것은 건축이다. 다른 답은 있을 수 없다. 《完》

獨立記念館 自初至終

金 洄

(獨立記念館 基本計劃 小委員會 委員)

• 發端

1982년 8월은 일본의 교과서 歪曲사건에 따른 국일운동과 그 여파로 벌어진 국민모금운동으로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다. 정부는 국고로 候補地 매입을 지원하고, 국민 모금으로 건물을 세우기로 하면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모금의 목표액은 500억원이었다. 이 모금 운동은 전국의 어린이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그런 종류로서 유례가 없는 사업이었고, 신문사 방송국들도 서로 앞을 다투어 열의를 보였다. 예정된 기간동안 430억이 모금되었다. 이자수입을 합하여 500억원이 모아진 셈이었다. 이 모금의 열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국민의 일면 國家主義的인 자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제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기초로하여 1986년 8월 15일 완공예정으로 建立 計劃이 추진되었다. 아직까지도 나는 그런 국민적인 열기에 의해 사업주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責任感과 強迫觀念속에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정치적인 Project라고 이야기되어야 할 것이었다.

後日 우리가 이 일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을 때 우리 사무실의 대학원

재학생들중에는 왜 그런 정치적인 성격의 일에 우리가 그렇게 깊이 개입해야하는지 반대의견을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단순한 獨立記念館 그 자체에 의미를 두자고 말하여 그들을 무마했다. 우리에게 아직 독립기념관같은 성격의 건물이 없지 않은가. 구대여 제5공화국의 기념이라는 등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등등이었다.

• 建立 候補地 선정

기본方針으로 서울과 대전사이에 100만평정도의 후보지를 물색하기로 하고 광범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Project의 중요성을 의식하여 각 도의 지사들에게 각 도별로 2개씩의 후보지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쓸모가 없었다. 候補地 물색은 처음에 문공부에서 주관하여 4~5개월을 허송하였다. 그후 建立推進委員會에 위임되면서 2개월이 또 허비되었다. 그러던중 당시 사무처장이던 박종국씨가 후보지 선정문제는 전문가가 관여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참여를 요청해왔다. 필동 「한국의 집」에 있던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20여군데의 후보지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도상으로 검토한 후 3곳만 현장을 답사할 것을 제안했다. 거기있던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도상으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졌었으나, 1차로 답사후보지를 가려 내기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먼저 사무처장과 돌이서 3곳을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그 곳들은 지금 獨立記念館이 들어가 있는 부근, 상당산성주변을 비롯한 3곳이었는데 3곳이 모두가 적당하지 않았다. —어떤 곳은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이거나, 또는 국면이 협소한 곳, 또는 산이 너무 못생긴 곳 등등…….

국민의 企待,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니 선택은 더욱 어려웠다. 당시 觀念속에서의 獨立記念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獨立精神, 自立志志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모두의 기본적 생각대로 산이 좋아야하고, 현실적으로 교통이 편리해야 했다.

가장 애를 먹는 문제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사이를 모두 둘러보아도 그 안에 100만평이나 되는 땅이 開發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대부분 공장이 들어서서 등 개발이 되어 있었다. 또 잘못하여 그런 곳을 선택했다가는 엄청난 補償金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산이 좋고 물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제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여러 곳을

헤메고 다녔는데 적당한 곳이 없었다. 별다른 진전없이 2~3일을 보냈는데 그 때는 이미 시간을 허비할대로 다 허비하여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는 재촉전화가 울정도로 候補地 결정문제는 다급했다. 하여튼 이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칠사이에 후보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나와 박처장은 몹시도 조급했다. 어떤 때는 차가 개울에 빠져서 꼼짝 못하고 산길을 걸어다니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 밭에서 무우를 뽑아 먹기도 하는 등 고생을 겪었으나 결국 좋은 곳을 못 구하고 실의에 차서 서울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다니는 것은 投機 등의 문제 때문에 비밀로 해야 했는데 그때 주로 안내를 맡은 사람이 당시 충남 천원군수였는데 그가 돌아오는 차중에서 후보지를 충남으로 결정 안하고 올라가시는 것 같아 감취둔 곳 하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다고 안내한 곳이 지금의 목천면 남화리, 신계리 일대였다. 밤이 꽤 깊었지만 처음보는 순간 매우 마음에 들었다. 당시에는 수십 채의 민가 마을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던대로였다. 특히 흑성산과 그 양 날개가 좋았다. 너무 어두워서 산꼭대기에는 못 올라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돌아보기로 하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 와서 동국여지승람, 택리지 등 3~4권의 책을 찾아보았다. 이 책들에는 이구동성으로 목천면, 목천, 흑성산 등의 부근지명이 '좋은 땅이다' '명堂이다' 등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내려가 흑성산 정상에 올라갔다. 그 頂上은 ○○ Radar 기지가 있어 길이 아주 잘 나있었다. 그 길은 6·25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담하고 印象이 좋았다. 6·25 때 만든 길이라는 것은 요즘같이 장비가 좋아 흙을 밀고, 바위를 꺼내서 뱅뱅뚫은 길이 아니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길이기 때문에 自然景觀을 최대한 살린 아주 아기자기한 길이다. 산 정상에서 보니 과연 책에서 말한대로 좋은 땅인 것이 확실했다. 박처장과 나는 아마도 이 이상의 더 좋은 땅은 없다고 확신하며 내려왔다. 곧바로 문공부에 보고가 올라가니 모두 좋아하였다. 당시 이진희장관이 그

다음날 바로 가보기로 하였다. 다음날 목천행 차중에서 나는 그 땅에 관해 대강의 설명을 하면서 風水상으로 땅이 좋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풍수상으로 대단히 좋다는 것을 강조해서 발표를 하면, 후보지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여러 論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내생각으로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은 반이상이 意識的, 無意識的으로 풍수상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장관도 그날저녁 서울에 돌아와서는 무척기뻐서 한 잔 마시러 가자고 할 만큼 일은 잘된 셈이었다.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로 광복회나 독립운동
 유공자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추진위원장에 안춘생
 현 관장이 추대되었던 사실은 대개
 알려진 대로이다. 그 이사회는
 재계중진, 문공부, KBS 방송국
 등의 현실적으로 일에
 관여 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이 목요일이었을 텐데, 워낙 시간이 없었으므로 바로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고, 토요일 아침에 대통령 전용헬기를 타고 흑성산 정상에 내려 다시한번 그 땅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설명하였다.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이 이상의 좋은 땅은 없을 것 같다고 보고를 하였다. 대통령도 반응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되었다. 그날 저녁 술을 한잔하고 늦게 돌아오니 신문기자들이 집에 가득하였다 候補地 선정문제가 국민전체의 관심사였으므로 기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문공부 관리들을 많이 追窮했던 모양으로 그 장소가 결정이 되었다. 안되었다 밝힐 수 없는 관리들로서는 김원이 한테 가 보라고 흘린 모양이었다. 나야 관리도 아니고 편한 입장인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신문에 大書特筆 대통령談 "조경만 잘하면

괜찮을 듯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단 승인은 된셈이었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이 싫지않다면 推進위원회가 결정을 할 사항이었으므로 공식적으로 좋다, 나쁘다 의견을 말할 입장이 아니었다. 그후 그 대지가 그대로 建立豫定地로 확정이 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후보지 결정에 내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잘된 일이고 또한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 基本計劃 小委員會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로 광복회나 독립운동 유공자등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추진위원장에 안춘생 현 관장이 추대되었던 사실은 대개 알려진 대로이다. 그 이사회는 재계중진, 문공부, K. B. S. 방송국 등의 현실적으로 일에 관여될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추진위원회의 분위기는 - 국민의 반일·극일감정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 대단히 경직되어 있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 한예로 당장 집이 지어지는 - 듯 성급히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훌륭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지어야 한다"고도 하였다. 이것은 보통사람들도 모두 막연하나마 가지고 있던 固定觀念이기도 하였다. 또 한가지는 계획을 하건 설계를 하건간에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된다는등의 편협한 발언도 서슴치않는 분위기였다. 그런 분위기가 과장되어 일본식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神社參拜가서 일본신사 앞에 꿇어앉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일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순수한 한국의 人力, 한국의 技術로 이것이 완성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단연 우세했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래 쯤이면 解放당시 유치원도 안 다닌 世代니까 우리 나이 이하로 책임자를 물색하다가 김원이가 괜찮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모양이었다. 建立 推進委員會 안에는 企劃委員會가 있었는데 그 기획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사람이 관여하였다. 주로 역사학자,

“

기본계획 소위원회 5명은 자신들의 일들을 많이 희생하면서 중대하고 의미있는 이 일에 열심이었다. 그사이 몇 번에 걸쳐 世界旅行을 하면서 類似施設을 돌아보고 건립후의 문제, 다른 유사시설과의 비교등의 자료수집을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진품위주의 박물관식”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나 지금 돌아켜보면 우리 주장은 완벽하게 옳은 것이다.

”



■ 독립기념관, 현상설계 당선안 (모형)

독립운동사 교수들이 주축이었고 건축에 있어서는 나와 김종업씨가 위원으로 되어 있었다. 그후 언젠가 김수근씨를 만났더니 농담조로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된다는데 어떻게 김종업씨는 들어가 있느냐?”면서 “동경대학은 안되고 요코하마공공은 괜찮단 말인가?” 등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김종업씨는 “평생 建築을 한 사람으로서 말년의 마지막 奉仕로 獨立記念館 設計를 국민에게 바치겠다”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빠뜨리지 않았다. “기획위원회 안에 김원씨는 내가 가장 아끼는 후배이므로 둘이서라면 훌륭한 作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일이 細分化되면서 분야별로 기획위원회의 보충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획위원인 나와 김종업씨가 각각 한분씩 더 推薦을 하기로 해서 내가 윤승중씨를, 김종업씨가 김석철씨를 적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이 일을 企劃하는데 적합한 분으로서 윤승중씨를 추천했는데 반해서 김종업씨는 김석철씨가 그를 도와 기획위원회에서 설계를 하는데 한표를 보태는 결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김종업씨는 기획위원회에서 설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나와 윤승중씨가 반대하고 김석철씨도 그의 의견에 농조를 안하여 결국

기획위원회를 떠나게 되었다. 개인적인 욕심이 成就되지 못해서 손을 떼면서 “젊은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다.” “사무처장이 녹주를 하고있다” 등의 非難을 여기저기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는 여러기관을 통해서 調査를 받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다. 기획위원이 2명에서 4명 그리고 다시 윤승중, 김석철, 김원 3명이 되면서 그 Member가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되었다. 그 위에 조경 오희영, 도시계획 권태준 두 분을 보충하여 5명의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주로 독립기념관의 Program과 Master Plan을 맡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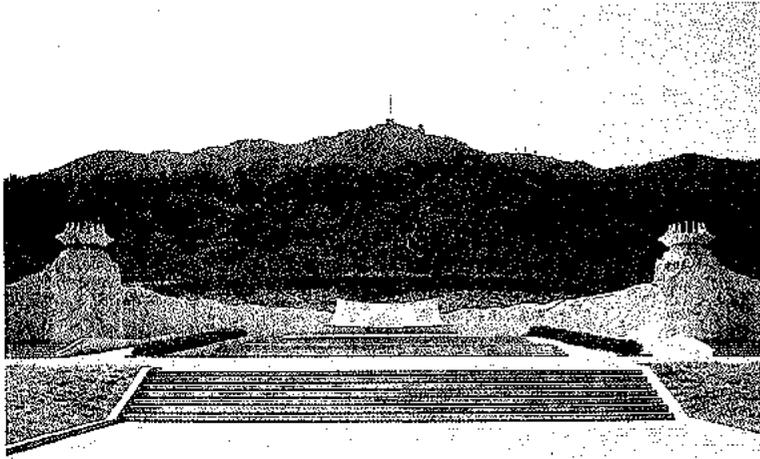
• PROGRAM작성

候補地가 정해지고나서 그 안에 들어갈 施設문제, Space Program, Activity Program, 大地活用문제, Feasibility등에 관한 Program은 외부에서 용역하기도 어렵고 우리들이 위원신분으로 그것을 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딱딱했던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이 일을 시키는데 用役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 못했다가보다 부분적으로는 자진해서 - 實費精算制로 보수지급을 하기로 했다. 앞서말한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Lead를 實際作業은 환경대학원 Team이 아파트를 빌어 밤을 새워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장관 및 대통령에 보고를 하였고, 이 일의 대강과 진로를 확정했다. 3개월후에 완성된 Program 보고서를 가지고 公聽會를 거치면서 거기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시키고, 다시 이사회를 통과시키는등 짧은 시간동안 실무적인 작업, 행정적인 작업등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 5명은 자신들의 일들을 많이 희생하면서 중대하고 의미있는 이 일에 열심이었다. 그사이 몇 번에 걸쳐 世界旅行을 하면서 類似施設을 돌아보고 건립후의 문제, 다른 유사시설과의 비교등의 자료수집을 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진품위주의 박물관식”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는데 더많은 시간을 빼앗겼으나 지금 돌아켜보면 우리 주장은 완벽하게 옳은 것이다.

• MASTER PLAN

Program만들때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누가 일을 할 것인가, 일한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등의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 추모의 전경

그래서 Master Plan 역시 누구에게 用役을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해서 내책임하에 광상식구들이 모두 差出되어서 예의 그 아파트에서 일하였다. 그 Master Plan은 2개월간 밤을 새워 일을 한 후에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

120만평 중에서 중심부 3~40만평만을 이용하여 거기에 아주 기하학적인 軸을 설정한 후 혹성산 정상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는, 조금 딱딱한 분위기의 안이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하지 않느냐등의 쟁점이 있었으나 나로서는 確信을 가지고 밀고 나갔다.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엄격한 秩序, 어쩌면 대단히 기하학적인 질서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를 導入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못한 것이 아니다.

또 한 가지로 한국의 傳統的인 배치라는 것이 이상적으로는 그런 것이었으나 지형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중심軸이 강한 Master Plan을 만들어 중앙부를 計劃하고 동서의 두 계곡은 앞으로 후손을 위해 留保시켜 놓았다.

이 Master Plan에서 대체로 건물의 배치까지 확정을 했었는데 그당시에는 앞에 이야기한 경직된 분위기 - 세상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만들어보자는등 - 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뿐이었다.

Program과 Master Plan 두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추진위원 이사회나 독립운동자단체와 부딪히는 쟁점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첫째 나는 우리 후손, 후대 어린이를 위해 施設面에서 아주 현대적이고 첨단적인 것을, 둘째 실제유물이 많지않기 때문에 複製도 불사한다. 세계 영상전시나 첨단과학의 방법을 총동원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품을 전시 안하면 의미가 없다. 혹은 그렇게 안하면 폭파를 시켜버리겠다는등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그대로 進行이 되었다.

지금 완성된 記念館을 보면 당시의 기본적인 精神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살아있다. Master Plan은 후에 여러 장관을 거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修正이 되었으나 아주 기본적 설정은 내가 주동이 된 기본계획 소위원회의 훌륭한 作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Master Plan이 일반에게 공개되던 날 MBC의 박은희기자가 젊은 건축가들이 관여된 것으로보아 독립기념관은 현대적인 건물이 되는 것이냐고 질문을 해와서 또 한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당시의 분위기는 거대한 기와집 오로지 그것 뿐이었다.

“

지금 완성된 記念館을 보면 당시의 기본적인 精神이 상당히 많은 부분 살아있다.

master plan은 후에 여러 장관을 거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修正이 되었으나 아주 기본적 설정은 내가 주동이 된 기본계획 소위원회의 훌륭한 作品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 현상설계

Master Plan할때쯤 이진회 장관이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보니까 언제 Master Plan을 만들고, 현상설계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김원씨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設計까지 끝내자 용역계약을 빨리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도 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기도 했다.

대개 선배들 의견은 반반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얼그리 고민하느냐, 일을 하라고 하는데 뭘 주저하느냐, 인생에 機會는 한번오고 두번오는 것이 아니니까 부조건 해야한다. 당신의 實力으로 보아 그것을 못 할리는 없을테고, 당신이 한다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절반정도, 그 반대로 온 국민이 성금을 모으고 관심을 가진 것으로서 한 사람의 작품으로 남을 만한 여건이 아니다. 결국 이사람 저사람의 입김이 들어가고 국회의사당과 같은 이상한 건물이 되고, 작품도 못 만들고 육이나 먹고, 질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 결국에 가서는 責任을 뒤집어쓸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사업으로 성공적일 것

갈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이었다.

나는 후자 쪽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진회 장관한테 가서 내 의견을 다소 미화시켜 이야기했다. - 이 일은 온 국민의 誠金으로 온 국민의 지나치게 큰 期待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바 한 개인이 무엇을 설계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온 국민의 衆智를 모은다는, 그리고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Open Competition (일반공개 현상)으로 광범하게 Idea를 모으는 것이 원칙이겠다고 하였다. 장관은 기쁘게 동의를 했으나 시간 부족등의 문제를 걱정했다. 나는 현상설계를 가장 완벽하고, 모범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장관께 요구하여 쾌히 승낙도 받았다. 그때까지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실제로 해 볼 기회가 된 셈이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여러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현상설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히 개선하고자 했다. 현상설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 擧에 해결하는 현상설계 요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예를들어 그때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당선작가에게 實施設計를 줄 수도 있다"를 "실시설계를 준다"라고 못을 박는 일이 시작되었다.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중 또하나로 심사위원 명단 事前公開문제인데, "심사위원 명단을 추후에 발표한다" "심사위원은 사계의 권위자로 한다"가 아니고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그 현상설계가 의도하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 외에 시간, 상금등의 문제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기위해 2단계의 공개현상 - 1차는 누구나 부담없이 Idea를 내도록 하였고, 1차심사를 거쳐 2차에 指名權을 받은 사람은 제작실비를 받고 더 자세한 Design Development를 시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심사의 전과정을 公開한다는 것이었다.

이런등의 것은 그전까지 前例가 없다는 단순한 이유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일들이었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현시원한 현상설계 모집요강이 만들어져서 2개월간 작품을 접수했다. 그 결과는 내 기대보다 좋지 않았다. 그것은 현상설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국 건축계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되리라는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반증이었다.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중에는 그 이후 그것이 계기와 전례가 되어 현상설계 "당선자에게 실시설계 줄 수도 있다"는 말은 사라졌다.

“

대한민국 건축계의 여러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현상설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람되게도 이번 기회에 이를 완전히 개선하고자 했다. 현상설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들을 - 擧에 해결하는 현상설계 요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이다. 예를들어 그때까지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당선작가에게 實施設計를 줄 수도 있다"를 "실시설계를 준다"라고 못을 박는 일이 시작되었다.

”

"당선작가에게 실시설계를 준다"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되었다. 심사과정의 公開, 기록에 남기는 문제등도 하나의 전례가 되어 그 이후 계속되고 있다. 단지 심사위원 사전공개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현상설계 결과는 나로서는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으나 그런대로 당선작이 결정되었다. 당선작이 결정되는 과정또한 복잡하였지만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을 뽑을 때는 주어진 Program과 Master Plan에 가장 충실한 것이라 생각하고 뽑은 것이었다. 지금 된 결과는 사실은 당시와 많이 다른 것이 되었는데 나 자신 아직도 지금 것이

그것보다 훌륭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 基本設計

현상설계 당선자가 김기용씨로 결정된 다음 공교롭게도 나와 그가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 말이 많았던 것 같다. 나는 이미 그때는 投書, 情을 너무 많이 받아 그 문제에 대해서 "김원이가 독주한다" "불마스러운 일이 있다" 등의 일을 여러번 당하고, 조사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나 자신도 누구보다도 땀땀하게 일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도 가끔 모여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땀땀하게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울 것이 없지 않느냐" "所信것 믿고 나가자"는 다짐을 여러번 했다.

그 당시로서는 용모작품들이 전반적으로 充實하지 못했지만 그 기본설계 작품은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하게도 그후 전개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의 입김이 첨가되어 결국 지금에 이르렀다.

기본설계가 확정될 당시에는 기본계획 소위원회 위원들이 확정된 기본설계 안에 대해 실망을 하였고, 심지어는 설계자의 나약함을 비난할 정도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나마 밝혀두고 싶다.

• 實施設計와 起工, 竣工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면서 기본설계 소위원회라는 것이 이 Project에서 상당히 뒤로 물러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두어야겠다.

그당시까지 사회에서는 "독립기념관 5인방"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소신것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된 기본설계에 반대 의견이 있었고 말하자면 Scale의 문제 - 동양최대라는, 천안문보다 더 높다는 - 등이 擡頭하면서 기본계획 소위원회 Member 자신들이 意慾이 상실하게 되었고, 또 설계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자로 하여금

여러가지 면에서 자유를 주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또 한가지는 기본계획 소위원회가 실시설계의 진행과정이나 시공·감리과정에서도 계속해서 Control Tower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계획 소위원회와 설계 진행과정이 멀어지게 된 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이 전체 진행에 크게 부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있다.

• 화재사건

우여곡절 끝에 1984년 설계를 마치고 1986년 8월 15일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었다. 기본계획 소위원회는 그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가지 형태로 諮問에 응하고, 또 나 개인적으로는 여러 분야의 위원을 겸하며 계속 관여를 해왔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인 1986년 8월 15일 바로 개관을 앞두고 화재사건이 터졌다.

그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復舊하고 다시 展示를 하느라고 일 년이나 閉館이 늦어지고, 또 예산상 100억 이상을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고, 사무처장이하 모든 Step 들이 사표를 내고 심지어는 장관까지 갈리는 문제까지 생겼는데 그 당시 내가 느낀 것은 이 일은 어느 면에서 볼 때 轉禍爲福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 우리나라 Standard 로서는 - 사무처나 시공을 맡은 대립산업이나 그래도 열심히도 했고, 상당히 인정받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화재사건이 일어나니까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人禮制 개선등 이를 계기로 여러가지 반성의 기회가 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였다.

• 竣工·管理運營

집이 완성된 후 나는 기본계획 소위원회 대신 기획운영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개관 후의 운영문제에 관해

“

지금도 다소 걱정되는 것은 개관 후에 이것이 순수하게 자체운영이 되고, 그 남은 이익으로 앞으로 Master Plan에 제시되었던 여러가지 남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위탁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서 우리 후대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온 사람이 또와서 감격을 되새기고 하여 만들어진 수입으로 자체운영이 되느냐가 지금도 걱정이다.

거기다 설당가상으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물규모도 커지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방대하게 계획이 바뀐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

박종국 전 사무처장과 많은 계획을 세웠다. 지금도 다소 걱정되는 것은 개관 후에 이것이 순수하게 자체운영이 되고, 그 남은 이익으로 앞으로 Master Plan에 제시되었던 여러가지 남은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위탁시설 위주의 시설이 아닌 교육시설로서 우리 후대를 교육시키는 하나의 교육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딱딱해서는 재미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장사가 잘되기 위한 시설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그리고 온 사람이 또와서 감격을 되새기고 하여 만들어진 수입으로 자체운영이 되느냐가 지금도 걱정이다. 거기다 설당가상으로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나치게 건물규모도 커지고, 관리운영 면에서도 방대하게 계획이 바뀐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기억으로 1986년 8월 15일 이전에 내가 제시한 것 중 하나가 개관식에 관한 것이었는데, 아주 딱딱한 광복절 41주년 기념식을 겸한 독립기념관 개관식은 정말 맛드러진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보고자 했다. 딱딱한 국민의례, 식사, 차사, 기념사 등 참석한 사람이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고, 지루한

기억만 남고, 3개의 중계방송이 모두 시청자에게 외면당하는 개관식이 아닌 정말 하나의 감격적인 드라마를 엮어보고자 그 Program을 만들어서 제출했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文化的인 후진성, 폐쇄성, 보수성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한 적이 있다.

• 독립기념관의 感懷

나는 거의 5년동안 이것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처음부터 개관까지 열심히 도왔다. 지금와서 돌아보니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 Master Plan을 했다는 기억밖에 없다. 다행히도 옥성산 정상에 하나의 기념물을 설계할 기회가 주어져 송신탑을 겸한 Monument 를 만든 것이 한 가지 더 남아있다. 그것이 민족의 念願을 상징하는 솟대, 장승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나로서는 큰 보람이다.

하나의 커다란 Complex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처음의 候補地 선정부터 마지막 완공까지를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은 한국 건축계의 激變하는 시기에 하나의 행운이었다는 즐거운 감회에 젖게되는 바이다.

獨立記念館의 韓國性과 記念性

김광현

서울시립대학교 조교수

Criticism/Korean Nature and Commemoration Nature of
the Independence Hall
by Kim, Kwang-Hyun



설계자 본인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과거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건축물들이야말로 당연히 〈한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官에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맹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기와 지붕의 형태를 추상화 해서 이미지만을 전달하는 것은 일반인의 감정상 현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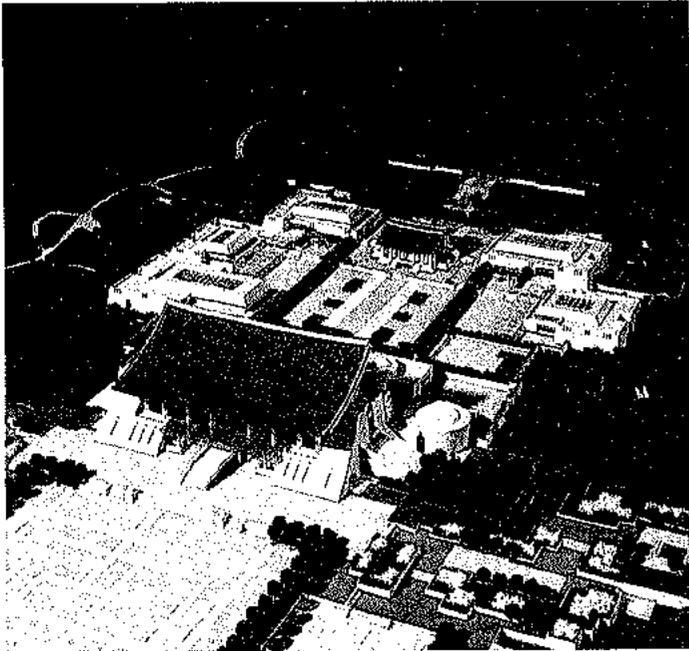


1.

장대한 규모의 독립기념관이 준공을 보게 되었다. 1983년 11월 현상설계의 당선작 후보로서 김 기웅씨의안이 결정된 이후 약 4년에 걸쳐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건물은 5년전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을 계기로 전국민의 참여와 상금으로 이루어졌고, 또 이 건물이 여느 프로젝트와는 달리 민족의 주체성을 상징한다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건축 자체만을 논하는 평론이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은 종래에 줄곧 논의되어 오던 이른바 “한국적 표현”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건물인 만큼 중요한 건물로서 계속 논의되어질 것이다. 즉 이 건물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국민적 염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리고 그 성격이 아무리 민족의 영원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들이 자율적이어야 할 건축개념이라는 점에서 이 건물이 담고 있는 한국적 표현과 그 접근방법이 6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어 온 “전통성”의 표현을 밀도 있게 다루는데 성공하였는가 하는 점과는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

2.

주지하다시피 건축의 한국적 표현이라는 과제는 중요한 테마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정된 것은 단지 쉽게 풀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 뿐이다. 이번의 독립기념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상설계의 전 불격을 한국적인 표현을 당락의 관건으로 확정지었었다. 그러나 그 요구조건은 이전의 유사한 설계요강보다 더 강화된 것이었다. 설계지침은 크게 상징조형물, 전시관, 광장 등 3가지로 제시되었으나 어느 것이나 한국적인 표현으로 응모작을 어떻게 유도시킬 것이냐 하는 점에 집중되었다. 심지어는 한국적 조형물의 주요 요소를 제시하면서, 「한국적 전통 건축이라는 것은 소수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修辭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통 언어와 관련되는 것」이라 규정하기까지 하였다. 예를 들어 상징조형물을 石塔의 교과서적인 특징과 결합시키면서, “목조형식을 석탑으로 이행시킨 樣式의 진화,…… 작고 간결히 생략된 구배가 석은 처마 곡선,…… 돌의 중력을 승화시킨 경쾌한 추녀선과 塔身과 屋畜石의 비례”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거나,



▲설계경기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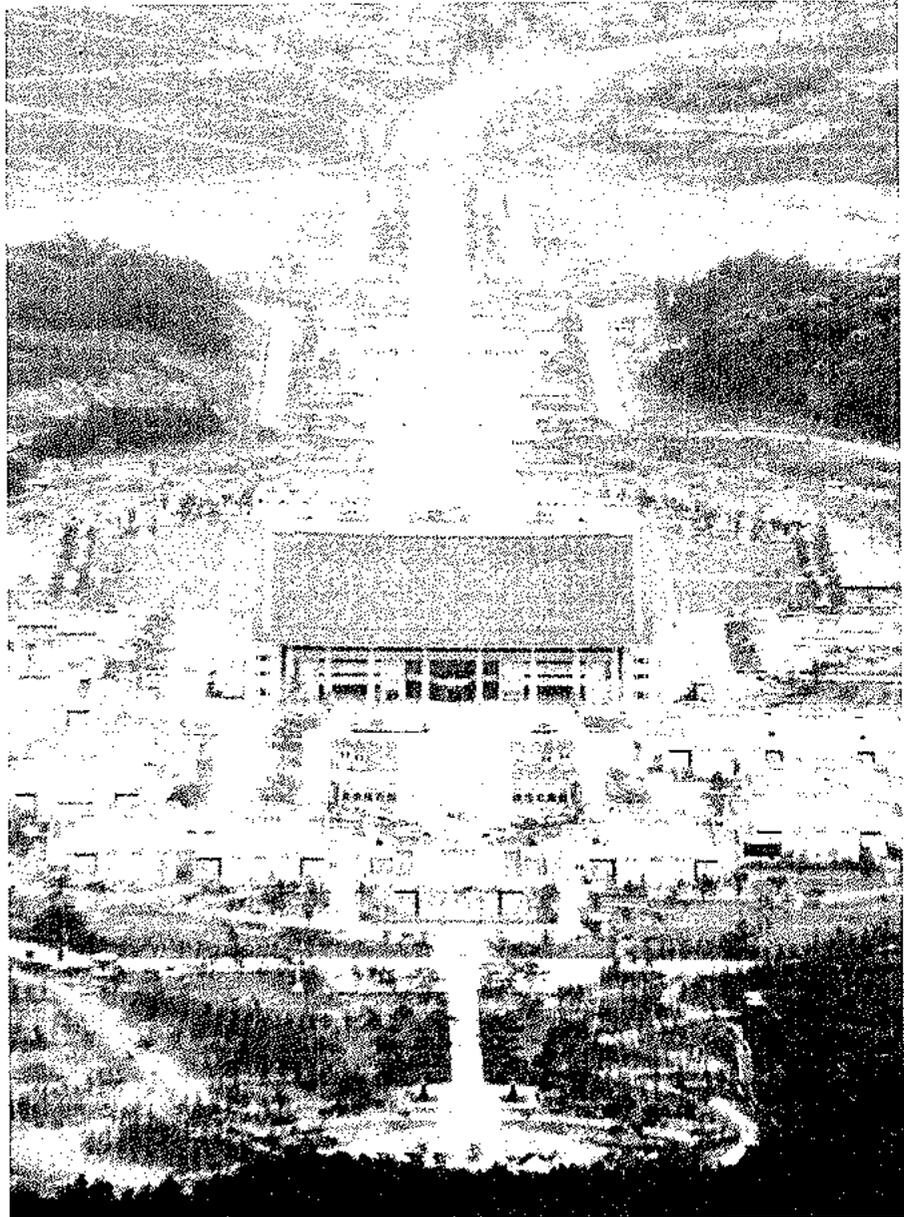


▲기념관측면

전시관에 대해서도 “경사로, 계단, 용벽, 수구 및 노단식 테라스 등의 강한 옥외공간 요소를,…… 무거운 蓋瓦에 의해 강조된 浮遊하는 자연스런 곡선의 지붕선, 구조체의 자연스런 노출과 분석된 상세……” 등을 나열하여 전통적 조형 의식에 바탕을 두고 현대기능에 적응되는 “한국적 조형”을 발견하는 것이 바람직한 독립기념관이 될 것이라는 단서까지 붙이고 있었다. 광장도 마찬가지로 “한국건축의 原形이라고 할 회랑과 탐의 통일된 이미지”를 표현할 것과 “종묘와 안압지 등의 외부공간 기법이 중요한 시사가 될 것”이라는 해답과도 같은 여운을 포함시킨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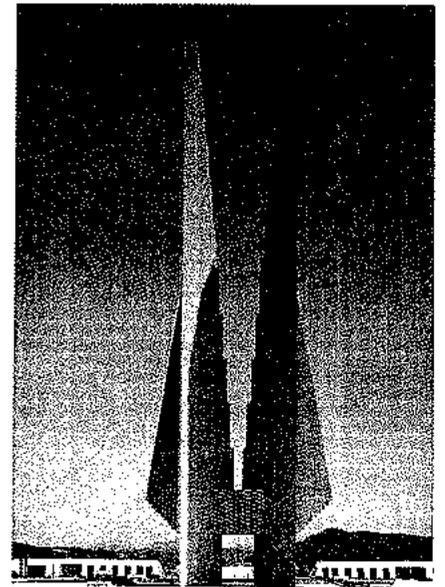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요소들을 단편적으로 도입·나열한다 해서 한국적인 표현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추천된 요소들조차도 어차피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라 공인된 것도 아닌 이상 강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모두의 성금으로 짓는 건축물이므로 건축가 개인의 과시보다 이러한 민족적 참여의 표상을 의도하여야 한다”는 창작방법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한 마디로 기와 지붕을 주조로 하면





▲기념관측면전경



▲상징조형물

총체로서의 “韓國性”을 상징한다는 생각은 뚜렷한 논의를 거쳐 公理로서 인정된 것도 아니며, “한국적”인 것을 작가의 창의성에 일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抽象化시켜 온 종래의 선입견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정은 너무나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완공된 독립기념관의 겨레의 집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건물을 그대로 이식시켜 놓은 것이지 이를 변형하거나 또 다른 한국건축의 이미지를 전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단지 변형의 의지가 보이는 곳은 기념관 좌우와 후면을 감싸고 있는 웅성과도 같은 부가물일 뿐이다. (또 그것은 측면의 虛部를 비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자유로운 장치물로 활용되고 있다.)

기념관 내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대한 구조물에 감싸여 있는

虛體로서의 공간뿐이다. 이 거대한 스케일 그 자체가 기념관의 기념성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독립광장과 거대한 기념관의 지붕, 그리고 거대한 내부의 볼륨——이 거대한 스케일은 곧 숭고함이란 미학적 감성으로 치환되고, 이 치환된 감정이 곧 민족의 긍지와 영원성을 상징한다는 일련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신고전주의의 볼레(Boullée)가 계획한 뉴우튼 기념관과 같은 대규모의 건축물들과 상응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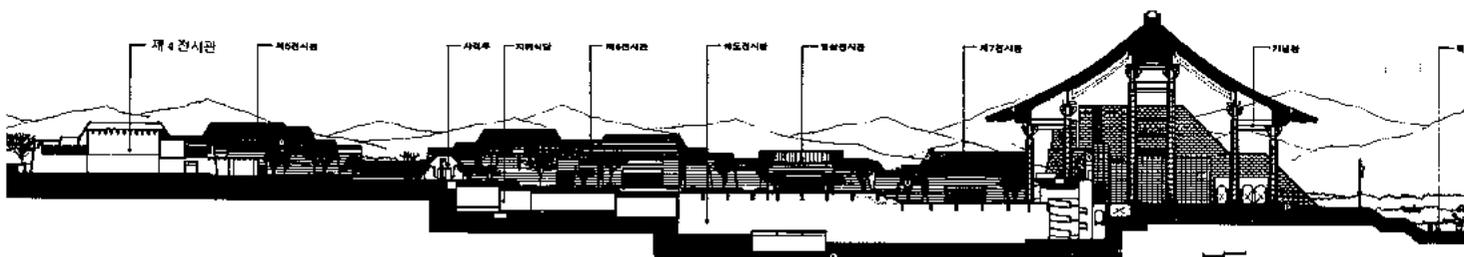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한국적인 건축표현이란 과거의 전통적 양식을 그대로 보사할 때 가능하다는 목적적인 태도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 본인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과거와 소극이라도 관련된 건축물들이야말로 당연히 〈한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경향은 筵에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맹목적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기와 지붕의 형태를 추상화해서 이미지만을 전달하는 것은 일반인의 감정상 현재는 기대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념관의 경우는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적 표현으로 규정된 제조조건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일지는 몰라도, 한국적 “이미지”와는 어딘가 거리가 먼 한국적 건물의 再現이라는 논리적 귀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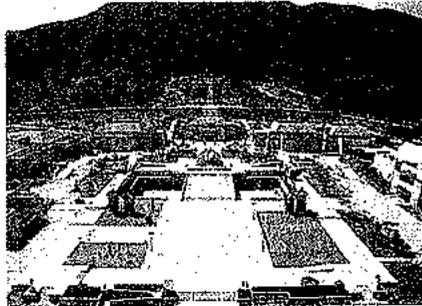
기념관 배후의 축을 따라 폐쇄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몇 개의 블록으로 나뉜 전시관 건물들의 소형성에 있어서도 그리 크게 찬동할 수가 없다. 기본형 주위에 매시브한 부가물을 더하여 전체적으로 닫혀 있는 자세는 기념관 건물과 비교해 볼 때 다소 退行的이다.

특히 각 블록 지붕의 경사진 매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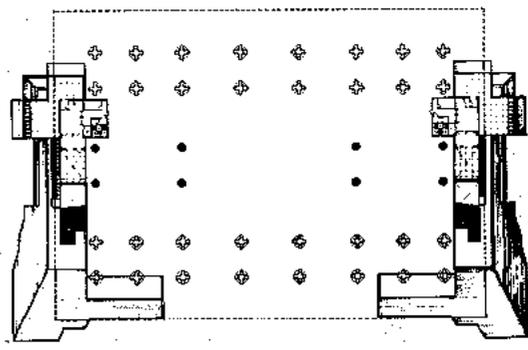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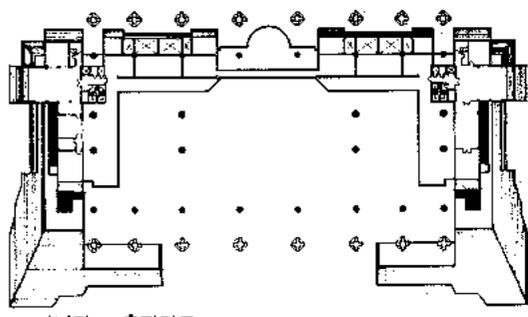


▲기조광장 및 전시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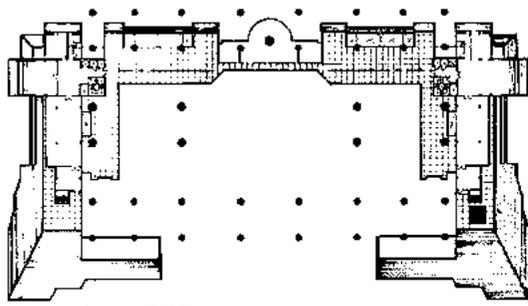
전체의 경관을 분단시키고 있거니와 전체적으로는 단위를 클러스터 형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치상으로는 연속성을 유지시킨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단허진 벽면과 그에 의한 量塊의 나열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전시관 배면에 고전적인 분양의 담상을 부가시켜 대조적인 요소의 並置를 의도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전통적인 담장은 전시관의 벽면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 채 요소를 도입했다는 정도의 부가물로 사용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응용이 아쉽다. 이렇게 단편화된 요소라는 입장은 기조광장 좌우의 벽돌조 아치와 화강석의 주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계단을 경계로 하여 크게 분단되어 있는 요소와 요소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스트적 수법을 동원한 기조광장 내의 자격루 등도 장소를 찾지 못한 불안정한 요소로 남아 있다. 요소의 도입만으로는 한국적인 것이 성립되는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요소의 도입은 비전문인에게에는 에피소드가 될 수는 있어서 그것이 건축적 요건의 최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건축의 자율성이 침해될 아무런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한국적”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함께 등장하는 말은 언제나 건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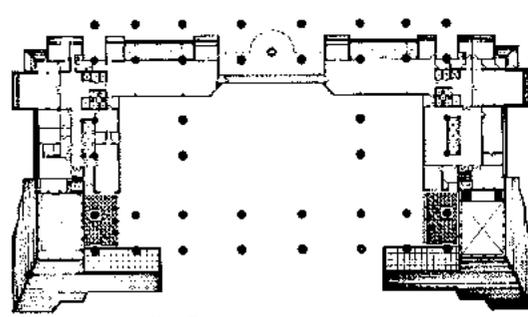
기념관 옥탑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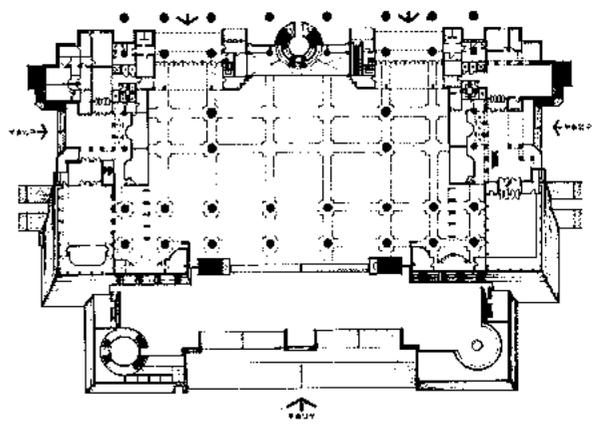
기념관 4층평면도



기념관 3층평면도



기념관 2층평면도





▲전시관전경

“기념성”으로, 이는 한국적인 건물에 붙여지는 관용어이다. 특히 이 독립기념관은 그 이름과 함께 민족의 영원성을 상징하려는 데 그 건립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 기념적 성격은 어느 한국적 건축 표현보다도 본질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건축물의 기념성이란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것”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념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美術史家알로이스 리이글(Alois Riegl)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모뉴먼트와 예술과 건축의 모뉴먼트를 별개로 말하고, 후자의 모뉴먼트를 “비의도적인 모뉴먼트(Unintentional Monument)”라 부르고 있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건축이란 단순히 어떤 사건을 기억시키기 위한 물리적인 장치물이 아니라 건축물 그 자체가 기억을 담고 있어야 하며, 그 건축적 기억은 집단에 의해 특수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적인 것이 곧 기념적이 될 수 없듯이, 과거의 건축이 곧 기념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고유의 한국성을 나타내는 요소란 한국건축의 보편적 체계 그 자체가 기념성을 떨 수도 없다. 더우기 한옥 고유의 지붕이 그대로 기념적일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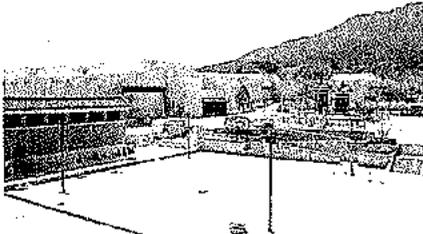
한옥의 지붕이란 특정한 사건의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요소가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이 묘에도 쓰일 수 있고 개인 주택에도 그리고 왕궁에도 쓰일 수 있는 보편적인 건축 어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건축의 지붕은 한국적이므로 과거를 찬미하거나 기억할 때는 한옥의 지붕이어야 한다는 것은 건축의 자율적 체계를 무시한 단편적 발상에 불과하며, 단지 그것이 기념적일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잃어져 가는 한옥에 대한 불투명한 동경심이 민족의 문화로 연결됨으로써 과거의 기억으로 확산될 때 뿐이다. 즉 건축의 기념성과 그 집단적 기억은 그 건축물이 담고 있는 내용물에 의해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기념성이 내용물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굳이 조형성을 한국적이라도 유도하거나 상징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기념성은 건축물 자체에서 비롯되는 특정한 기억이 필요하며, 추상적으로 이해된 전통이나 과거의 전통적 건축 요소의 이식만으로 기념성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독립기념관을 설계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도록 유도한 행정책임자들은 완공된 독립기념관에 서서 그 건물군에 기념할 내용들이 들어 있어 기념적이라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건물을 통하여 기념성을 수사적으로 느끼게 하는지를 건축가의 눈을 빌려 자문에 보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3.

독립기념관은 그 건축적 의미가 어떤 것이던지 간에 해방 이후 세워진 이른바 “한국적 건물”의 최대의 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공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건물은 60년대 이후 계속 논의되어 온 건축의 전통분체를 4 반세기가 지나도록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예이다.

역사란 기억의 누적이고 앞선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이 독립기념관의 건축적 의미는 앞으로의 발전적 경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한해서이다. 즉 무엇보다도 이같은 대규모의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시행 주체가 무엇을 추구하던지 간에 더 이상 건물의 한국적 표현을 주문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건축에 한국적 표현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건축가들은 누구나 건축의 한국화를 이문화시키고 이를



▲전시관좌측 (제 1, 2, 3 전시관)



▲전시관우측 (제 5, 6 전시관, 영사전시관)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문화인들이며, 또 건축의 한국적 표현과 그것을 주문하고 시행하는 주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 건축가들에게 자유로이 일임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자신의 철학에 입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신뢰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치 어떤 가이드 라인을 주지 않으면 한국화를 풀 수 없다고 여기는 듯이 이런 것을 넣어야 한다. 이래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상설계의 지침이기 이전에 건축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건축가들은 건축의 기념성이나 한국적 표현의 문제를 일정한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이를 一回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자신의 작품론을 한국화라는 테마 속에 설정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중들의 건축에 보다 높은 이해이다. 다른 예술이 그 나름대로 자율적 원리에 입각하는 것이므로 건축을 더 이상 에피소드의 조형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라는 외적인 목적에만 건축이 근거할 때 그 건축물은 경직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韓國의 建築’ 發刊 案内

협회에서는 건설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고금(古今)을 집대성한 “韓國의 建築”誌를 다음과 같이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발간목적

-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位相 定立
- 建築時代史의 再照明
- 國際化時代의 韓國建築 弘報
- 現代建築의 質的向上 도모

편집내용

- 각 시대별 건축작품에 대한 개요기술
- 수록내용 / 傳統建築編 약 50작품
近代建築編 약 100작품
現代建築編 약 250작품
총 400작품 (400페이지)
- 책의모양 / 5×7배판 (한·영문 / 원색인쇄)

작품접수

“韓國의 建築”은 年内發刊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掲載를 희망하는 會員여러분의 作品원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제출요령 및 자료

- 1) 설계의 주안점 (문제점) : 설계상의 특이한점 · 새로운 점 · 장점 · 기술등 (원고지 3매)
- 2) 작품의 연혁 : 수상경력 · 용도 · 면적 · 건축주 · 소재지 · 준공년월일 (작품명 및 설계자명은 영문표기 바람)
- 3) 작품의 사진 : 슬라이드 필름 (작품의 전경) : 6cm×6cm 크기 이상
- 4) 도 면 : 선정된 작품의 주요 평면도 1매 (트레싱지 42cm×59cm가량 크기에 잉킹할 것)

□ 마감 / 1987. 9. 20일

□ 보낼곳 /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의 건축” 발간위원회

(문의 : 581-5711~4 교환 39번 권희용, 출판사업부)

* 세계 회망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한)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 (4)

金 晶 東

목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by Kim, Chung-Dong

20. 세브란스紀念病院

위 치 : 도동
 착공년월일 :
 준공년월일 : 1904. 9. 3.
 설계자 :
 시공자 :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층 별 : 지하 半, 지상 2, 옥탑 1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 면 적 : 평
 보존상태 : 1965년 철거

朝鮮 政府는 Allen 의 청에 의하여
 1885년 西洋式 病院인 廣惠院을
 설립한바 있다."

그러나 1894年 병원 자체의 경영난과
 淸日戰爭, 甲午更張 등의 소용돌이들
 계기로 濟衆院의 官制가 폐지되고
 이 병원의 경영권이 미국
 北長老教會 선교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濟衆院은 1896年 학교를 설립,
 학생을 뽑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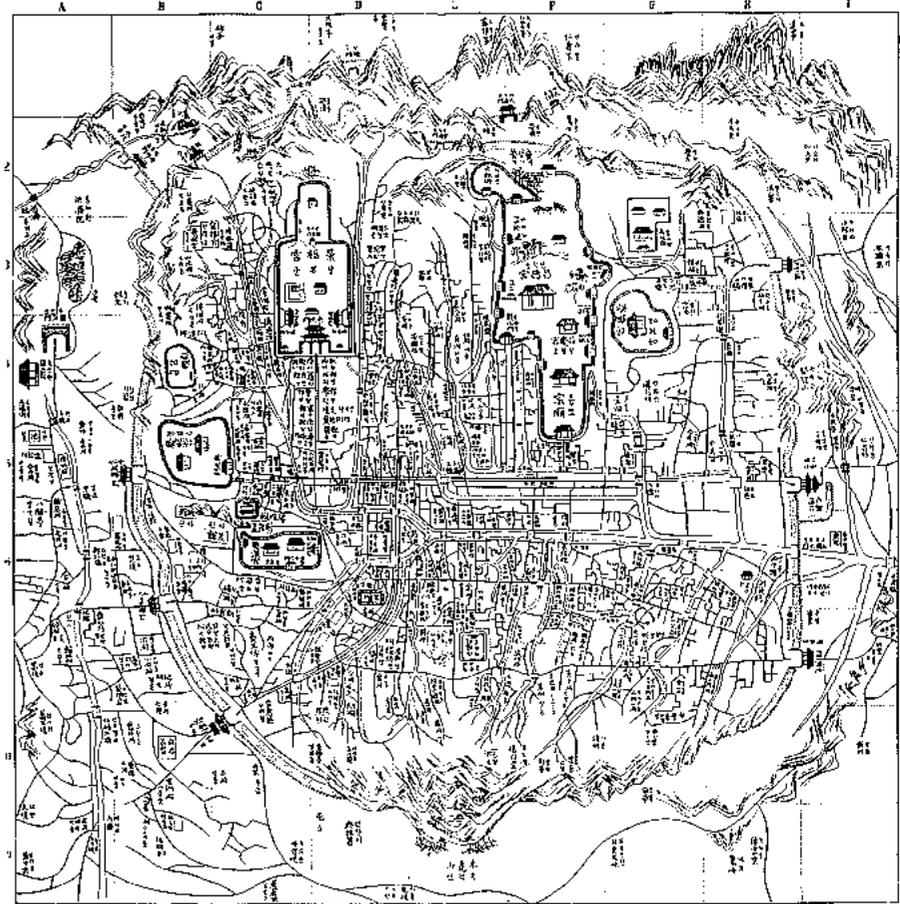
1899년에는 O.R.Avison 의
 권유에 의해 美國人 Louis
 H.Severance 가 거액의 기부금을
 냄으로써 해서 南大門 밖 桃洞 언덕에⁸⁾
 洋館 병원 1棟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병원 건물은 1904年 9月 3日
 준공되었다. 이때부터 병원은
 長老教, 監理教 연합으로
 운영되었고 건물은 건축기부금을 낸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紀念病院"이라 命名됐다.
 半地下 1層, 地上 2層의 붉은 벽돌造
 건물로서 현관은 半階段 처리,
 1層으로 진입시켰다.

현관은 건물 전체의 분위기로 볼 때
 매우 생략적이다.
 1層과 2層 사이의 slab 선은 강조되어
 石材로 완전한 띠를 둘렀다.
 窓門은 오히려 無裝飾으로
 단순화해서 長方形으로 뚫었다.
 중앙 돌출부는 상부를 과장적인
 Pediment 로 처리, 역비례시켰다.



언덕위의 세브란스
 紀念病院 (Gale) ▶



▼ 1930年代의 세브란스醫學專科學校(東亞日報)

이 건물의 핵심적인 Point 는
兩端의 角形 Turret 이다.
Turret 은 큰 窓으로 완전히
open 시켰고 그 지붕부는 8각추로
높이 들어 올렸다.

지붕은 마치 Pediment, 굴뚝,
팔각추 지붕들이 交響樂을 연주하듯
정상으로 솟고 있어 西歐風을 맘껏
뽐내는 듯했다.

건물의 樣式은 敝新高校와 유사하고
또한 同年代(1905)이므로 같은
建築家, 施工者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세브란스 醫學校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는 1916年 4月
25日부터 大學級으로 발전 되었다.
붉은 벽돌造 5層 교사는
세브란스紀念病院과 근접해서
세워졌다.

이후 세브란스병원 구내에는 여러동의
관련시설이 세워졌는데, 이 일련의
건물들의 설계자는 모두 미국인 선교사겸
건축가 W.M.Vories 로
기록되어져있다.

尹一柱와 西澤의 자료를 보면
세브란스병원(1931), 병원간호학생
기숙사(1940),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실증설(1940) 농방화상치(1941)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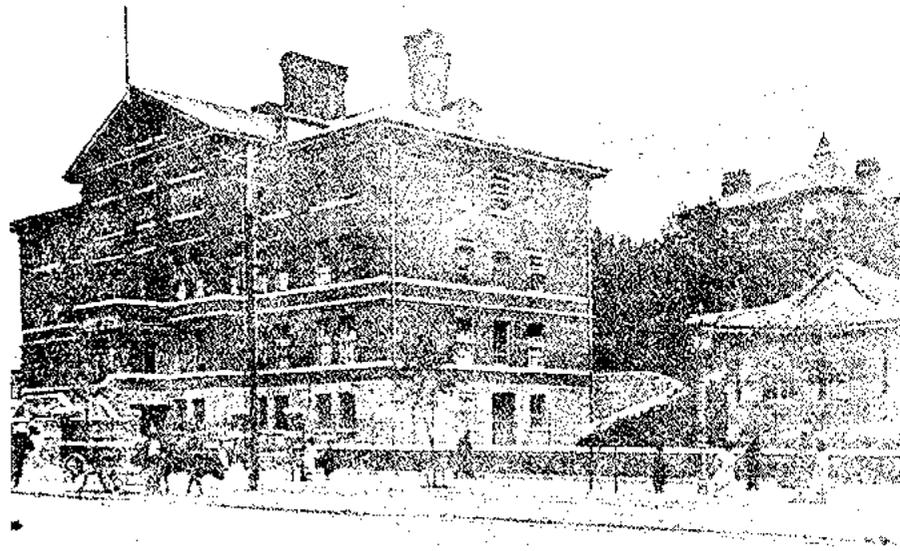
이후 이 병원의 臨床各科에는 각
선교회 교파로부터 과건된 醫師들이
우리나라 醫師들과 함께 환자 진료에
종사하였다.

당시 美國 醫學을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해 온 우리나라의
중요한 의료 중추 기관이 되었다.”

이 Campus 의 건물들은 6.25동란 때
특정적 原形들이 대부분 파손되었다.
세브란스 醫大 및 병원은 1957年
延禧大學과 합병 延世大學校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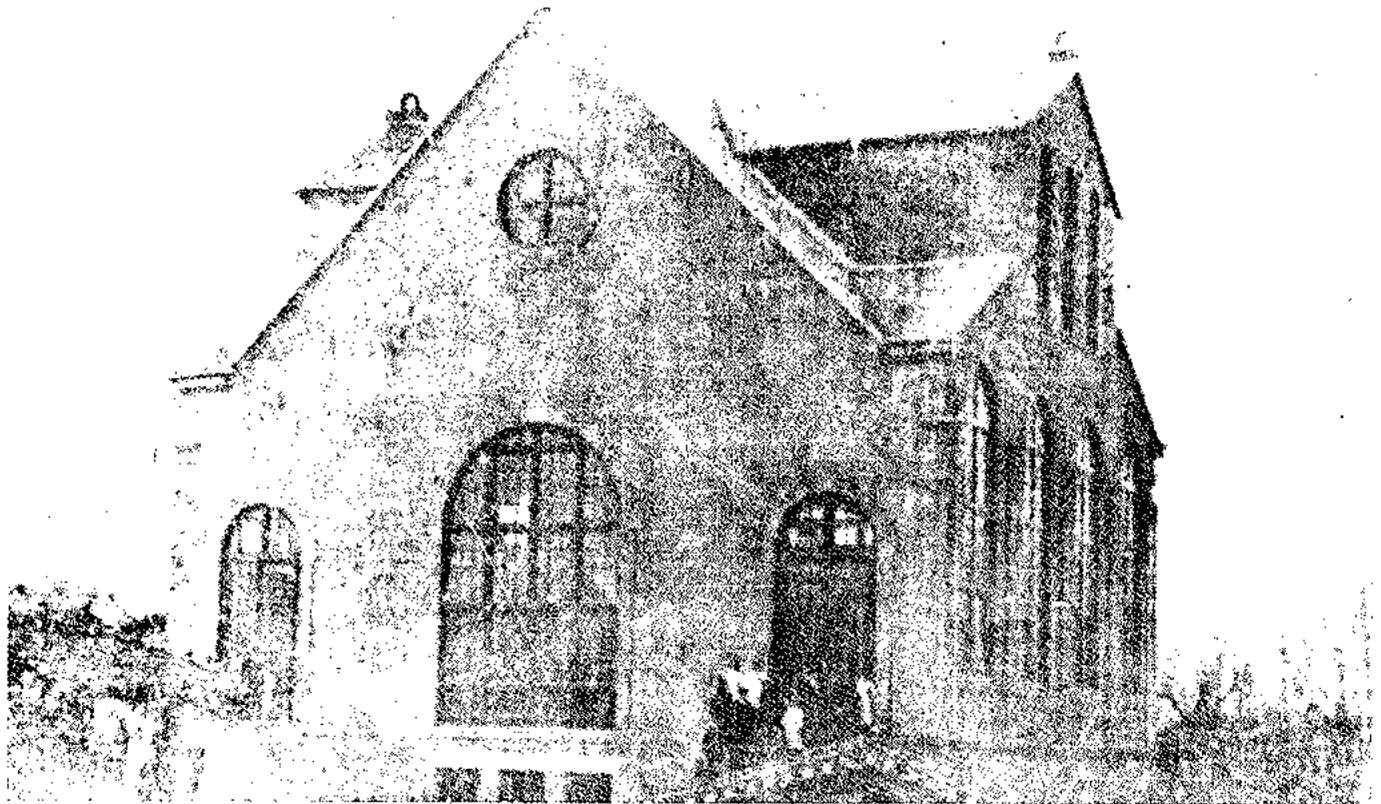
1962年 8月에는 新村 延禧洞 延大
Campus 내에 신축된 세브란스
병원으로 모두 옮겨갔다.

이후부터 舊 病院 건물은 원형을
잃게 되었고, 1965年 퇴계로
도로확장 공사에 휩쓸려 헐리게
되었다.”



▼ 1930年代의 캠퍼스, 변화가 극심했다.





▲ 1915년경의 勝洞教會 전경

21. 勝洞教會

위 치: 인사동 137번지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4
 설계자:
 시공자:
 건축규모: 구조: 벽돌조
 층별: 지하1, 지상2,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200평
 보존상태: 1957년 増改築

韓國長老教會들의 설립배경은 다음과 같다.

1894년¹⁴ Heron 이 銅峴에 弘文洞 教會를 세웠다. 그런데 이 교회 敎人들 중 獨立協會系 인사들이 宣敎師들을 毆打 逐出하려는 계획을 한 일이 있어 결국 分立케 되어 그들은 1904年 勝洞教會를 세우게 되었다. 그 나머지는 1907年 南大門教會로 발전하여 濟衆院을 그대로 이어받은 北長老敎 병원, 곧 세브란스병원의 교회를 설립했다. 勝洞教會는 이런 의미에서 反宣敎師的인 民族主義者들의 교회였음이 분명하다.¹⁵ 鍾路 仁寺洞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最古(高)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지금은 주위에 침투한 여타 건물들에 가려 그 본래의 훌륭한 모습을 찾을 길이 없다.¹⁶ 1909年 2月 20日 이 教會 地下室에서는 당시 京城의 各 專門학교 대표자 20여명이 모여 3.1運動의 지침과 계획을 논의한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勝洞教會는 독립운동사의 한 場所性을 더 갖게 된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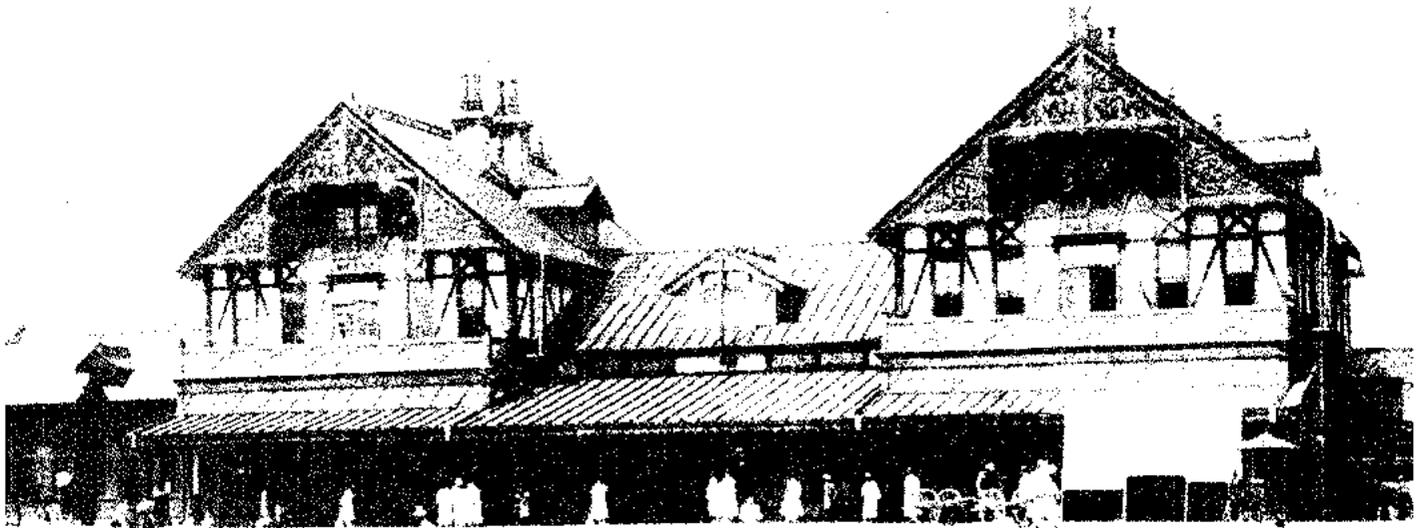
또한 이 교회에서는 YWCA 가 創立되어¹⁸ 여성들의 사회 활동, 봉사의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勝洞은 洞制 개편으로 오늘의 仁寺洞으로 바뀌었으나 교회는 설립 당시의 교회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地下 1層, 地上 2層, 약 200坪의 규모로 세워진 勝洞教會의 設計者와 施工者는 아직 未詳이다. 1915年 당시의 빛바랜 건물 사진은 잔산한 주위 배경에 비해서 높이 솟아 튼튼함과 당당함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十字形 박공 지붕은 前面을 大形 박공외로 하고 측면은 2단 박공으로 처리 上昇感을 더했다. 특히 2단 Arch 수직창은 壁分割의

대담성을 보여준다. 前面 출입구는 3圓의 大小 Arch 窓, 그리고 門으로 배열하고 박공 부분에는 원형창을 내었다. 이 원형창의 十架形 창살은 매우 隱喻的이다.¹⁹ 1910年 세워진 初期 새문안教會는 이 勝洞教會와 유사한 면모를 보여준다. 勝洞教會는 1957年 増改築 時에 3.1運動 당시 학생들이 모이던 地下室을 매립했고, 前面은 완전히 변형시켰다. 측면은 붕괴를 막기 위한 Buttless 가 불품없이 처져 있다.

22. 龍山停車場

위 치: 용산역 현위치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4
 설계자:
 시공자: 田中組
 건축규모: 구조: 木骨組
 층별: 지하, 지상2, 옥탑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면적: 887평
 보존상태: 6·25 動亂 時 파괴

1900年代에 들어서면서 龍山の



異國의 樣式의 龍山 驛舍建物(望鄉朝鮮) ▲
역구내에서 바라본 정거장(植民地史) ▶

風景은 美國의 西部 開拓史 시대를 방불케 했다.

龍山은 漢江을 끼고 돌면서(南大門 진입의 初込에 위치하면서도)미개발된 채로 남아 있었다.

1899年 京仁線이 개통되면서부터 버려졌던 龍山은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다.

龍山停車場은 日本軍用 鐵道의 基地가 되었으며 龍山으로 들어오는 日本軍을 받아 들이는 門戶가 되었다.

첫번째 龍山停車場은 1899년경에 세워졌다. 약 3.5坪(11.56㎡)의 木骨造 停車場에 불과했다.

1900年 漢江 鐵橋, 人道橋 工事와 南大門驛이 세워짐으로써

龍山停車場은 세 기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²¹

두번째 龍山停車場이 세워진 것은 1904年이었다.

京義線 즉 日本 軍用 北行 鐵道의 始發驛으로 세워진 것이다.²²

아직 統監府통치도 시작되기 전이었다.

이 때 日本의 軍閥세력은 新驛을 세우면서 日本式 建築 樣式을 고집했던 것이다.

朝鮮으로 들어오는 日本軍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이 곳이었기 때문이다.

停車場은 地上 2層의 木骨造 건물로 세워졌다.

建築 연면적은 887坪에 이르고 木造 建物로서는 당시 최대 규모였다.

建築家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Design 手法이나 木骨造를 도입한 점으로 보아 日本에 고용된

Europe 출신의 建築家의

작품이었다고 유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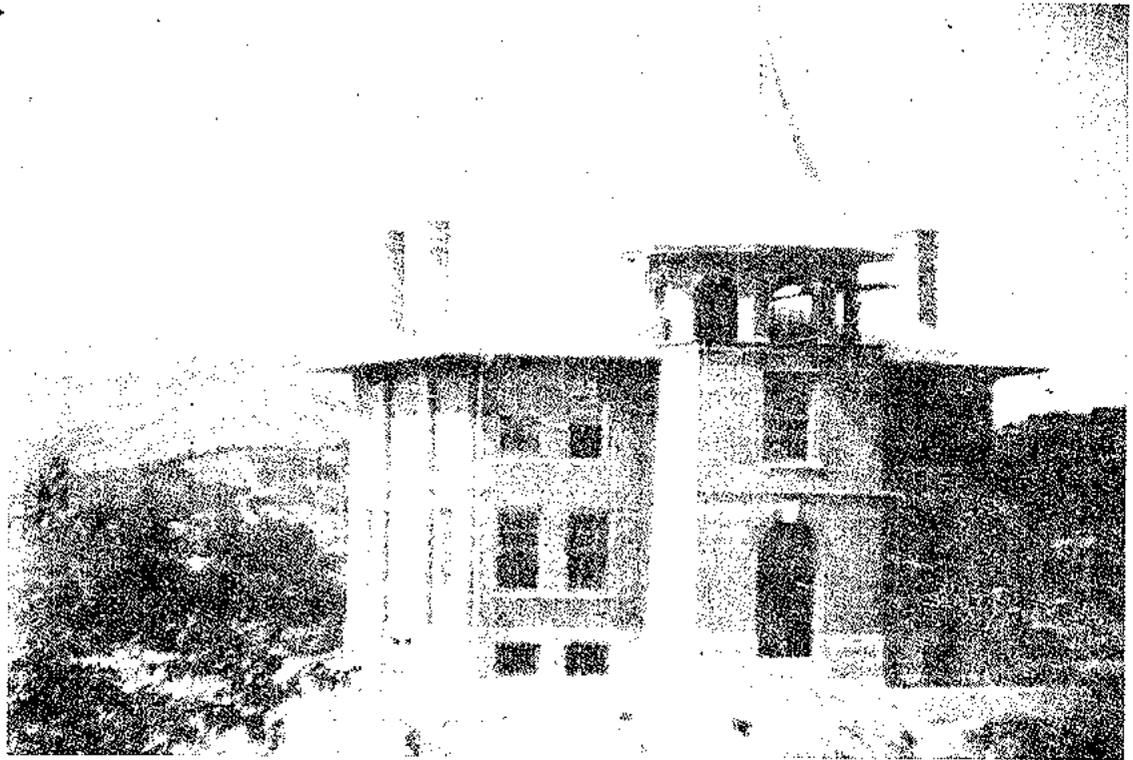
施工은 田中組(田中長兵衛)가



日本에서 수백명의 木手와 美匠工을 동원해 와서 지었다고 한다.

田中은 淸日戰爭(1894)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와 있던 大阪상인 출신의 건축기술자였다.

停車場 1層의 대합실 입구 부분은 日本 幕末의 建築 風이 두드러지나, 2層 부분(박공 부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긴 다락 부분까지는 3層) 이상은 전체적으로 神社風이다. 壁面은 모든 부분이 정확한 비례를 견지하고 있다.



木骨 Brassing이 벽면의 구조를 이루고 木造 窓이 정확한 비례로 開口되었다. 日本風은 박공부분의 면치리에도 나타났다. 文樣이 대칭으로 木版에 조각되어 있다.

다락 부분 窓은 박공면을 절도있게 제거시켰다.

Dormer 부분도 유사 日本 風이다. 용마루 線도 神社의 線으로 처리되었다.

두 개의 굴뚝은 洋風으로 세워졌다. 평면은 2個의 驛舍群과 連結棟으로 이뤄졌다. 龍山停車場은 서울驛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大韓 제일의 규모로 세워졌으므로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

龍山停車場이 들어선 후 1906年, 龍山에 19사단, 20사단이 들어오면서 군사 시설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 시설들은 현존하고 있는 것이 아직 많다.) 이로 인해 15,000名의 거주 인구가 새로 발생했다.

또한 龍山 모래벌에 3年間に 걸쳐 鐵道 官舍가 620 餘棟이나 세워졌다.

全國 機關車 勞組, 各種 鐵道事業機關도 들어왔다. 새로운 日本人 거리가 형성되었다. 이 후 漢江과 龍山과 軍, 그리고 鐵道는 同時性을 갖는 Image 로

작용되었다.

8.15 解放 後는 다시 美軍의 거리가 되어 龍山지역의 시대변천사를 보여주었다.

龍山停車場은 1904年 준공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大火災를 만나 燒失되어 버렸다.

그러나 곧 同規模 同樣으로 다시 세워졌다.⁴⁾

그 驛舍는 6.25動亂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늘의 龍山驛은 그 후에 세워진 것이다.

23. 敝新웰스기념당

위 치: 효제동 47번지

착공년월일: 1902년

준공년월일: 1905년

설 계 자: (증축 시) 金奎植

시 공 자:

建築規模: 구조: 벽돌조+석조

층별: 지하 1, 지상 2, 종탑 3층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150여평

연 면 적: 평

보존상태: 해방 전후 열림

敝新學校의 최초 교명은 「언더우드 학당」이었다. 이는 1886년, Horace Grant Underwood 牧師가 高宗 皇帝와 美國 北長老教 宣敎 本部의 裁可를 받아 설립했기

때문이다. (1886. 10. 16)

따라서 그 첫번째 교사는

Underwood 의 自宅이 되었다.

貞洞 32번지의 韓屋이었다. 書堂

규모의 이 Bogs' School 은

고아들을 위한 孤兒院과 학교로서

출발했다. 救世學堂이라고도

불렀듯이 이 학교는 일반 학과목 외에

주로 기독교 교육에 치중했으며

찬송과 기도를 가르쳤다.

1891년에는 Samuel Austin

Moffett 박사가 學堂名을

예수교學堂이라고 고쳐 불렀고

1893년에는 다시

閔老雅(E.H.Miller) 學堂이라고

했다.

校勢확장을 위해 學堂은 第2 校舍로

옮겨갔다. 연못골(蓮洞, 蓮池洞)의

禮拜堂 부속 가옥을 개축하고 우선

校舍로 사용하였다. 이 곳에는

蓮洞教會 목사인

J.S.Gail (奇一)의 私宅이 있었다.⁵⁾

1902년부터 蓮池洞 1番地 대지와

韓屋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1905년 봄이 되어서야 드디어

敝新學校라는 校名을 制定하고

新校舍를 준공했다.

建坪 50坪의 이 校舍는 붉은 벽돌조

2層 건물로 세워졌다.

J.D.Wells 를 기리기 위해 John



▲ 1913년의 韓·洋질충식 校舍(東亞日報)

◀ 국내 최초의 계단식 教室, 1917년

▶ Vories에 의해 설계된 연지동 캠퍼스, 新校舍群



D. Wells Training School 로 命名된 이 校舍는 西歐風 樣式으로 당시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운 敎舍였다.

이 건물에 대한 기록은 1906년도 韓國 宣敎 年會誌에 실린 閔老雅 校長의 기고문에 잘 나타나 있다.

「... 建坪 50餘坪(52×35 feet)의 벽돌 신축 건물은 시내 東쪽에 있는 전망이 아름다운 언덕 위에 서있다. 우리는 그 곳을 「宣敎 언덕 (missionary ridge)」이라고 부르는데 그 까닭은 중앙 도로 가까이에서 北方으로 뻗혀진 언덕 위에 서울에 있는 7명의 선교사 住宅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敝新80年 略史」는 이 校舍의 건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이 敎舍는 地下 1層이 上半을 地上에 두고 石材인 화강암으로 기초를 두르고

있다. 그 위의 地 2層은 순 벽돌을 재료로 하여 쌓아 올렸고 지붕 양 옆으로 두 개 짝의 굴뚝이 솟아 있음을 地下室에 설치된 보이라의 연기를 처리하는 굴뚝으로 각 房마다 Steam 을 配設하고 있다. 또한 현관 3層에 위치한 鐘閣은 8개의 Arch 로 형성되어 온은히 퍼지는 鐘소리를 8方으로 퍼지게 하고 있으며 鐘閣을 덮은 Gothic Style의 尖塔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⁴

내부설비는 최신했었고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들이었다.

石炭 gas 燈이 들어왔고 (1912年 電氣를 架設) 水道시설을 갖춰 水洗式 便所도 시설했고 각실에 Steam 을 보냈다.

敎室도 階段室(物理 實驗室)을 설치(1917)했는데 이것은 국내 최초의 階段講義室이 되는 것이다.

1910年 7月 10日 웰즈紀念堂은 증축되었다. 100坪을 추가하였다. 이 때에 이 건물의 증축을 위한 設計는

金奎植 博士가 직접 담당하였다.⁵ 이후 1912年 運動場 오른쪽 언덕 밑의 연못터를 매입⁶ 建坪약 210坪의 3層 韓洋折衷式 벽돌조 건물을 착공했다. 그리고 1913年 준공했다. 이 校舍는 敝新의 手工部(工科) 건물이 되었다. 장차 工業大學으로 확장시켜 나가려는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⁷

1925年에는 웰즈紀念堂 本館 오른쪽 대지에 建坪 115坪의 大講堂(새 禮拜堂)을 착공하고 이듬해인 1926年 9月 27日 「James S.Post 紀念禮拜堂」이라 命名하고 獻堂했다. (W.M.Vories 설계로 추측됨)

1939年에는 蓮池洞 校舍의 터를 팔고 貞陵里에 新校地를 확보,⁸ 600坪 규모의 新校舍를 세웠다. (1940.3~1941.3.5), 6·25동란으로 교사는 英國軍이 접수 駐屯하였고 그즈음 난로 파열을 일으켜 半燒 (1952.2.11)되고 말았다.

이에 다시 惠花洞 현위치⁹의 校舍 대지를 확보 新校舍를 세워 이전했다. 美第5空軍과 美第8軍 工兵隊(Wells 大領)에 의해 假校舍가 우선 세워져 (1954~1955.4.1) 사용되어 오다가 1957年 建築家 姜沆의 본격적인 설계로 철근 콘크리트 校舍를 신축했다(1957.11.11).

24. 벨기에 領事館

위 치 : 회현동 2가 78, 79번지
 착공년월일 : 1903
 준공년월일 : 1905
 설계자 : 小玉
 시공사 : 北陸土木會社
 건축규모 : 구조 : 병렬조
 층별 :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 층
 내시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454평
 보존상태 : 1981년 이전 복원

벨기에(白耳義, Belgium)라는 나라가 우리와 친숙해진 것은 이 領事館 건물과 6.25 參戰國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建築物은 이와같이 國家對 國家 間에 있어서 外交 이상의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韓·白修好通商條約이 締結된 것은 1901年 10月 17日이었다. 白耳義 全權委員 Leon Vincart 가 總領事가 되어 外交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는 領事館 新築 부지를 古屋이 둘러쌓인 會賢洞일대로 정하고 1903年 공사를 착수하였다. 設計는 日本人 고다마(小玉)에게 맡겼다.

工事 施工은 호꾸리꾸(北陸) 土木會社가, 工事監督은 니시지마(西島)가 맡았다. 領事館은 1905年 준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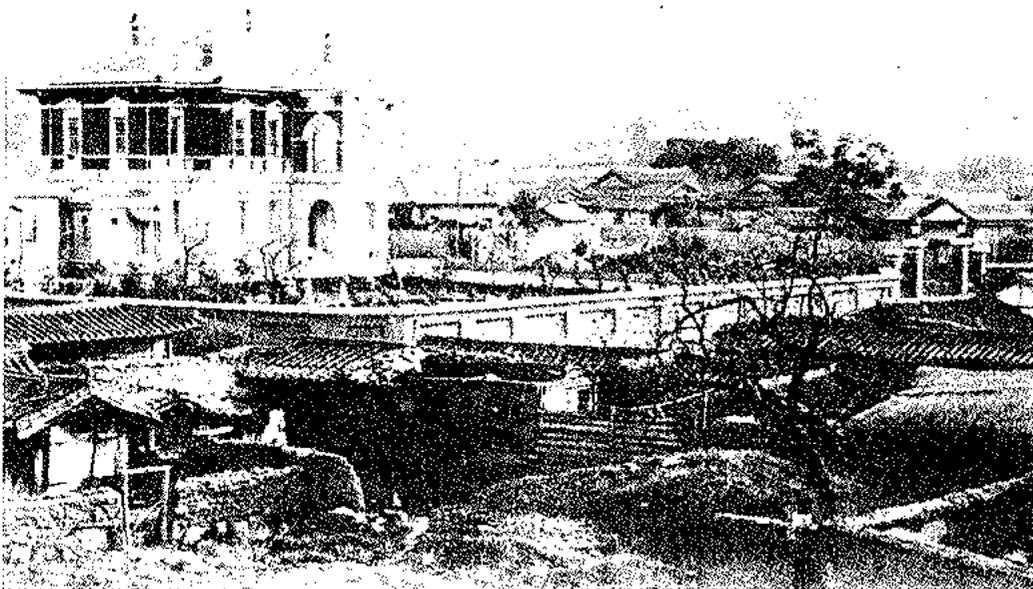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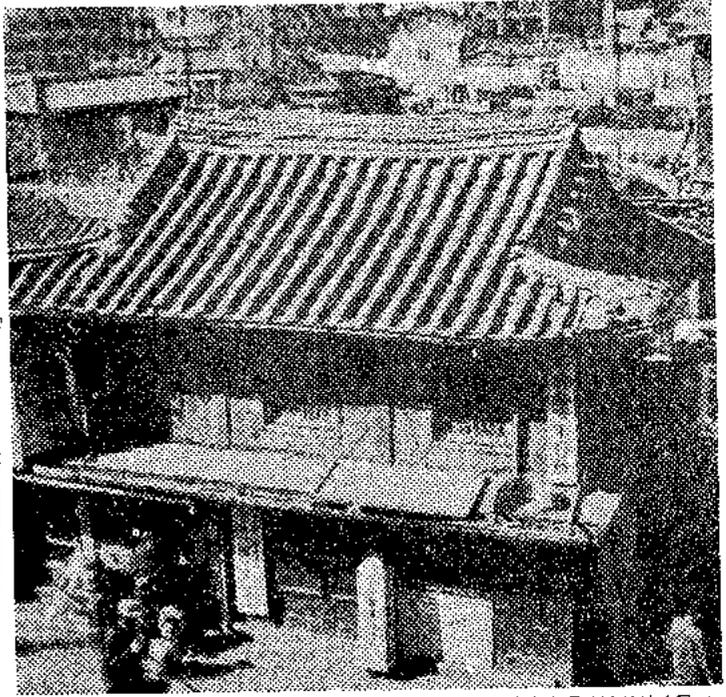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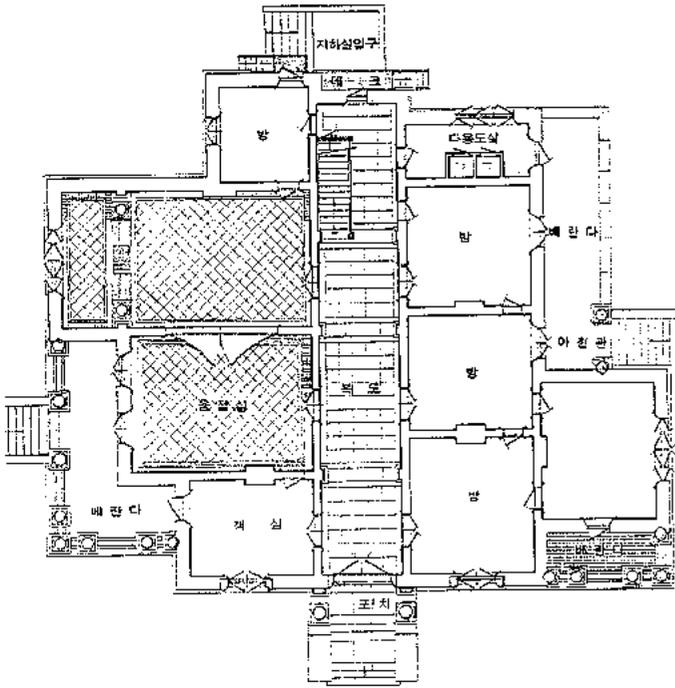
이전·복원된 후의 商銀支店(서울특별시) ▲

붉은 벽돌과 花崗石을 혼용한 地下 1層, 地上 2層 규모인 領事館의 延坪은 454坪에 이른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대담한 非對稱이며 樣式은 折衷式이었다. 前面 窓部는 Renaissance 的 벽면을, 그리고 현판과 Balcony 部는 Roman Style 을 각각 썼다. Balcony 의 石材 기둥은 불필요할 정도로 대량으로 세워졌다. 柱頭는 1層에는 圓板접침으로 2層은 Ionic order 로 했다. 1層 slab 部分은 Entablature

式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어 이 건물의 핵심이 되었다. 지붕부는 간단히 함석으로 덮고 그 처마 밑은 日本式 도리로 배치했다. 壁面은 벽돌 사이에 띠석을 끼워 넣어 벽돌의 構造的 취약성을 보강하고 石材에 의한 水平 分割을 적극적으로 했다. 아울러 안정감과 함께 건물 외관의 변화도 얻고 있다.” 領事館 내부에 있어 1層 領事 室의 기둥 밑부분에는 리본 모양의 특이한 석고 浮彫를 했다.

◀ 1905년, 준공무렵의 벨기에 영사관과 주변(獨立運動)





▲1층평면도, 복도가 중심이 되었다.

文化史的 가치가 높은 新文館의 古屋 ▲

전체적으로 細部の 장식이 우수하다. 領事館은 1981年 이전 복원됐는데⁴⁾ 移轉 工事に 관한 張起仁의 기록이 있다.

『...黎明期 건축의 移轉 復元은 국내 최초의 일이었기에 그만큼 어려움도 많이 따랐다.

文化財 補修에 종사하는 部片手 및 각 분야의 기능공들은 韓式 建築에 능한 숙련공이었으므로 西洋 建築을 겸한 기능공을 찾기가 힘들었다.

특히 內裝 部分에서 室內的 기둥과 柱頭, 領事가起居하던 房의 relief 기둥과 moulding 부분은 국내 美匠 기능공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러나 文化財 管理局 專門委員들의 고충과 자문을 얻어, 解體時 각 부분의 모형을 모사한 모형들에 의해 P.C 공법을 최초로 시도하여 原形을 그대로 再現시켰다.

石造 工事に 있어 6.25 당시 파손된 부분이 약간 있었으나 原形을 100% 살렸으며, 精密 作業이 곤란한 현대의 장비로 石造 기둥과 보 및 木材를 조립하느라 애를 먹었다. 물론 在來式 機具를 병행하여 사용했다.

Balcony의 tile은 在來의 tile을 최대한으로 살려 復元했으나 일부 보충해야 할 tile의 模造가 국내 기술로는 불가능하여 일반 tile로 보충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內部 壁난로는 原形이 없어 파손된 彫刻을 기초로 하여 原形을 再現시켰다...⁵⁾

벨기에 領事館은 1919年 日本의 橫濱(요코하마) 生命保險會社에 매각되었다.⁶⁾

이 건물은 日帝 下에서 日本 海軍省 武官部 官邸로도 쓰였다.

8.15解放 後 國有 財産으로 歸屬되어 한 때 空軍과 海軍에서 각각 사용하다가 1970年 韓國商業銀行에 拂下되었다.

그 후 商業銀行은 이 건물을 창고로 계속 사용해 왔으나 건물은 훼손되고 疲弊해 졌다.

그 후 서울市 都心 再開發 사업에 밀려 그나마 헐려 버리게 되고 말았다.⁷⁾

그러나 이 건물은 史蹟으로 指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移轉 復元될 수 있었다. (現, 商銀史蹟館, 史蹟第254号)

25. 新文館

위 치: 을지로2가 2번지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6

설 계 자:

시 공 자:

건축규모: 구조: 목조

층별: 지하 1층, 지상 2층, 옥탑 2층

대지면적: 평

건축면적: 평

연 면 적: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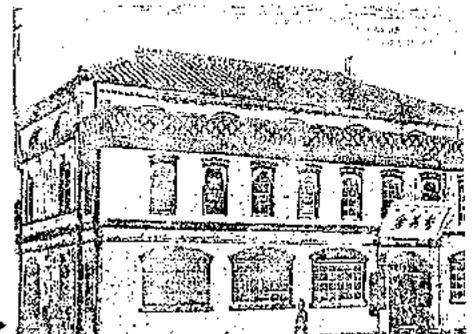
보존 상태: 1969년 현립

新文館은 六堂 崔南善이 설립 경영하던 出版社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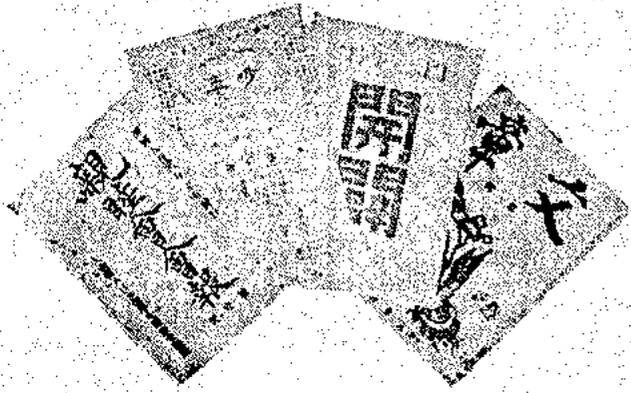
六堂의 出版社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 그 前年인 1905년에 李容翊이 日本에서 많은 圖書와 印刷 機具를 購入하여 가지고 귀국해서 普成學校와 普成社, 普成館을 설립한 것을 보고, 崔南善은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도 귀국하여 文化 運動을 일으켜 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東京 市內의 冊店마다 가둬 찬 新刊 書籍과 찬란한 잡지를 보고 크게 부러움을 느꼈다.

이리하여 서울에 돌아가서 이런 圖書와 雜誌를 한 번 내보았으면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당시 東京에서 제일 큰 印刷所인 秀英社에 가서 崔南善 자신이 印刷技術을 습득하고, 韓國으로 가져 갈 인쇄기 주조기 字母機등을 주문하였다. 그 해 겨울에 이 기계들을 배에 싣고, 日本人 인쇄 기술자 2명을 대동하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日本の 秀英社, 1876년 創業(日本百年의 記錄) ▶



初期 잡지류, 少年 창간호 ▲
 韓國工業(건축)교육의 産室, 工業傳習所 ▶



崔南善은 1906年 당시로는
 最新式인 이 印刷機등을 도입,
 우리나라 新文化 運動의 門을 열은
 것이다.

그는 이 곳에서 우리나라 초기의
 近代의인 잡지인 「少年」을
 창간하기도 했다.²⁾

그는 또한 文庫本도 발행 대중의
 文學, 敎育, 地理, 自然科學,
 一般 敎養 等の 啓蒙에 앞장 서기도
 했으며, 1919年 3.1 運動이 일어날
 때는 그 獨立宣言書의 組版을
 이곳에서 맡아 하기도 했다.

이 곳 印刷所(工場)의 위치는
 乙支路 2街 中小企業銀行 본점
 뒷골목이 된다.

1922年에는 東明社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³⁾

建物は 典型的인 朝鮮朝 末의
 韓屋 商店 建築 형태를 띠고 있다.
 2層의 합각지붕을 갖춘 木造
 古屋이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都片手등이
 우리의 것을 계승 발전시킨 樣式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1969年 헐려 지금은 그 모습을 찾을
 길 없으나 그 文化史的 가치가
 재인식되어 원형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26. 工業傳習所 本館

위 치: 동숭동 199-1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1907. 3. 20.

설 계 자: 度支部 建築所

시공규모: 구조: 목조

층별: 지하 층, 지상 2층, 옥탑 층

대지면적: 5,100평

건축면적: 220평

연면적: 502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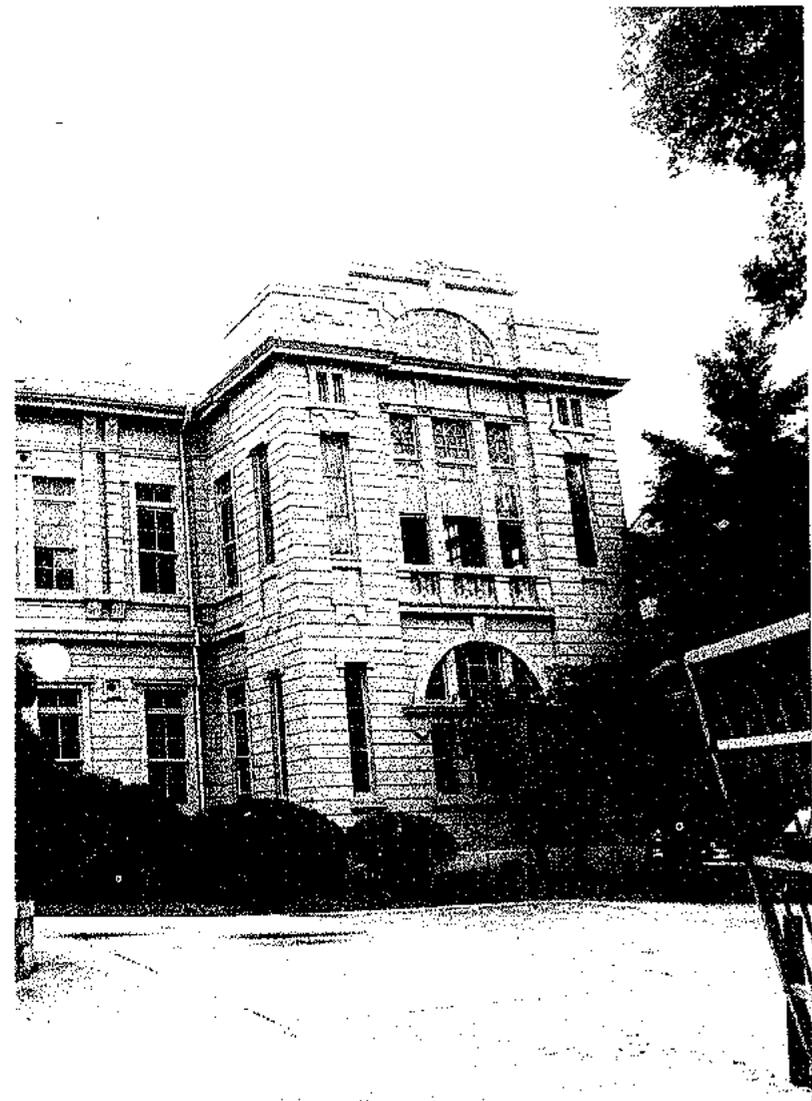
보존상태: 史蹟 第279号

이 本館은 韓國 近代 工業史의
 상징적 건물이 된다.

특히 建築(木工)土木, 應用化學,
 金工, 梁織, 陶器 등의 6개
 분야에서 그 近代의 敎育의 첫 章을
 열었던 場所性이 함께 있는 것이다.⁴⁾
 工業傳習所는 朝鮮의 뒤떨어진
 公業수준을 일정한 수준까지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日帝 統監府에
 의해 주도되어 설립된 工業 敎育
 機關이었던 것이다. 1906年 8月

農商工部에 의해 설립계획은
 이뤄졌고 1907年 工業 傳習 官制가
 發布되기에 이르렀다. (勅令第55號,
 度支部 建築所창설 1906.7)
 同年 3月 20日 梨花洞 駱山
 西쪽줄기에 新校舍를 새로 짓고
 開所했다.⁵⁾

이 곳은 典圖局 시대부터 기계시현소가
 있었던 遺址이다. 本館 외에도 주위에
 實習場 7棟 500餘坪,
 寄宿舍 附屬 官舍, 기타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비교적 방대한 新
 master plan的인 校舍등을 세웠다.
 實習用 機械 器具도 新式 設備를
 도입하여 學術과 함께 技術도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1907年 4月에 첫 入學生 74名을
 받아 工業 敎育을 시작했다.
 傳習所는 6個科를 本科와
 專攻科로 나눠 敎育하였다.⁶⁾
 本科는 2個年, 專攻科는 1個年의
 傳習 기간을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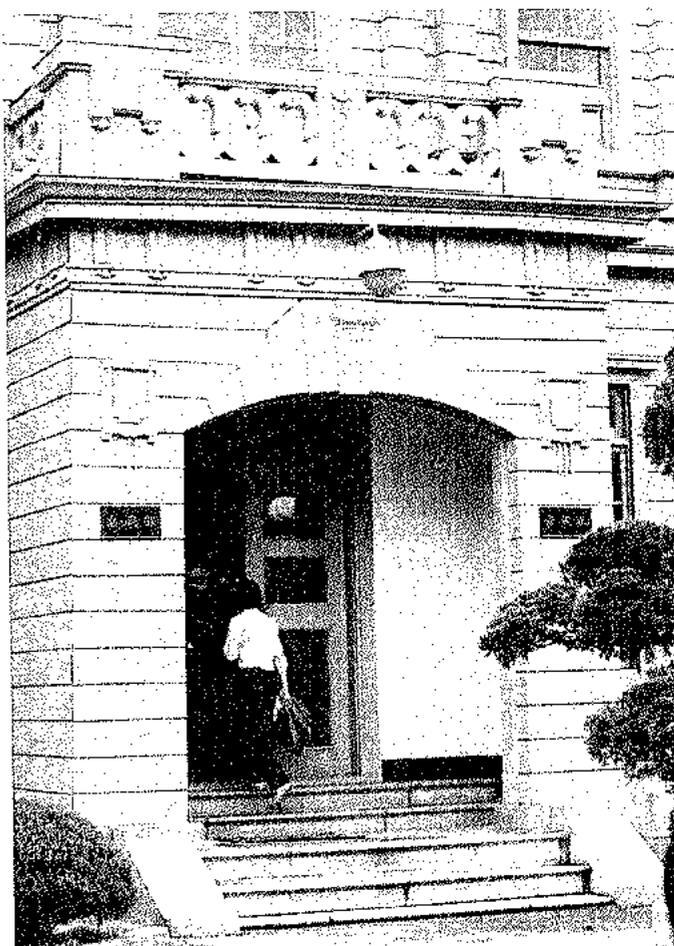


이 傳習所의 수준은 당시 內地(日本을 말함)의 普通工業學校 수준이었으며 手工業的 敎育에서 출발되었다. 그러나 朝鮮의 工業 分野에서는 최고 학부였다. 1908年 6月 現在 再學生은 135人이었다.⁴⁾ 1909년에는 第1回 졸업생 46名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우리나라의 첫 工業技術者(敎育者)들이 되었다.⁵⁾ 本館은 韓國施政年報(1906)에 220餘坪으로 기록되어 있다. 延建坪은 502坪에 이르고 있다. 同 校舍는 木造 2層으로 되어 있고, 比呂板 木骨을 덮어 壁意匠을 마감한 renaissance 樣式의 片隣이라 할 수 있다. 木造로는 유일하게 원형을 잃지 않은 채 현존하고 있어 建築 技術史的 가치도 높다.

전체적으로는 C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壁分割의 정교한 Detail, 兩側面 날개부의 木造 Arch 窓의 설치는 아름답다. 設計는 度支部 建築所에서 했다. 傳習所는 1910年 韓日合併이 되자 統監府 所管에서 朝鮮總督府 소관으로 移管되었고 1912年 4月에는 다시



▲ 屋土塔部 상세



▲ 木造로 짜여진 기둥 현관부

中央試驗所 부설로 개편되었다. 1916年 4月 京城工業專門學校가 개설되면서 傳習所의 초기적 敎育은 幕을 내리게 되었다. 同 校舍는 그 이후 中央試驗所로 기능을 계속했다. 현재, 새로 생긴 大學路邊에 古風을 유지한 채 서 있다.



▲度支部의 建築所, 1907년(近代韓國)

27. 議政府廳舍

위 치 : 서소문 38번지
 착공년월일 : 1907. 4.
 준공년월일 : 1907. 12.
 설계지 : 度支部 建築所
 건축규모 : 구조 : 벽돌조
 시공자 : 淸水組

층별 : 지하 층, 지상 2층, 옥탑 층
 대지면적 : 평
 건축면적 : 평
 연면적 : 435.2평

보존상태 : 1970년 헐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 조직은 軍國機務處, 工務衙門의 建築局일 것이다.

1894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¹⁾

이어 統監府가 설치된 것은 1906년의 일이다. 舊 韓國 政府는 度支部(탁지부)소관으로 1906년 9월 建築所를 설립하고 주로 韓國 政府에 속한 官衙廳舍, 公共機關, 官舍 등의 營繕에 관한 사무를 管掌했다.

開港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시급했던 稅關 工事に 관한 사무는 臨時稅關工事に 屬하도록 했다. 1908년 8월 勅令으로 建築所 官制를 改定하고 동시에 臨時稅關工事は 폐지, 建築所로 합병시켰다. 政府는 諸般 工事を

모두 建築所 所管으로 했다.²⁾

한편 1910년 韓日合併으로 새로 들어선 朝鮮總督府는 새로운 조직, 總務部 會計局 營繕課로 업무를 이관했다.³⁾

1907년 4월 착공하여 同年 12월 준공된 이 廳舍는 원래 議政府(內閣廳舍)로 설계됐다. 德壽宮과의 近接性으로 인해 貞洞의 大廣門 주변을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⁴⁾

高宗은 德壽宮 左側 담 너머에 세워지고 있는 이 建物を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日本 大藏省의 顧問官들은 이 建物を 매우 위엄있게 지으려 했다. [工事は 淸水組에서 맡았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때문에 石造 건물로 웅장하게 지을 수는 없었다. 벽돌조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공사는 8個月 밖에 걸리지 않았다. 內部の 室 배치에 있어서도 皇帝의 便殿과 議事室을 두도록 했다. 이 건물이 위치상 北向하는데 반하여 便殿과 議事室 內의 玉座는 南向이어야 하므로 室 배치 설계에는 무리가 있었다.⁵⁾

그러나 이 건물의 工事 期間 중 韓日新約이 締結되고⁶⁾ 韓國 政務機關이 새로 개편되자 度支部와

建築所가 함께 쓰도록 변경되었다. 延建坪 435. 坪의 벽돌조 2層의 이 廳舍는 平面이 완전한 對稱形으로 되었다.

前面 玄關部는 돌출시켜 正統性 있는 소규모 Dome 을 올려 놓아 마치 西歐의 城館(Chateau)을 연상케 했다.

벽돌은 不造모양을 내기 위하여 회칠을 하여 치장했는데 전체적으로는 Renaissance style 의 분위기를 나타냈다.

이 시기, 즉 1900年代 官衙 建物の 대표적 건물이 되었다.

준공 후 이 건물에는 舊 韓國 司法廳, 中樞院도 함께 들어왔다.

그 후 1911년 12월 1일부터는 京城高等 法院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터가 韓國의 司法部와 깊은 緣을 맺게 된 계기가 됐다.

이 건물이 낡아 수리할 정도가 되고 아울러 法務 관계 사무가 급증되자 新廳舍를 度支部 廳舍 옆에 세우게 되었다(1926~1928).⁷⁾

新 高等法院 廳舍가 준공되자 이 廳舍는 刑事地方法院이 되었고, 1970년 헐릴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멋있는 檢察廳舍가 들어서 있다.

20) 세브란스 紀念病院

- 註 1. 1886年 5月 濟衆院으로 개칭 (廣惠院 참조). Horace Newton Allen(1858~1932)은 1884年 9月 入京했다.
- 2. 1908년 6월 첫 졸업생 7명을 배출(醫師로서 개업할 수 있는 면허증을 교부했다.)
- 3. 남대문로 5가 서울역 廣場 前面 左側. 봉숭아골.
- 4. 언제, 누가 세웠는지 未詳이다. 이 자리에는 현재 11층의 빌딩이 서 있다. (세브란스 醫學校는 專門學校令에 의하여 세브란스 醫學專門學校로 승격되었다.)
- 5. 「서울600年史」, 第3卷, p.310, 第4卷, p.1092.
- 6. 한 때 韓國基督教 상조회, M.R. A.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현재 동양고속터미널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1) 勝洞 教會

- 註 1. John W. Heron은 1890年 서울에서 他界했다. 1894年 說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는 原文을 그대로 인용한다.
- 2. 「서울 600年史」, 第3卷, p.26.
- 3. 仁寺洞入口의 教會 出入口는 골목길화 되었고, 뒷편은 女性用 헬스클럽, 여관, 음식점 등으로 粗惡하고 이웃했던 中央教會는 高層빌딩으로 變身되었다(1986. 12. 20. 답사).
- 4. 蔣炳守, “勝洞 教會”, 東亞日報 1983. 3. 1.
- 5. 「YWCA 50年史」, p.324. (1922. 12. 9~1923. 7)
- 6. 현재 後面는 옛 그대로이나, 근접하여 담장이 둘러쳐져 옛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

22) 龍山 停車場

- 註 1. 朝鮮總督府 鐵道局編, 「朝鮮 鐵道史」, 第1卷, pp. 234~241, 「서울 600年史」, 第3卷, p.410 (綜合).
- 2. 「植民地史」, p.264.
- 3. 서울 驛은 韓日 合併으로 완전히 朝鮮을 손아귀에 넣고 난 후 민간 위주의 용도로 세웠기 때문이다.

- 4. 龍山 停車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京城 & 仁川」, 「望鄉 朝鮮」에 사진만 남아 있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4大名 建物로 德壽宮 石造殿, 龍山 總督官邸, 東洋 拓植 京城支店, 그리고 驛 建物을 쳤다.

23) 倣新 웰스 紀念堂

- 註 1. Underwood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많다. 여기서는 우선 「倣新 80年 略史」(p.27), 「培材史」(p.73), 「서울 600年史」, 第3卷 (p.651, p.930), 「새문안교회 70年史」(p.36) 등을 인용했다.
- 2. 현재의 鍾路區 孝悌洞 47番地. Gail은 1900~1928 蓮洞 教會에서 목회
- 3. 倣新 80年 略史, pp.68~69.
- 4. 앞 책 pp.68~69, 尚洞 教會의 8角 鍾塔과 유사하나 그 규모는 오히려 크다.
- 5. 원래의 設計者와 施工者가 未詳인데 金奎植이 이 增築 設計에 참여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아직 국내에는 專門의 建築 敎育 機關이 없어 建築家를 배출치 못할 때였다.
- 6. 蓮建洞 195-10.
- 7. 앞 책, pp.132~133.
- 8. 日帝는 倣新이 貞陵洞으로 移轉하자 遞信局에서 매입하여 共同 아파트로 사용했다. 以後는 不明.
- 9. 惠花洞山 6 林野와 城北洞 15,000坪 垵地. 현재의 校舍는 1963. 11. 23. 준공.

24) 벨기에 領事館

- 註 1. 대부분의 외교가는 貞洞에서 형성되었으나 벨기에 영사관의 임지는 특이했다.
- 2. 移轉 復元되면서 다락이 넓어져 475.06坪이 되었다.
- 3. 姜炳國, 「韓國의 名 建物: 벨기에 領事館」, 京鄉新聞
- 4.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9로 移轉復元(1981. 11~1982. 8). 施工은 新星(株), 張起仁 책임 (三成 建築設計). 移建費 6억 7천 4백90만원.
- 5. 「月刊 建築文化」(韓國), 1981. 11, p.119.
- 6. 벨기에 領事館은 忠武路 1街 18地番로 이사.
- 7. 현재, 駐車場으로 사용중

25) 新文館

- 註 1. 趙容萬, 「日帝下 韓國 新文化 運動史」, 正音社, 1979. p. 33.
- 2. 1908. 11. 1. 創刊, “海에서 少年에게”란 新體詩를 실어 더욱 유명해졌다. 그는 新文館의 出版 救國事業을 한층 확대시켜서 朝鮮 光文會를 1910년에 설립하였다 (趙容萬, 앞 책, p.87).
- 3. 현재도 그 유족에 의하여 운영 되고 있다.

26) 工業傳習所 本館

- 註 1. 이 學校(工業傳習所)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는 拙稿, “韓國近代 建築 敎育의 起點에 關한 研究”에서 다룬 바 있다. (1983. 10, 「建築」, 27卷, 114号, p.11).
- 2. 農商工部에 工業 顧問으로 招聘된 히라가 요미시(平賀義美) 工學 博士에 의해 세워짐 (대지 5, 100 餘坪을 확보).
- 3. 木工, 土木, 金工, 應用化學, 陶器, 染織의 6個科이며 專攻科는 1908年 4月 설치.
- 4. 表

科 別	第1學年	第2學年	專攻科	小 計
木 工 科				17
土 木 科				23
金 工 科				28
應 用 化 學 科				15
陶 器 科				24
染 織 科				28
小 計	80	50	5	135

- 5. 「韓國施政年報」, 1906~1908, 統監府, pp.156~157, pp.378~379 종합.

27) 議政府 庁舍

- 註 1. 拙稿, “韓國近代 建築의 生成 過程에 關한 研究” p.25, pp.38~39.
- 2. 金泰中, “日韓末 度支部 建築所의 組織과 事業에 關한 研究”, 釜山大院碩論 1982. 2.
- 3. 拙稿, 앞 책, pp.38~39.
- 4. 현, 檢察庁舍 주변일대
- 5. 尹一柱, 「80年史」, “度支部 庁舍”
- 6. 이른 바 丁未七條約 1907. 7.
- 7. 「서울 600年史」, 第4卷, p.282.

1987 베를린 국제건축박람회(完)

— 베를린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본 국제건축박람회의 배경 —

강병근

건축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Berlin 1987
by Kang, Byung-Keun

“주거지로서의 도심”을 다시 생명력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 노력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같은 경비와 동일한 건축적 조건하에서 또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이미 건설된 건축 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례들을 만들기 위해 열리는 이번 국제 박람회의 통합된 프로그램은 시내 여러지역의 각기 다른 문제점들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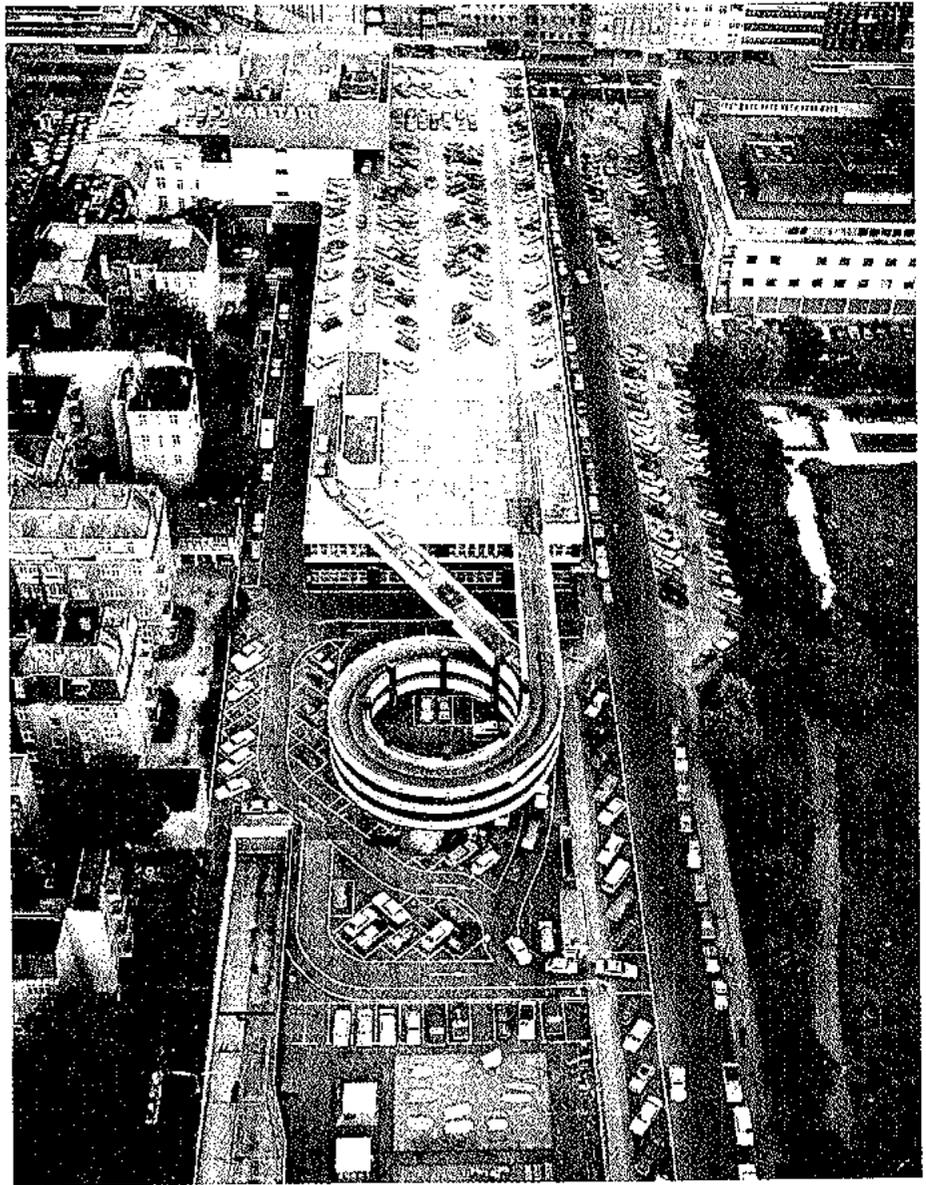
1987년 베를린시 창립기념행사와 함께 열리는 국제 건축박람회 (Internationale Bauausstellung; IBA) 의 윤곽이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한자지역 (Hansaviertel) 에 건축박람회 (Interbau) 가 있는지 꼭 30년후인 오늘날, 또다시 국제 건축 박람회를 베를린에서 열자는 제안은 7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다. 항시 그러한 의도는 곧바로 활기있게 논의되었고 장소는 티어가르텐 (Tiergarten) 공원과 란트웨어 (Landwehr) 운하 사이 지역이 유력시 되었었다. 그러나 “건축박람회”가 이 옛 외교관가 지역 부지로만 국한되었다면 이는 도시 공간적으로 보아 지나치게 격리되어 있고 주제에 걸맞지 않은, 지나치게 제한된 실험이라 평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티어가르텐 (Tiergarten) 공원 한쪽편으로 격리, 제한되었던 전시계획안은 건축 대상 장소를 도심지역 전체로 확대한다는 “국제

건축 박람회”안으로 내치되었으며, 1978년 시의회 제안에 의해 이뤄진 이 변경안은 “주거지로서의 도심 (Die Innenstadt als Wohnort)”이라는 제목하에 채택되었다. 많은 유럽 도시들은—특히 베를린—2차대전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더 큰 수난은 2차대전 직후 많은 도시들이 과장된 도로계획들과 경솔한 철거정책, 그리고 무분별한 신축건물 등을 통한 상상기 어려울 정도의 파괴를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오랫동안 비판되었던 사실이지만). “주거지로서의 도심”을 다시 생명력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획 노력뿐만아니라 무엇보다도 같은 경비와 동일한 건축적 조건하에서 또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이미 건설된 건축 예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례들을 만들기 위해 열리는 이번 국제 박람회의 통합된 프로그램은 시내 여러지역의 각기 다른 문제점들을 위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대상지역이 여러곳이므로 이에 상응하여 주제 및 과제도 매우 다양한데, 이를 요약하면 “주거지로서의 도심”을 보존하고 새로이 조성하기 위한 두가지 계획적인 노력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오랫동안 방치와 철거의 위협을 받았던 도시 재개발지역(특히 루이센슈타트 : Luisenstadt)의 보존과 신중한 개선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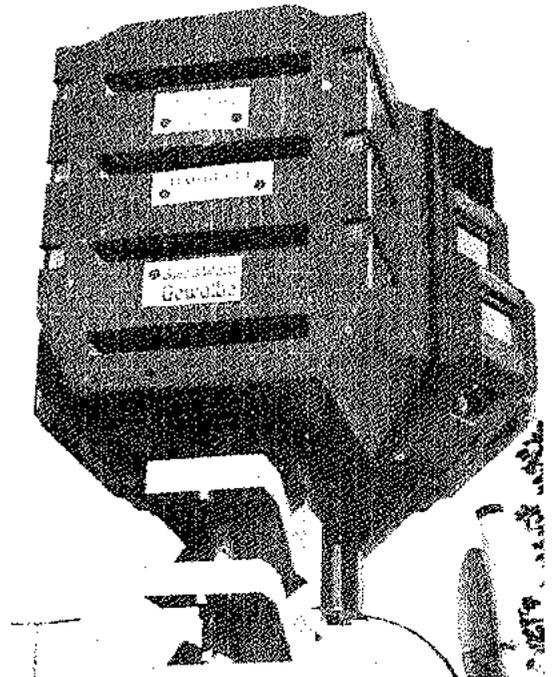
“보수”공사라 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2차대전의 파괴와, 곧 뒤를 이은 철거, 기술 지상주의적인 교통계획과 무분별한 신축 건물들로 인해 파괴된 IBA의 신건축지역에 대한 “복원”사업이다.

1978년에 제출된 시의회안에 의하면 1979년 가을 특별위원회, 즉 베를린 건축박람회 GmbH가 발족하였는데 시의회는 이 회사에게 본 종합계획의 도시계획적, 건축적구상을 개발하고, 계획안들을 현실화 시킬 것을 위임하였다. 사업의 개시와 함께 클라이후에스(Josefpaul Kleihues) 교수가 신축지구에 대한 총책임을 맡았고 개량지구의 책임은 햄머(Hardt Walther Hämer) 교수가 담당케 되었다. 그동안 이 중요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설계가 끝나 건물이 완공되었고 일부는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몇몇 나머지 계획들은 빠른 시일내에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IBA가 도시의 개량지역과 신축지역에서 완공시킨 모든 건축물들과 함께 이 종합계획에 대한 베를린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는 높아졌고 또한 그 가치는 더욱 인정을 받게 되었다.

국제건축박람회(IBA)에 대한 토론 또한 그동안 여러곳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많은 다른 도시들이 이 건축박람회의 착상과 결과를 자신들의 도시를 위한 “주거지로서의 도심”을 유지하고 개선하기에 적합한 주거형태를 찾아내는 기회로 삼게



옥상주차장(위)이나 각종 레스토랑이 들어있는 빨간 캡슐형(아래)은 서베를린 명물의 하나이며 시민들에게 고층 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게 해 주는 고층건물의 하나이다. 1970년에 개점하여 150개의 점포와 사무실을 가진 이 의욕적인 복합건물 안에서 시민들은 쇼핑도 하고 일도 한다. 시테클리츠 교외에 자리잡은 이 건물은 지난날 산업의 중심지였던 지역에서 벗어나 바깥으로 더우기 서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베를린 분할 전의 경향을 변함없이 답습하고 있다.



“

베를린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 및 날로 증가하는 유지, 보존, 재개발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였고 많은 희생을 동반한 이번 국제박람회도 이러한 노력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증거이다. …… 도시지역개발의 중점은 사회적이며 가족을 고려한 주택 및 그에 필요한 부속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충분한 녹지대와 휴식을 위한 공지조성도 뒤따라야 한다.

”

되었다.

IBA 의 도시 개량지역과 신축지역에 관한 다음의 두 보고서는 도시의 “보수”와 “비판적인 복원”이 오늘날의 건축과 도시계획 과제들에 미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하여줄 것이다.

■ 도시의 신축

이제 거의 200년에 가까운 “계획하지 않았던”출산이래, 현대의 대도시 베를린은 희망과 비평의 대상인 동시에 유토피아와 현실과의 대결의 양극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 대도시에서 그간 행했던 수많은 건축적 실험들은 한 실험이 또다른 실험을 유발시킨 결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도시 베를린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 및 날로 증가하는 유지, 보존, 재개발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하였고 많은 희생을 동반한 이번 국제박람회도 이러한 노력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박람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전시회 (IBA) 에서 말하는 도시 신축지역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여러곳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비경제적인 “현대도시건축물”대신에 새로운 모델 즉, 계획중이거나 이미 건설된 모범적인 실례들을 시범적으로 대치함으로써 다른 방법으로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실례들은 틀에 박힌 건축물들과 무표정하게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항변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역사적 자유(해방)의 재발견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지난 60, 70년대 도시계획의 비극적인 발전은 한쪽에서는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고립된 연구와 실제, 그리고 고층건물의 고유한 계획에 대해서 지나치게 격리된(고립된)건축가의 집착력을 행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하여 도시의 구성요소 즉, 도로와 광장, 도로 모퉁이 건물과 건물블록 등의 평면비례 그리고 도시경관등의 조화가 계획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되었다. 건축가들의 독창성과 그들의 극단적인 개성은 도시와 마을뿐만 아니라 조경을 파괴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점에 대한 반작용으로 도시의 복원문제가 점차 기본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역사적인 유산과 발자취에 대한 고려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옛 형태에 대한 완전한 원상복구는 역사의 기억에 대한 맹목적인 단념과 같은 행위이다. 건축에 대한 재발견이나 비판적인 도시의 복원이 거론될 때마다 우리는 유럽역사의 흐름속에서 그들의 건축적, 도시계획적 문화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판례들이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개개의 도시들은 그 도시 자체의 역사와 그에 상응하는 특수한 건축적, 도시계획적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에 대처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통례들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유럽의 도시들은 건축과 도시계획에 미친 역사적 통제(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럽도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발전이 도시외곽 즉, “역사적 경계”인 “옛도시”변두리지역에서 일어났으나 베를린에서는 바로 그 “역사적인 경계”내인 옛도시 중심부에서 진개되었다. (프리드리히슈타트 :Friedrichstadt 의 남쪽지역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의 역사적인 복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필수 불가결하다는 맥락에서 복원 대상지역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서베를린의 중심부와 밀접된 크로이츠베르크 (Kreuzberg) 지역에 초창기 시대에 지은 집단주거지역 사이에 위치한 남부 프리드리히슈타트 (Friedrichstadt) 는 오랫동안 도시계획상 미개척의 땅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그후 한때는 독일제국 수도의 중심부에 속했던 이 지역은 전쟁으로인한 파괴이후 무분별한 철거와 방향설정없는, 장벽 (Mauer — 동 · 서 베를린의 국명)을 의식한 새로운 계획안등이 있었지만 아직도 황폐한 상태로 남아 있다. 60년대와 70년대의 도시건설계획에서도 이 지역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단지 옛도시 기초의 잔재이며 오늘날 베를린박물관으로



▲북 리터街(Ritterstraße-Nord), 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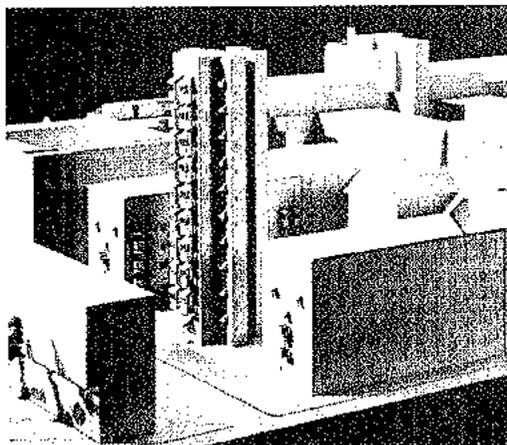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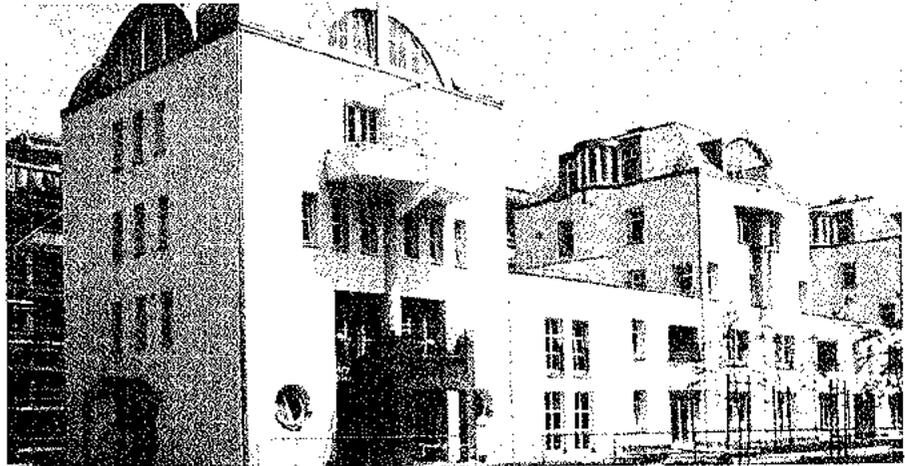
쓰여지는 대학건물과 전시관으로 사용되는 마르틴 그로피우스(Martin Gropius)의 공예박물관(Kunstgewerbemuseum) 및 옛 안할터역(Anhalter Bahnhof : 옛 수도 베를린의 중앙역)의 폐허된 주출입구만이 이 지역의 의미를 상기시켜준다.

IBA의 테두리 안에서 국제적인 참여로 얻어진 이 시범지역에 대한 구상은 높은 질의 생활과 좋은 질의 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주와 노동, 문화와 휴양의 도시주거지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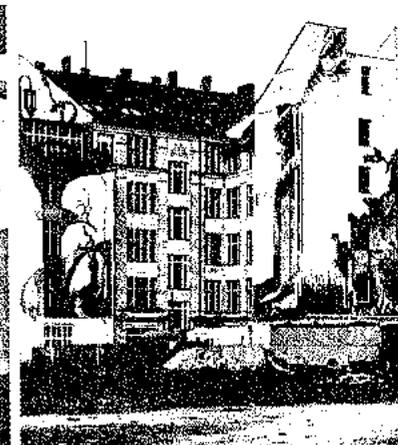
도시지역개발의 중점은 사회적이며 가족을 고려한 주택 및 그에 필요한 부속시설들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충분한 녹지대와 휴식을 위한 공조성도 뒤따라야 한다. 이 지역을 위한 주요한 계획목표는 다음과 같다.

- 지역의 재건시 역사적인 발자취가 수용되어야 하고, 옛부터 전래된 도시평면계획은 고려되어야 하며 현존하는 건물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 공공광장과 도로공간들은 다른 건축을 통해 재건한다.
- 건물의 높이는 옛 베를린의 법정 한계 높이인, 최고 6층으로 한다.
- 주거, 노동, 휴식, 사회·문화적인 시설물은 옛 베를린의 전통에 맞추어 공간적으로 같은 지역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이 지역과 관계있는 수공업, 상업, 관공서들은 주요한 도로변의 건물

▼빅토리아(Victoria), 내경



▲샬로텐 街(Charlottenstr), 아틀리에 탑(Atelier-turm) 모형



▲바이스베크 하우스(Weissbecker-Haus)

“

마르크그라펜(Markgrafen)가와 린덴(Linden)가 사이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옆의 주거단지” 역시 이번 박람회 기간중에 착공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IBA 계획중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위해 처음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개 공모되었기 때문이다.

”

1층에 배치되도록 한다.

— 주거의 부속시설인 탁아소, 유치원, 학교등은 소단위 규모로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

— 본 지역은 생태학적이며 도시기후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근린공원, 도시광장, 반개인소유의 단지내 마당 그리고 주택의 정원 등을 구별하여 녹지화하여야 한다. (이때 각 단위공간은 각각 특색있게 녹화 되어야 한다.)

별써 1983년에 완공되어 입주가 끝난 북쪽 리터街(Ritterstraße)에 위치한 주택단지는 8개의 건축사무소가 기능적인 도시구조를 살린다는

조건아래 지어진 건물이다. 이 안은 1983~84년 뒤늦게 시행된, 연방공화국의 현상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이 작품으로 인해 국제건축박람회 주관회사인

“건축박람회 GmbH”도 건축가들과 모범적인 협력체제를 이루었다하여 특별상을 받기도 하였다.

국제도시계획 아이디어 공모전

“프리드리히슈타트(Friedrichstadt)의 주거”를 토대로 하여 베를린박물관의 북쪽에 주거공원 “Victoria”가 세워졌는데 이

주거공원(Wohnpark)은

빌헬름시대의 건물잔재들과 옛

빅토리아 보험회사, 바로크양식의

베를린 박물관과 유리조합 건물사이의

공간을 매꾸어 주고 있다. 독립해서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들로부터 단지모서리의 건물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건물형태는 이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화있는 작품들이다. 다양한 주거형태를 통하여 서로 다른 세대들의 교류와 장애자와 노인들의 통합을 꾀하여 이 주거공원도 앞서 밝힌 연방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베를린 박물관 바로뒤의 넓은 대지 위에도 “베를린박물관 정원”이 만들어졌는데, 9,000m² 크기의 이 공공녹지대는 현대 취향을 감안한 바로크풍의 공원이다. 수로와 분수, 정자, 넓은 잔디밭, “예술적인 영상”으로 만들어진 계단형의 포플러 나무대열은 이 공원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르크그라펜(Markgrafen)가와 린덴(Linden)가 사이에 위치한 “예루살렘 교회옆의 주거단지” 역시 이번 박람회 기간중에 착공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IBA 계획중 특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위해 처음으로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개 공모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선된 건축주나 시공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건물을 설계하였거나 계획한 이들의 안은 실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공모에 당선된 입주자들은 계획설계와 실내공사 등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가족중심의 관리 및 공용부분계획과 시공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특별한 건축중의 또다른 하나는 남부 프리드리히슈타트(Friedrichstadt)에

독립해 서있는

토마스-바이스베크-하우스

(Thomas-Weissbecker-Haus)를 들

수 있다. 이 집은 1975년이래

청소년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그 사이에 IBA의 원조를 받아

자립기구로 되었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이들 스스로의 손을 통한

개조공사에 힘입어 현대화되었다.

옛 도시중심부와 서베를린의 중심가

사이에 있는 티어가르텐(Tiergarten)

남쪽지역에는 19세기까지만해도

공원의 가장자리에 고전주의 양식의

별장과 여름휴양소들이 있었다.

19세기말정부터 이곳은 점차 많은

별장들이 들어서, 관공서들과

호텔구역이 되었다가 1930년대에는

외교관가로 탈바꿈하였다.

이 지역의 주요한 IBA의

건축실례로는 뢰츠브(Lützow)광장,

구 외교관가, 란트웨어(Landwehr)

운하 등을 들 수

있다.

IBA의 구상아래 행하여진 많은

계획들이 이 지역을 재건하고 이곳을

역사속의 도심지역으로 다시 부상시켜

주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때는

19세기말 양식의 건물들이 광장둘레에

서 있었고 넓은 잔디밭을 갖고있던

뢰츠브광장은 전쟁의 폐허와 그후의

새로운 계획, 증가하는 교통량 등으로

본래의 도심이 갖는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나 이번이 그 옛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광장의 서쪽편에는

별써 벽을 쌓아 길을 차단하고 그



▲에너지 절약형 주거, 린츠브우퍼(Lützowu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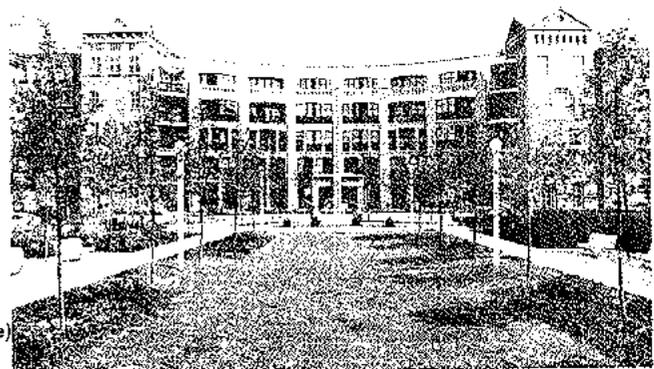
뒤쪽에는 84가구를 수용하는
집단주거를 세웠다. 그리고
릿초브(Lützow) 가에는 이른바
도시형 주택이 세워졌는데, 이
건축물의 특징은 대지의 경계가
각세대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있고 각
호는 각개의 대문을 소유하고 있으며
완전 개인주택의 개성을 최대한 살린
주택이라 볼 수 있다.

릿초브가와
릿초브우퍼(Lützowufer) 가
사이명에는 독일 연방건설부의
장려아래 5개동의 에너지 절약형
집합주거가 지어졌는데 6층짜리
임대주택인 이 건물들에는 각각 에너지
절약형 평면형과 입면형이
적용되었으며 각종의
난방공급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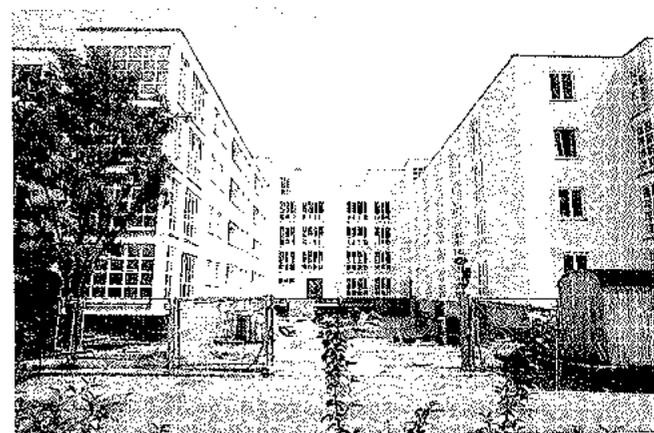
구 외교관가(Diplomatenviertel) 에
는 보전되거나 수리되어야할 몇몇의
커다란 구대사관 건물들이 아직도
서있다. 그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인 라우흐(Rauch) 가에는
“도시별장(Stadt villen)”이라
이름붙인 239세대용의 집단주거가
세워졌다. 7명의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건축가들이 참여한 이 시설에는
개방적인 공동계획을 적용하였으며
지난날의 특성을 살려 별장건물의
기본구조를 계획의 기초로 삼았다. 그
건물주위의 큰 녹지는 바로 옆에
위치한 동물원의 확장시 공원화시킬
계획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휴식시설로
사용된다. 이외에도 각 테마별로그



▶ 라우흐슈트라세
(Rauchstraße) 의
도시빌라(Stadt villen), 전경



▶ 라우흐슈트라세 (Rauchstraße)
의 도시빌라(Stadt villen)



▶ 문화센터(Kulturforum)
근처의 주거, 히찌히 거
(Hitzgalle), 1985

“

박람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크로이츠베르크의 한부분인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는 전쟁과 전후에 만들어진 장벽으로 인해 피해보다 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개선공사의 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손상을 입었다. 여러해 동안 이곳의 주택들은 비어 있었고 비싼 신축 건물과 시의 고가도로를 짓기위한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일단

”

개성을 살린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있으나 제약된 지면관계로 다음 기회에 소개키로 한다.

■ 도시개량

베를린 국제건축 박람회 GmbH 는 동부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지역에서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는데 그것은 1979년 7월 베를린시의회가 이 회사에게 이곳의 파괴된 도시를 구제할 임무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박람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크로이츠베르크의 한부분인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는 전쟁과, 전후에 만들어진 장벽으로 인한 피해보다 60년대와 70년대에 있었던 개선공사의 영향으로 인해 더 많은 손상을 입었다. 여러해 동안 이곳의 주택들은 비어 있었고 비싼 신축건물과 시의 고가도로를 짓기위한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일단 철거되었으나 상승하는 건축비와 점점 줄어만가는 철거와 신축건물을 위한 공공보조금, 특히 자신들의 주거지역을 파괴하는데 대한 주민들의 거센 저항은 70년대의 개량방법을 거의 실패에 이르게 하였다. 그래서 IBA 에서는 더 나은 안을 공포하였으나 IBA 에 제출된 계획의 50%이상이 여전히 철거, 신축 또는 가치없는 현대화계획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실현될 경우 1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3년이내에 이지역을 떠나야 하며 100개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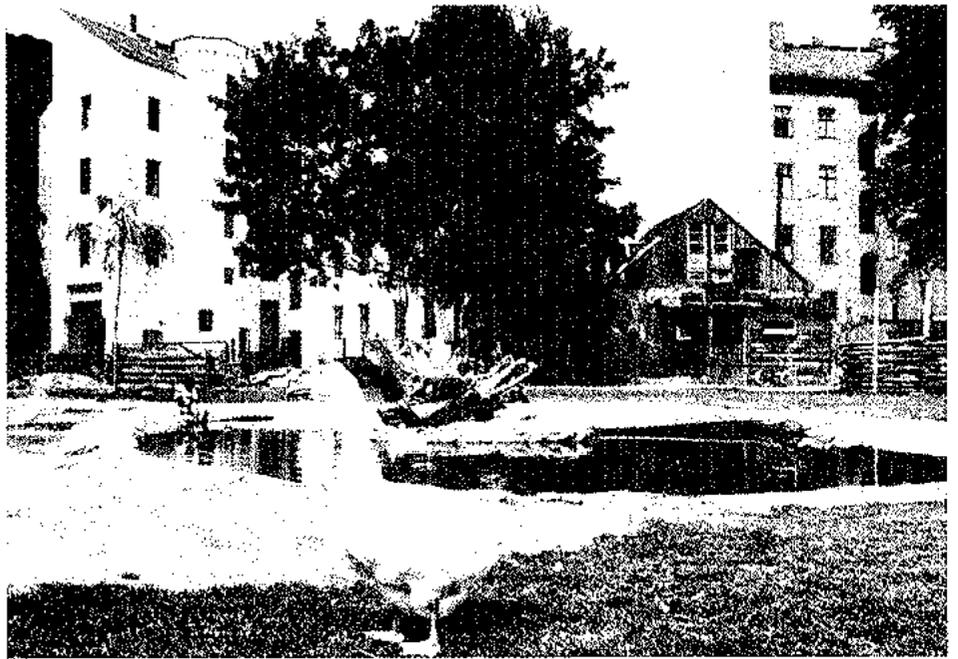
중소기업체가 사라져 버려야 했다. 그리하여 이 계획안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구의 도시개량지역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생태학적 조건들이 실제로 고려되었다. 주민들과 건축관계자들 그리고 베를린 건축박람회 회사측의 공동 참여로 새로운, 보다좋은 도시를 보호하는 대책을 위한 중심대책이 세워졌고 1983년 초에는 쌍방이 사전합의한 “신중한 도시개량을 위한 12원칙”이 베를린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1. 개량은 현재의 집 거주자와 사업가들과 함께 계획되고-기존 건물을 보존한 채로 - 실현되어야 한다.
2. 계획가는 물론 건물의 현 거주자와 사업가들은 개량목표나 개량대책수립시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계획에 같은 의견이어야 한다.
3. 크로이츠베르크의 특이성을 보존하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신의와 신뢰를 되찾아야하며 주거지역의 실재를 위협하는 피해는 즉시 퇴치되어야 한다.
4. 평면계획의 신중한 변화는 새로운 주거형태를 가능케 해야한다.
5. 집단주거와 단독주거들의 개량은 단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6. 건축적인 상황은 최소한의 철거와 단지내부 중정의 녹화, 그리고 건물정면의 구성등을 통하여 개선한다.

7. 도로, 광장, 녹지대와 같은 공공시설들은 필요적절하게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8. 사회계획안에 관한 관계자들의 참가권과 실행법은 규정되어야 한다.
9. 도시개량을 위한 결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가능한한 문제의 장소에서 토론되어야 하며 관계자(당사자)대표들은 증명될 수 있다.
10. 신뢰를 낳을 수 있는 도시개량은 확고한 경제적 뒷받침을 요구하므로 비용은 자기 사정을 참작하여 즉시로 지출될 수 있어야 한다.
11. 수임자의 새로운 형태가 개발되어야하며 수탁자적인 개선과제와 건축대책은 분리되어야 한다.
12. 이 계획에 의한 도시개량안은 1984년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단축됨)

지금까지 해오던 “관청주도”하의 관례적인 계획과는 반대로 위의 원칙들은 관계자들의 경험과 관심을 주요한 결정적 토대로 삼았으며 실제적인 건축공사는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만약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개량위원회나 지역구위원회, 말하자면 일종의 쟁의조정과에서 관계자들이 관청의 대표들을 상대하여 다수결로 처리한다.

1987년까지는 대략 485개의 주거가 신축될 것이고, 약6,000가구가 수리되거나 경우에 따라 현대화될



▲어린이를 위한 농가, 아달베르트街(Adalbertstraße)

예정인데 1984년까지는 벌써 375가구가
 신축되었고, 3,300가구가 수리되었다.
 1,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학교와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탁아소가
 설치될 것이며, 250개의 단지속의
 층정이 녹화되고 20여개의 도로와
 광장들이 재건될 예정이다. 그외
 20여개의 다른 계획안들, 즉
 청소년문화센터, 양로원, 체육관,
 놀이터, 어린이를 위한 농가, 공원
 등이 공사중에 있거나 앞으로 지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공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파괴된 상황이나 포기,
 반대등을 통해서 한가닥 희망 및
 새로운 자신감과 증대하는 동질성이
 주거지역인 키츠(Kiez)와 함께 생겨
 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며 도시개발이 결국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과제인것은 물론
 그 의미가 점차증가되어 도시개발의
 영향력이 도시전체의 생활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갖는 문제이나
 베를린(Berlin)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특이하고 극단화되었으며
 작업원칙(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12원칙")이 서로 유사하고 위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시와 도시,
 구역과 구역, 주거와 주거사이에도
 서로다른 개별적인 요구가 생겨나는
 것이 도시개발 문제의 특징이었다.
 베를린 건축박람회 GmbH 는 1981년



▲아달베르트街(Adalbertstraße) 81번지, 1981



▲오라니엔街(Oranienstraße) 20번지, 1985

▼프랑켈우퍼(Fraenkelufer) 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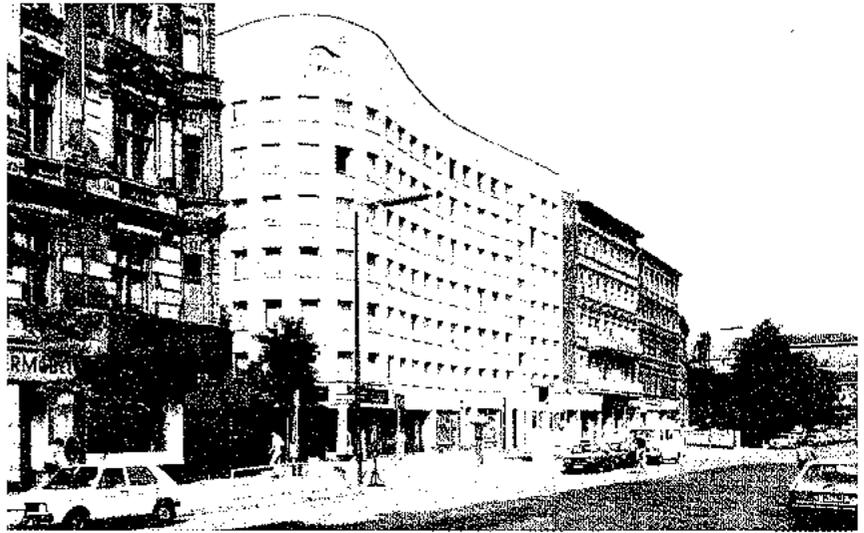




▲라이헨베르거/마리안넨(Reichenbereer- Mariannenstraße) 집·후면 사진



▲개축프로젝트, 아달베르트/월데마르(Adalbert-Waldemarstraß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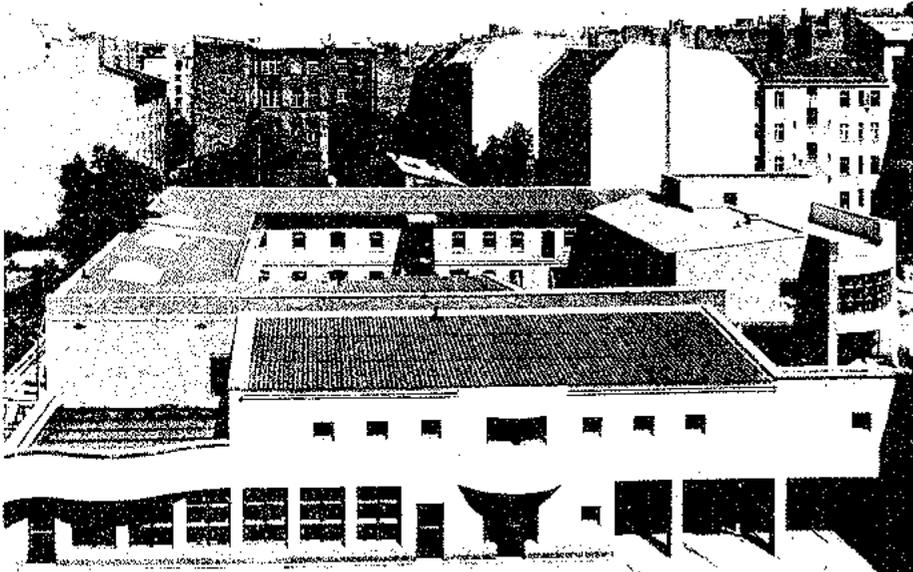


▲신축, 슐레지엔/팔켄슈타인(Schlesische-/Falckensteinstraße)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 지역 19블럭의 개량시공업체로 지정되었는데, 이와 때를 같이해서 주택개량정책은 그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처럼 주택개량사업시 기존의 임대계약을 해약하지 않은것과, 처음으로 관리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적인 방법이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그후 관계자들의 공동참여로 우선 단계적인 계획이 실현되었는데 그 첫 단계로는 특별히 위험한 상태의 건물들-전체가 비어있거나 부분적으로 비어있는 주거-을 더이상의 붕괴와 파괴로부터 지키는 것이었다. 이 공사의 결과로 얼마간의 주거들을 여분으로 얻게 되었는데, 이 여분의 주거들은 같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다음 주택개량 사업시 그곳에 살던 주민들이 이사를 할 수 있게되어 늘 부족하던 개량사업의 주택난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 다음단계는 입주자들이 들어 있는 건물들을 개량하는 것이었는데 가능한한

입주자들이 자기집에 머물 수 있거나 적어도 단지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뒤따르는 개량사업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었고 주택들을 붕괴로부터 구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이사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으며 주택개량사업에 관련되었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95%가 개량사업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 살게되고 그중 61%가 동일주거, 가끔은 더 커진 주거에서 살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가들의 숫자 또한 늘어났으며 이를 통해 점차 실업인구도 어느정도 줄게 되었다. 관계자들과의 면밀한 조정아래 이루어진 계획 및 건축사업들은 건물들 천후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외부와 천정 및 건물 정면의 수리와 지하실을 개량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다음단계로 건물내부의 수리, 즉 새로운 배수관들이 놓여지고 목욕탕과 샤워장들이 설치되었으며 그이외의 많은 것들을 복구하는 일들로 이어졌다. 끝맺음 단계인 “마지막

손질”은 입주자들에게 맡겨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조직한 자치기구를 통해 이일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을 해결했다. 입주자들과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집약적으로 참작한 후 개량사업을 관계자들의 수요와 경제적인 능력에 알맞는 정도로 축소시킴으로써 공사과정 자체를 현저하게 가속화 시킴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은 또한 현저한 공사비용의 절감을 가져와 그 이전의 개량사업에서 필요했던 비용의 절반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1984년까지 2,000여개의 주거가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 지역에서 개선(개량)되었으며 1987년까지는 2,000여 세대가 더 개량될 것이다. 남은 건물들을 구제하고 개량하며 새로운 건물들-예를 들면 프랭켈우퍼(Fraenkelufer)가에 지어진 인켄과 하인리히발러(Inken u. Heinrich Baller)의 작품,



▲쿠브리가(Cuvrystraße) 유치원



▲프란켈우퍼(Fraenkelufer), 전경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와는 달리 이곳 So 36지역에서는 특정한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학교 유치원 등의 신축이었다.

1987년까지 So 36구역의 전략지역에는 아래와 같은 사업이 실현되었거나 시작되어야 한다.

— 슐레지셰스 토이(Schlesisches Tor) 지역;

유치원, 노인 복지 및 여가시설, 양노원, 자유놀이 공간건물 정면과 도시공간의 예술적인 구성 지하철역의 변형이용

— 쿠브리가(Cuvrystraße) 지역; 광장(인터체인지)구성, 예술적인 도시공간 구성, 유치원, 도로설치, 놀이터.

— 포르스터가(Forsterstraße) /파울-린케-우퍼

(Paul-Lincke-Ufer) 지역;

유치원, 공공시설, 학교확장. 그외에도 “키츠(Kiez)”학교의 모델계획과 또다른 학교, 많은 수의 유치원 및 탁아소, 주민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체육관, 도로,

광장(인터체인지), 어린이를 위한 농가 등이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을 것이며 1987년까지 이 지역의 196개 주거가 신축되고 1,600주거가 사라질게 개량될 것이다. 그러나 “사려깊은 도시 개량사업”의 부인할 수 없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민들과의 새롭고 합리적인 교제(만남)에 대한 시도는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러한 대규모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끝나든 그것은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경험들은 계속 남아 있으며 사람들은 그 경험들을 토대로 앞으로는 더욱 발전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느 누구라도 인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계획하며, 자원을 보호하고, 관련자들(주민)을 공사에 책임있게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도시들이 우리들의 보호하에 변화되는 것에 기여케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더이상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完)

라이헨베르가(Reichenberger Straße)의 모퉁이에 지어진 빌헬름 홀츠바우어(Wilhelm Holzbauer) 건물—을 빈터에 세우는 것으로 모든것이 다 해결된 것은 결코아니다.

이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또다른 많은 조치들이 필요불가결한데, 예를들면 전지역의 원활한 교통망을 위한 모델시도, 즉 발데마르가(Waldemarstraße)와 같은 도로들과 광장(인터체인지)들의 재건사업, 구

루이센슈타트운하(Luisenstadt Kanal) 옆의 대지와 같은 곳에 공원 조성파 어린이들을 위한 농가신축, 탐과 녹화된 지붕을 가진 목조 건물의 유치원 신축, 불필요한 공원 건물을 어린이용 건물로 개조시키는 일 구상가 건물을 개조해서 만든 여성회관, 각 집단 주거단지 내의 녹화사업 등이 그것이다.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 동쪽에 접해 있는 특별구역 So 36에는 50개동,

23,000가구에 약36,000명의 주민이 살고있는데 그중 15,000명 정도는 이 지역의 영입에 종사하며 대부분 다층건물에 살고 있다. 이 지역은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처럼 이전에 있었던 고속도로 공사와 개량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북쪽 구역만이 개량예상지역이었다. 그러나 특별구역 So 36은 다른 지역의—특히,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 — 주택 개량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의 피난처였다. 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빈 부지와 체육시설의 부족은 날로 심해졌었다.

벌써 1976년 주민들은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지역을 위한 전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도시 개량사업을 세웠는데 베를린 건축 박람회 GmbH도 그것에 참여했으며 루이센슈타트(Luisenstadt)에서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우선 긴급한 공사만을 주로 하였다.

先史時代의 우리나라 建築

張慶浩

문화재연구소 소장

Report/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Prehistoric Age
by Chang, Kyung-Ho

“

우리나라에서 先史時代라고 하면 대체로 舊石器 新石器時代를 비롯하여 靑銅器와 初器鐵器時代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시대의 건축을 논함에 있어서는 통틀어 原始時代의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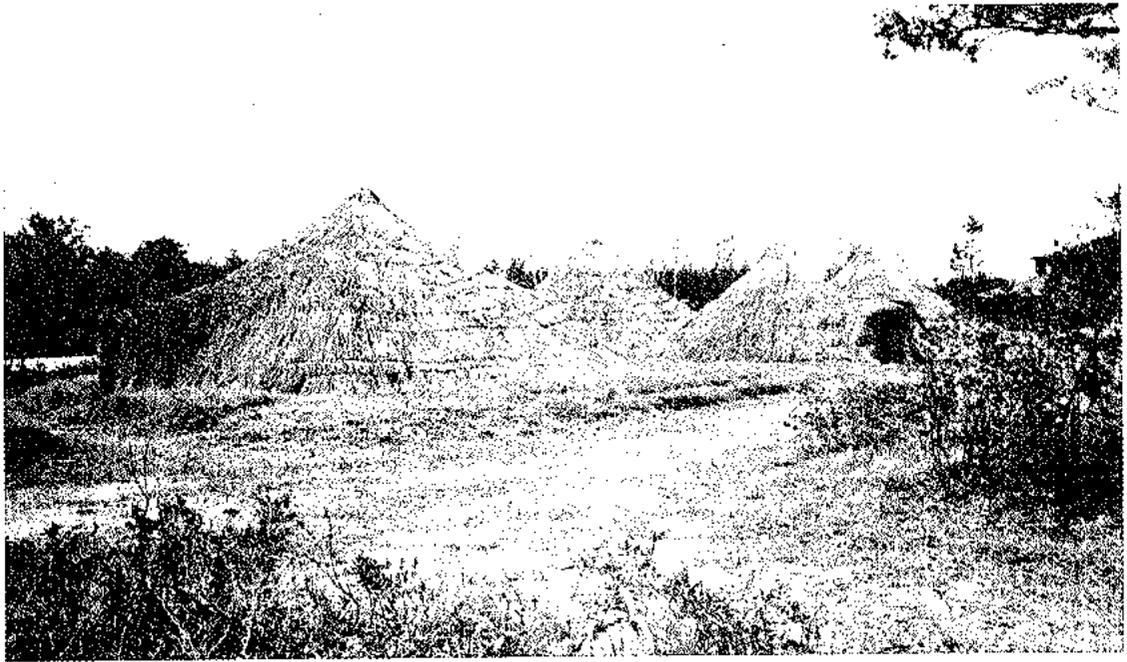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先史時代라고 하면 대체로 舊石器 新石器時代를 비롯하여 靑銅器와 初器鐵器時代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 시대의 건축을 논함에 있어서는 통틀어 原始時代의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連川郡 全谷面 全谷里나 忠北, 公州郡 長岐面 石壯里 등과 북한지역의 咸北 雄基郡 屈浦里, 鮑浦里 등지 외에도 많은 곳에서 구석기문화의 유적과 유물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어 적어도 20만년전 혹은 30만년전부터 이땅에 인류가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사용한 打製石器등, 동물뼈로 된 도구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시기의 住居址로서 밝혀진 것은 별로 보고된바가 없고 다만 1970년부터 1972년 사이 발굴조사 보고된 石壯里 제1지구에서 집자리로 보이는 기둥구멍과 石例 그리고 문돌 등이 발견되었고 여기서는 타원형의 爐址가 발견되었으며 돌을 이용하여 사냥개, 새, 멧돼지등과 바닥에 그려진 고래등이 있어 이 시기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곳에서 채집된 시료의 炭素測定年代는 20,830±1,880가 나왔다고 하여 後期舊石器에 속한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또 前記한 屈浦里 유적에서도 天幕住居址가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이 시기의

人類가 Shelter로서의 住居形式을 알게되는 것은 洞窟이나 자연을 이용하였거나 또는 人工의 것이라고 하여도 최소한의 원시적 가공으로 가능한 방법의 움막으로 나무가지나 동물의 가죽등을 이용한 천막식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確認될 수 있는 先史時代의 주거지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新石器時代 이후의 움집터 들이고 이들에 대하여는 발굴조사된 보고가 있어 그 내용을 알수 있다. 이러한 움집터를 堅穴 住居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에서 발굴조사된 堅穴 住居址만도 70여개소가 넘는다.”

발굴조사된 堅穴 住居址 외에도 文獻으로 나타나는 원시시대 주거형식을 보면 먼저 後漢書 東夷傳挹婁條에 「... 山林 사이에 居處하고 기후가 매우추워서 항상 구렁이에서 살고 길은수록 黠하고 큰집은 9층의 사다리를 놓았다.」라고 기록되어 堅穴生活을 뒷받침 해주고 또 같은 책 東夷傳韓條에는 「... 城廓이 없고 土室을 만들어 그 모양이 무덤과 같고 문이 위로 나있다.」라고 하고 三國志에서도 「... 草屋土室을 만들어 거처하여 그 모양이 무덤과 같고 문이 지상에 있고 모든 가족이 그속에서 살았다.」라고 하여 역시 「開戶在上」이나



서울岩寺洞 움집의 復元全景 ▲
서울岩寺洞 發掘遺蹟 現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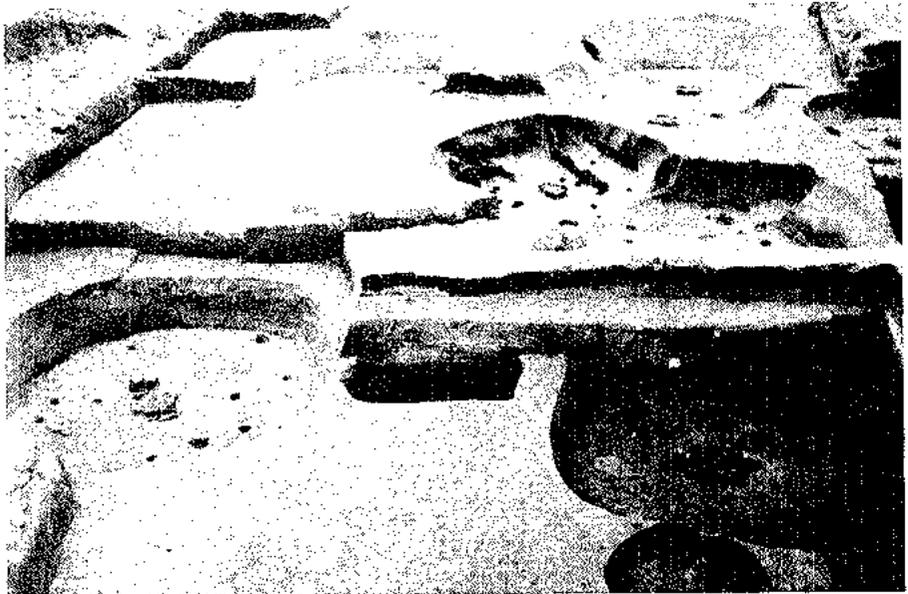
「其戶在上」이란 기록을 한 것으로 보아 豎穴의 움막집인데 지상에 문을 덧달아 내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는 土室을 「움을 파서 만든 집」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움집은 움집이되 벽과 지붕까지도 흙을 발라만든 것인지 하는것은 좀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또하나의 주거형식에 대하여는 三國志 東夷傳 辰條에 기록된 것인데 「... 그 나라는 옆으로 나무를 쌓아만든 것이 있어 마치 감옥과 같았다.」라고 하여 소위 말하는 귀틀집을 의미한다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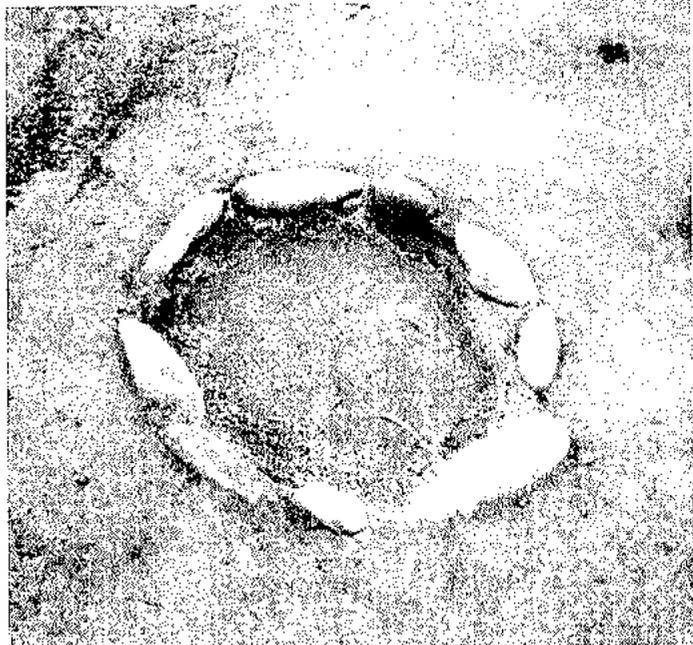
세번째의 주거형식을 나타내는 기록으로 晉書 肅慎氏條에 「... 肅慎사람들은 挹婁라고도 부르며... 깊은 산과 계곡에 살고 그 길이 험하여 車馬가 통하지 못한다. 여름철에는 巢居하고 겨울에는 穴居한다.」⁷⁾ 여기서 巢居라 함은 새둥우리처럼 나무위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이상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원시 주거형식은 豎穴住居式(움막집) 累木式(귀틀집), 巢居式(고상주거)로 크게 나누어 질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선사시대 주거로서 지금까지 조사연구된 바를 概述 구하고져 한다.

• 新石器時代의 豎穴住居

신석기시대는 지역에 따라 그 년대를 달리 잡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체로



岩寺洞 墟址의 細部▶





▲ 岩寺洞 움집의 復元過程 ⇨

7,000년전부터를 잡고있다.⁸⁾ 이 시기에는 구석기시대에 비교하여 몇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石器를 갈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工具로서 또 농기구로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때에는 건축의 부재를 더 기능적으로 가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이들은 농경생활을 시작하여 일부곡물을 재배했고 가축을 기르고 容器를 발굴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에 概文土器와 이에 앞선 無文土器도 출토되어 땡이와 같이 밀이 뾰족하고 土器외면 상부에 빗살무늬를 한 토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를 일명 概文土器文化期로 부르기도 한다.

셋째, 이 시기에는 농경생활로 인한 주거의 定着生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며 가족제도가 형성된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주거의 건축도 이를 수용할 수 있게 규모를 정하고 있어 그 면적이 9.5㎡에서 부터 49㎡까지 있어 그중 약 30㎡ 되는 것이 가장 많은 것 같았고 주거지의 면적차가 약4.5㎡씩 나게되어 이것이 1인당 필요면적으로 추정하여 약6명 정도의 가족이 거처하였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넷째, 이 시기에는 불의 이용이 필수적이어서 불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또 貯藏의 기능이 중요시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炬은 반드시 한개씩 있게되고 저장시 역시 대부분의 경우

갖추게 된다. 이상의 특징을 생각하며 그 실례를 든다면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서울의 岩寺洞, 부산의 東三洞遺跡과 北韓의 황해도 봉산군 智塔里 유적, 평남 온천군 雲下里의 弓山遺跡 함북의 웅기군 屈浦里 유적, 평북 중랑군 土城里 유적과 영변군 細竹里 유적 그리고 그 밖에 몇개의 유적이 있다.¹⁰⁾

• 서울 岩寺洞 新石器時代 竪穴住居址 이주거지는 1971년에서 1974년 사이 3년에 걸쳐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國立中央博物館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정식 발굴조사보고서는 아직 간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논문을 통하여 약보고형식으로 발표된 것이 있고” 그후에 이 선사주거지의 복원전시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져 그 사전조사로서 서울대 박물관에서 1983년에 조사된바 있는 岩寺洞 유적 긴급발굴조사보고¹¹⁾와 〈암사동¹²⁾〉 또 「岩寺洞竪穴住居址」復元基礎 調查報告書¹³⁾가 발간되어 유적의 성격을 알수있다.

1984년 조사에 의하면 조사된 12기의 주거지 가운데 크기가 너무작아 독립된 단일주거지로 보기어려운 7호주거지와 일부만이 남아있어 전체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10호를 제외한 나머지 10基를 형태별로 구분한 결과 卍形住居址는 단 1기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抹角方形이었다. 그 크기는 대체로 일변이 5~6m이고 이중 그 규모가 가장 큰 6호 주거지는 중앙부 爐址를 중심으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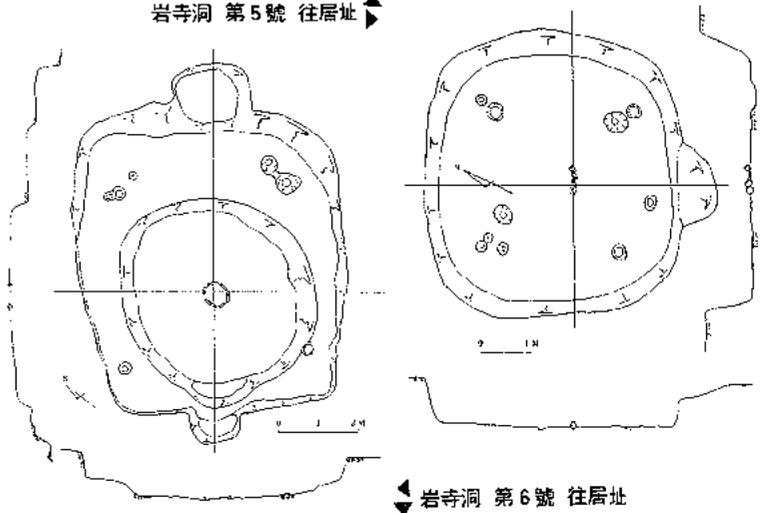
원형평면으로 약 30cm깊이로 파내어 기둥구멍은 그 밖에 네귀에 놓이는 이단식의 竪穴을 보여 특징을 이루고 있다. 爐址를 중심으로 이단을 내려 바닥을 이루는 것은 화기의 대류작용을 이용하여 실내의 온도를 효율화시키고져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로지는 각 住居址마다 각기 1개씩 설치되었는데 평면형태는 대략 장방형이거나, 방형, 또는 원형을 이루었는데 길쭉한 냇돌과 활석을 가장자리에 돌려 놓았다. 그 크기는 대략 1변이 55cm에서 85cm되는 것이었다. 주거지 바닥에는 기둥구멍으로 생각되는 구멍이 여러개씩 있었으나 대체로 1주거지에서 4개씩이 각기 평면 대각선방향 네귀에 놓이어 네개의 기둥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11호 주거지에서는 중앙부 로지옆에 柱孔이 하나 더 있어 중심기둥을 두었던 것 같다. 이들 주거지 바닥의 깊이는 약30cm에서 1m까지 분포되었고 (표 1참조) 출입구가 대체로 남향을 하였다. 이 유적지에서 층위별로出土된 유물들은 백제시대 토기에서부터 靑銅器時代의 無文土器 그리고 신석기시대의 砲彈形(땡이형) 토기등이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방사선 측정년대는 검토한결과 4,000 B.C 전후의 韓國新石器時代 전기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한다.¹⁴⁾ 암사동 주거지는 취락을 형성하여 많은 집터가 서로 가까이 운집하고 있어 협동 생활을 한것 같다. 그러나 이들 배치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하고 광범위한 발굴보고가 없어 알수 없다.



• 智塔里遺跡

여기서는 3개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는데 제1호 주거지는 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하였는데 1번이 약 7m 내외이었고 바닥의 깊이는 약 40cm로 점토로 다졌다. 중앙에는 長絲이 약 120cm 되는 타원형 로지를 두어 그 주위에는 길쭉한 냇들을 둘러었다. 이 로지 옆에는 토기의 밑부분을 도려내어 얹어 붙은 저장시설을 두었고 출입구로 보이는 門址. 2개소가 노출되었는데 西南쪽과 東北쪽에 있었다. 前者는 경사로와 같은 형식이었고 후자의 것은 폭 약 1.1m의 계단식이었다 한다. 특히 이 1호주거지에서는 기둥구멍이 없이 출입시설 좌우벽 가까이 붙타다 남은 솟기둥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것은 땅위에 세워던 것 같았다고 한다. 제2호 주거지는 岩寺洞의 것 과 같이 팔각의 방형 평면을 한 것으로 위아 약 6.4m 옴의 깊이는 약 55cm로 바닥은 모래층을 다져서 굳혔고 바닥 중앙부에 로지를 두었다. 기둥구멍으로 생각되는 것이 5개 정도 벽쪽으로 나왔다하며 東南隅에 계단식의 출입구 흔적이 있었는데 1호의 경우보다 좁아서 폭이 약 50cm 정도였다.

岩寺洞 第5號 往居址



岩寺洞 第6號 往居址



(표 1) 岩寺洞 堅穴住居址 (岩寺洞 堅穴住居址復元基礎調査報告書中 表一部轉載)

제3호 주거지는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역시 평면은 방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한변의 길이가 3.2m~4.0m였다. 바닥은 진흙을 깔고 굳게 다졌다. 로지는 중앙에 있었는데 역시 타원형으로 장변(남북)이 약 1.1m였다. 옴의 깊이는 30cm~35cm였고 출입구는 동남쪽에 계단식으로

No.	形態	크기(m) (長×短×深)	爐		社		出入		柱孔
			크기	형태	위치	갯수	위치		
1號	抹角方形	4.4×4.1×0.37	0.72×0.58	長方形	中央	•	•	7	
2號	抹角方形	5.9×4.7×0.71	0.56×0.7	長方形	中央	•	•	7	
3號	圓形	5.0×5.0×0.42	0.55×0.72	長方形	中央	1	南	7	
4號	抹角方形	5.9×5.6×0.76	0.85×?	方形	中央	1	西南	5	
5號	抹角方形	5.5×4.85×1.01	現長 0.55	方形	中央	1	東南	10	
6號	외곽	長方形	7.9×6.6×0.87	0.65×0.6	圓形	中央	1	西南	6
	내부	圓形	4.9×4.9×0.5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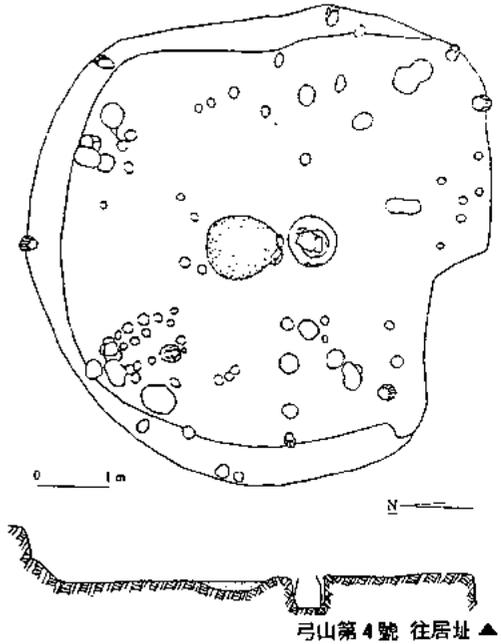
이 시기에 건축문화란

외부로부터 접하는 자연환경의 또는 외후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아주는 가장 원시적인 Shelter의
공간을 이룩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조리와 식사, 유식과 취침 생산과 작업등
가정으로서의 위계와 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체계적 생활 공간을
이룩하는 최소한의 필요시설로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건축기술적으로는

기반과 기초 기둥과 보검 도리 서까래와 지붕등
시설의 초기적 기술을 이루었던 시기로 볼 수 있고
살내 취온 및 채광시설로 남향한 출입구등의 設備의 技術을
원시적으로나마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



되었다. 바닥에는 20개의 크고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특히 동, 서, 남쪽 모서리에 있는것은 경사진 구멍으로 안쪽을 향하여 서까래처럼 박았던 구멍으로 추정된다.

• 弓山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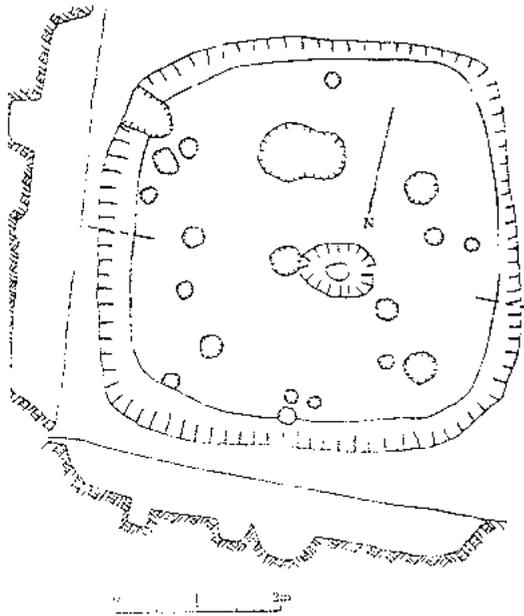
平壤 서남쪽 廣梁灣 해안을 따라 弓山이란 언덕 동남쪽 경사면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5개의 주거지가 調査되어 알려졌다. 이중에서 제3호와 4호의 주거지는 일부 겹쳐져 있었다고 하며 2호 주거지는 貝殼層 밑에서 나타났고 그 밑에도 또다른 패각층이 나타났다고 한다. 평면으로 보아 제5호 주거지만이 한변이 대응되는 변보다 훨씬 짧아 동북변이 2.7m 남변이 4.4m이고 중앙변이 5.2m 되는 특수한 평면을 보였다. 그외에 제1호나 4호주거지는 원형에 가까운 평면을 하여 직경이 대략 5.6m~6.2m였고 바닥은 점토다짐을 하고 바닥깊이가 1호는 4호의 2배정도 되어 120cm~130cm 정도였다. 로지는 다같이 수혈 중앙부에 있었고 貯藏孔도 爐竈에 있었다. 柱孔역시 중앙부와 변두리에 20여개씩 있었는데 수직으로 뚫린것도 있고 경사져 뚫린것도 있었다. 다만 제1호에서는 서남쪽에 출입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나 4호에서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弓山遺跡에서 특기할 것은 제5호 주거지에서 발견된 爐址인데 지금까지

수번에 川石이나 割石을 들렀던 것이 여기서서는 粘土뚝(폭 5~20cm)을 들렀다는 짐이라 할 것이다. 또 1호 주거지 로지수번에 돌린 礪石板中 한개에 원추형 小孔이 있어 이것이 燈火施設인듯했다 한다.¹⁾ 이상의 주거지 외에도 북한의 두만강유역에 西浦項遺跡과 압록강 유역의 土城里유적, 龍淵里유적등이 있고 1981년부터 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년차적으로 조사한 동해안의 鰲山里 유적들을 들수 있겠는데 평면의 모양이나 규모 그리고 특징에 있어 지금까지 기록한 예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었지만 수혈지 바닥을 다지는데 더 견고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특징이라 할 수 있고 鰲山里의 경우 바닥이 평지위 Level에 놓여 지상건축의 造營을 했다는데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바닥을 다지는 방법으로는 西浦項에서는 粘土나짐을 한후 불로 구어서 견고하게 하였고 鰲山里에서는 점토다짐, 자갈과 점토다짐, 점토다짐위에 불로 구운것등 여러가지 방법을 보이고 있다. 또 鰲山里유적에서는 기둥 구멍이 없는 것이 많았고 그중에는 초석으로 생각되는 판석이 중앙부 4곳에 놓여있는 것도 발견되어 주목을 끌었다.

新石器時代 往居址의 綜合的考察

지금까지 알려진 예를 종합하여 이 시대의 주거만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주거의 위치가 강이나 해안을 끼고 있었으며 평지 또는 小丘陵面에 위치한다.
- ② 평면은 대체로 말자정방형 또는 원형에 가까운 평면으로 그 직경이 대체적으로 4m~6m에 가깝다.
- ③ 중앙부에는 화로터를 1개 두었고 보통 냇돌이나 割石을 주변에 들렀는데 특수한 경우 진흙뚝을 둘러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돌이나 진흙뚝의 殘熱을 이용했다.
- ④ 로지에는 貯藏施設孔을 누었다.
- ⑤ 바닥의 깊이는 대체로 40cm~70cm인데 깊은 경우 120~130cm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특이하게 평지바닥도 발견되었다. 또 바닥면은 그냥 다지기도 했고 보통 점토를 깔아 다진곳이 많았고 점토와 자갈을 섞어 다진것과 점토를 다진 후 불을때어 견고하게 한 경우도 있다.
- ⑥ 기둥구멍은 岩寺洞유적과 같이 큰것 4개를 대각선 모서리에 두어 구조적으로 합리성을 나타낸 것도 있었으나 그렇지않고 부정형 평면으로 많은 구멍이 산만하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또 대체적으로 벽쪽에 있는 구멍은 내측으로 경사져 있어 서까래가 땅에 닿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鰲山里 유적과 같이 평지위에 판석 초석을 배치한 경우도 있어 이때 벌써 초석의 개념을 건축학적으로 갖게



▲ 智寶里 第2號 住居地



▲ 빗살무늬토기 (崇實大學校附設 韓國基督教博物館 圖錄에서 轉載)

되었다고 믿어진다.

⑦ 출입구는 보통 햇빛을 잘 받는 남향을 하였다.

⑧ 이 시기에 출토되는 유물로서는 石斧(돌도끼) 들장, 화살촉 등의 석기와 즐문의 토기 또 연석(숫돌), 이망추 등으로 수렵 채집에 필요한 도구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물고기 짐승등을 잡아먹는 수렵생활이 아직도 행하여지고 농사의 일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단계로 보아야 하겠다.

또 집의 평면으로 보아 지붕이 거의 원추형이었거나 4모지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구조는 중앙부에 주기둥 4개를 세우고(정상적인 경우) 이 윗부분에 도리를 돌려 서까래가 받치게 하되 서까래의 한 끝은 땅에 닿고 꼭지점은 서로 맞대어 서까래 위에는 나무가지등을 얹고 풀잎등을 덮어 비를 막고 출입구는 경우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덧 달랜 지붕을 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중앙부에 뚫는 음식을 익혀먹는 식사용도 되고 또 겨울에는 방안을 덮히는 난방의 시설도 되어 두가지의 목적을 겸하였다. 이 시기에 사용한 공구가 석기와 동물뼈로 된것이기에 때문에 건축재의 가공이 치밀하지 못하여 마춤과 연결부는 끈을 이용하여 결속하였다고 보아야겠다.

다시 요약하면 이 시기에 건축문화란 외부로부터 접하는 자연환경과 또는 외부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아주는

가장 원시적인 Shelter 의 공간을 이룩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조리와 식사, 휴식과 취침, 생산과 작업등 가정으로서의 위계와 질서 체계를 확립하는 체계적 생활 공간을 이룩하는 최소한의 필요시설로 시작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건축기술적으로는 기반과 기초 기둥과 보검도리 서까래와 지붕등 시설의 초기적 기술을 이루었던 시기로 볼 수 있고 실내 쉼 빛 채광시설로 뚫와 남향한 출입구등의 設備의 技術을 원시적으로나마 활용하기 시작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註

- 1) 孫寶基 : 石壯里 후기구석기시대 집자리, 연세대학교 박물관 韓國史研究9 1973.
- 2) 金正基 : 新石器時代 堅穴住居址 再考 韓國史學論叢 崔永禧先生 華甲紀念論文探求堂 1987年 2月.
- 3) 後漢書 東夷傳挹婁條에 「... 處於山林之間 土氣極寒常爲穴居以深爲貴大家 接九梯」
- 4) 前掲書 韓條에 「... 無城廓作土室形如塚開戶在上不知 跪拜無長幼男女之別...」

- 5) 三國志東夷傳 「... 居處作草屋土 室形如冢共戶在上學家共在中...」
- 6) 前掲書 辨辰條 「... 基國作屋椽累木爲 有似牢獄也...」
- 7) 晉書肅慎氏條 「... 肅慎氏一名挹婁... 居深山窮谷其路險阻車馬不通夏 則巢居穴處...」
- 8) Francis Celoria Archaeology, Bantan Books Toronto, New York, London, Grosset & Dunlap Inc 1970.
- 9) 金正基 : 우리나라 住居의 歷史 住宅公社 <韓國住宅의 어제와 오늘> 1979.
- 10) 金正基 : 韓民族의 住居 第1篇 先史時代 建築文化 1982.
- 11) 金鍾徹 : 서울 岩寺洞 先史聚落地. 韓國考古學年報 2 1974, (金元龍編)
- 12) 岩寺洞 遺跡發掘調查團 岩寺洞 遺跡發掘調查報告 1983.
- 13) 서울 大學校 博物館 <岩寺洞> 서울 大學校 考古人類學叢刊 第11冊 1985年.
- 14) 岩寺洞 遺跡發掘調查團 : 岩寺洞堅穴 住居址 復元基礎調查報告書 1984. 7.
- 15) 前掲 註12 同書.
- 16) 前掲 註10 同書.
- 17) 前掲 註9 同書.

중국전통건축의 이해(2)

朴舒弘

(주) 동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Report/A Study on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China
by Park, Suh-Hong

■ 글의 차례 ■

- 머리글을 위한 Aphorism
- 환경과 건축문화
- 중국전통건축의 본질
- 건축물과 환경
- 정원과 환경
-
- * 건축의 발전 및 명칭
- * 건축의 표준화와 예술성
- * 건축물 배치 및 평면
-
- 입면과 구조 그리고 재료
- 장식효과와 색조
- 중국전통건축의 특징

■ 건축의 발전 및 명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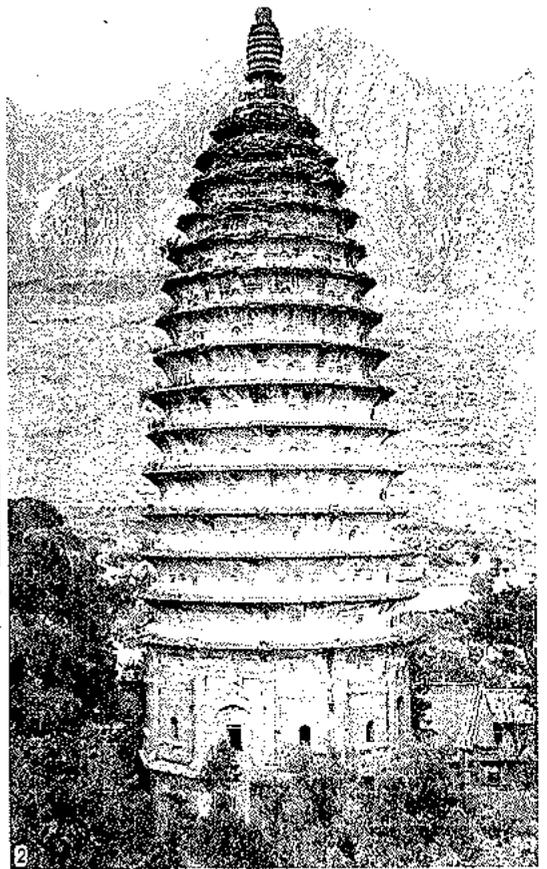
신석기시대에서 초기농업사회까지 인류는 지하에서 헐거하였고 그후 진보하여 반지하식의 원형 초가로 변화하였으며, 청동기시대의 도래에 따라 가정조직이 생기게 되었다. 건축공법도 판축, 뽀주(版築)"로 바뀌었고 아울러 궁스(宮室)와 자자이(家宅)의 구분이 생겼으며 중국건축의 공식적인 시작은 이 시기부터라고 하겠다. 서주(西周)의 동기(銅器)는 조악한 것에서 수려하게 바뀌었고, 건축도 진일보하여 타이(臺), 츠(池), 청(城), 위엔(垣, 울타리)의 구별이 생겼다. 춘추시대엔 철기가 널리 사용되어 제후들이 활거하게 되었으며, 경쟁적으로 청을 쌓고 타이를 건축했으며 호화로운 궁스(宮室)를 짓기 시작했다. 진(秦)대에 와서 궁 디엔(宮殿)을 크게 만들고 청들을 연결하여 장청(만리장성)을 이룩하고, 부호 10만호를 이주시켜 함양에 천도하니 도시계획의 효시라 할 수 있다. 한대에 와서는 도시, 도로, 궁스(宮室), 린 위엔(林園)에 대한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등급질서를 부여하니 건축표준화의 시작이기도하다. 위·진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어 남북조때 크게 융성하였고

건축에도 그 영향을 끼쳤으니 대동(大同), 운강(雲岡), 용문(龍門), 둔황(敦煌) 등의 불교예술은 특히 정교하고 장엄하다. 송산 송 위에 스(崇巖寺)의 12각 15층 석탑(碑塔 벽돌)은 현재까지도 보존되고 있으며 수대의 교량(橋梁)기술은 아주 높은 수준에 달해 있었고, 5대산 휘광스(佛光寺)의 목조대전 또한 당대를 대표할만한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당·송대에 표준화의 제도는 더욱 발전되어 중국건축의 금자탑을 이룬 시기였다. 원대에 이르러서는 건축물 방면의 큰 발전 및 변화는 없었고 수리(水利)와 천문(天文)방면에 치중되었다. 명대에 와서는 건축발전도상의 최고봉에 이르게 되는데 장창(長城)을 중수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세우고 만(天壇, 地壇)을 창건한 외에 천주교 도입과 더불어 서방 건축기술도 일부 들여와 새로운 차원의 건축발전을 이루게 된다. 청대에는 영토가 더욱 확장되어 변방의 특색있는 건축형태와 전통적인 중원건축과의 융합을 이룬 시기였는데, 단지 궁전과 더불어 위엔 린(圓林)건설만이 크게 이루어져서, 이 시대의 중요한 업적중의 하나로 손꼽힐 만하다.

대략 이상과 같은 형성 및 발전



1. 산서(山西) 타이위엔(太原)에 있는 티엔롱산(天龍山) 16굴 입구. 북제(北齊, 500년).



2. 허남(河南) 등청(登封)에 있는 송위예스(崇巖寺)탑. 북위(北魏, 523년).

과정을 거쳐온 중국건축은 그 명칭 또한 아주 다양했던 것이니 시대와 연대에 따라 그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명칭이라도 개체와 집합의 구별이 틀리는 수도 있었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구분을 건축물의 종류에 맞춰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 주택(住宅)

민자이(民宅)라는 용어로 많이 정의되고 있으며 그것은 가정윤리의 구체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농업사회의 주택은

싼허위엔(三合院)과

스허위엔(四合院)이 기본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의 인구가

증가되고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장원과 취락을 형성하게 되었다. 물론

그 형식은 서한, 동한, 진, 당, 송,

청대에 이르면서 각기 양상을 달리

하지만, 스허위엔의 가장 표준적인

격식은 통상 남북의 길이가 넓고

동서로는 한줄의 좁고 긴 직선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다. 남향한 것이

중황(正房)이고 북향의 것이

남황(南房, 혹은 陪房이라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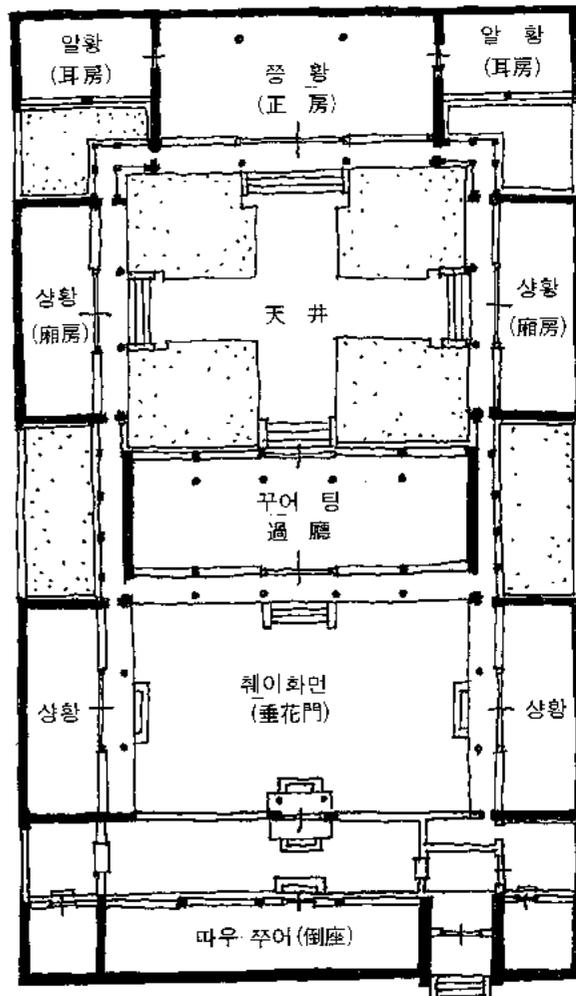
함)이며, 중황은 앞뒤로 대청으로

지었으므로 치쭈어(側座)라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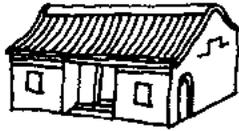
불리고, 동서 양편에 상황(廂房)을

세운다. (어떤 경우엔 남황을 세우지

않고 남쪽의 공지에는 담을 두르는데



3. 스허위엔(四合院)주택 평면도 (베이징, 北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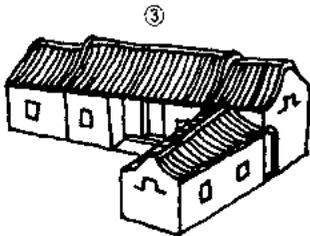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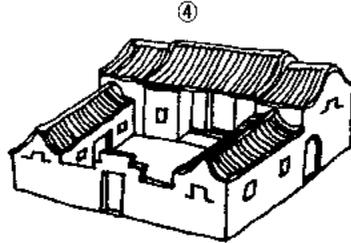
②



⑤



③



④

4 스허위엔(四合院)주택의 구성. 먼저 정승(正身)을 세우고 다음 후룡(護龍)을 증축해 나가는데, 가족수가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위엔 로(院落)와 후룡을 붙여 결국은 스허 위엔에 이른다.
5 운남(雲南) 리장(麗江)에 있는 민가 주택.



4

이것을 싰허위엔이라 함) 스허위엔의 중심은 텡위엔으로 넓고, 통풍이 좋고 햇볕이 잘들어야 한다. 대문의 좌우 앞뒤에는 잉벽(影壁)을 세우고 대문 위에는 꽃장식을 새긴다.

○스마우(寺廟)

민간신앙의 중심으로서의 스마우는 신을 모시고 제사를지내는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그 기본정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상에 제사드리고 조상을 중히 여기는 유가사상의 대표적인 영향인 것이다.

제왕이 선조를 받드는 곳을

타이 마유(太廟)라 불렀고 도교가 성하면서 각종 도관이 무수히 세워졌다. 일반적인 신령을 모시는 대부분이 도교의 범주안의 영역이고 이런류의 도관을 마우(廟)라 칭했다. 이러한 마우(도관등의)외에 이른바 싸우 샴(齊利), 스위엔(寺院), 총린(叢林), 정썸(精舍), 안탕(菴堂)등은 모두 불교의 범주에 속하는 건축물이다. 비록 명칭이 다르고 그 숭배하는 대상이 틀리지만 그 모든 건축물의 형식은 전통양식에

따랐으며 대동소이할 따름이다. 이런 불교계통의 건축물을 총칭해서 불교스마우 건축이라하며 그중 건축물을 스(寺)라 하였고(타타포함) 라마계통의 마우는 보통 사원이라고 하였는데 2가지의 형식이 있다. 하나는 불교와 가까운 궁전식 목조건축이고 다른 하나는 띠아우 황스(調房式), 에 속하는 쥘스(粘石)건축이다. 베이징의 용허궁(雍和宮)과 동·서의 황스(黃寺)는 전자에 속하고 이허위엔(頤和園) 뒷산의 라마사원만이 후자인 띠아우 황스(調房式)에 속한다.

○ 궁디엔(宮殿)

띠엔 위(殿宇)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며, 역대에 걸쳐 우수한 건물들이 세워졌으나 대부분은 황조가 바뀔 때마다 소실되어 그 형태를 보기가 어렵다. 현재 보이는 것은 거의 청대의 유구일 뿐이다. 궁(宮)은 왕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며, 디엔(殿)은 탕(堂)의 높은 것을 말한다. 기능적으로는 왕이 거주하는 곳이나 부처 및 신을 모시는 당을 디엔(殿)이라 불렀고, 형태상으로는

우(屋)의 크고 장엄한 것을 디엔이라 하였다.(禮記 西禮篇疏에서)

○ 티엔 만(天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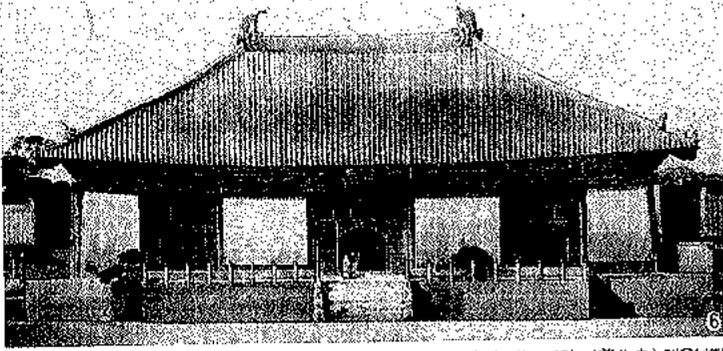
티엔 만은 명·청 양대의 황제가 하늘에 제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신전이다. 신년에 천, 지, 산, 천에 제사하고 전국 각성의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임으로서 하나의 사표로서 장엄한 행동을 백성에게 보이는 것은 행정 및 통치에 있어 중요한 사실로 인지하고 있었다.

○ 청츠(城池)

성과 그 주위에 파놓은 호수(河)를 말함. 적에 대한방어 및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되었고 성문(城門)은 교통의 중요지점에 세워졌고 그 성문의 상부에 있는 것을 정로(警樓)라 칭했다.

○ 텡위엔(庭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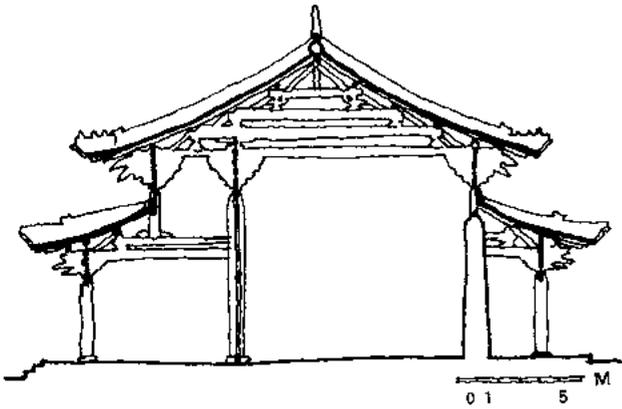
문인 아사들이 시를 읊으면서 한담을 나누고 모여서 즐기는 장소. 자산, 가산(假山)과 흐르는 냇물이 있으며 회랑과 수목이 어울려서 자연의 정취를 그대로 느끼도록 조성됨.



6. 산서(山西) 따동(大同)에 있는 선화스(善化寺) 대웅보전.



7. 표준 스허위엔(四合院)과 외곽에 후롱(護龍)이 있는 허위엔(合院)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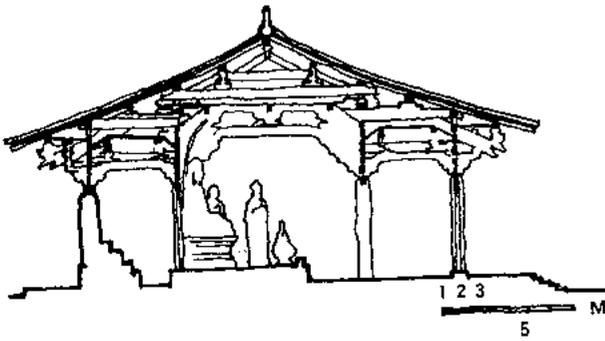


8. 태원, 진스성무디엔(太原晉祠聖母展). 단면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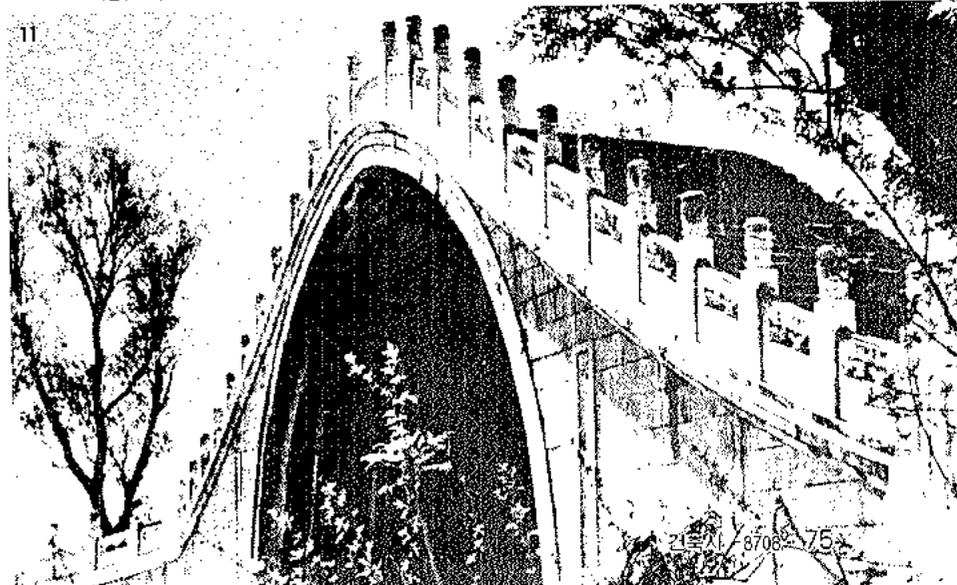
10. 이허위엔(頤和園)시티(西堤) 위 따이 차우(王帶橋).



9. 오대산, 휘광스대전(五臺山佛光寺大展) 단면도



11. 이란(宜蘭) 자우시(礁溪)에 있는 황제의 명에 의해 건축된 시티엔 마우(協天廟)의 무대건축(시타, 舞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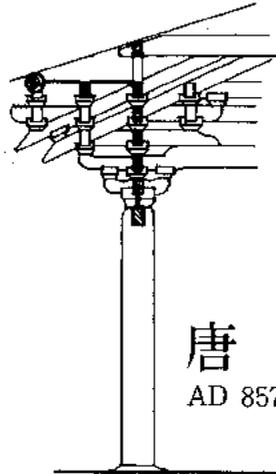
11

○ 텅꺼(亭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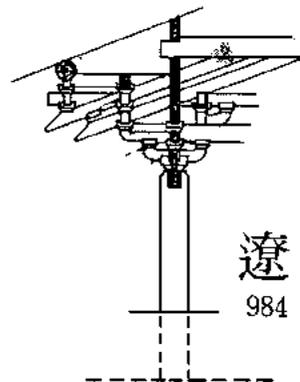
텅(亭)은 위엔(園)중에서 자유롭게 산보하며 휴식을 취하고, 술마시고 바둑도 두는 장소(규모가 적음)를 칭하며 꺼(閣)는 비교적 규모가 커서 손님을 초청하는 연회용으로 발전됨. 따라서 그 위치는 시야가 트이고 넓은 곳에 세웠다. 또한 연극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 건축의 표준화와 예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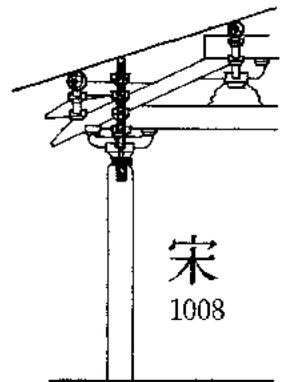
중국건축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로서 건축물 축조에 표준화의 제작법을 도입했다는 것과 거기에 따른 대량생산이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에 있어 영조술(營造術)에 관한 자료는 아주 희귀해서 송(宋), 청(淸) 양대에 각 1부씩의 책자(官書, 국가에서 발행하는 책)를 간행 했을 뿐이다. 송대의 리 지에(李誠)가 지은 **잉 자우 화스(營造法式)**와 청대의 공부(工部)에서 간행한 **공청 주이화 저리(工程做法則例)**가 그 대표적이면서 유일부이한 기록일 뿐이다. 하지만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개체 건축물의 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에 관한 표준제작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건축물의 각 부분은 엄격한 비례규정이 준수되어서 완전히 같은 형태의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각 부분의 부재 하나하나는 완전 표준화의 제도하에서 제작되었다. 이와같은 제작의 표준화는 오랫동안의 경험이 누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노련한 기술과 숙련된 배합을 이루어서 당대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평면과 구조에 있어서의 표준화는 기능인들의 숙달이 용이하고 제조와 조립의 공정이 쉬워서 시공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건축물 각부와 평면의 표준화는 장인들의 사용 요구에 따라서 그것들을 제작,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다른 형태의 평면 및 입면 구성을 가능케하여 다양성과 표준화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표준화된 부재만으로써 전체를 합성 구성하여야 하였기에 예술창조의 한계성을 스스로 속박한 결과를 낳았다. 허나 「표준화」가 건축의 점진적인 발전행태에 제한을 가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그중에서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디테일 부분이다. 이 부분이야말로 장인들의 지혜와 창조지지가 집약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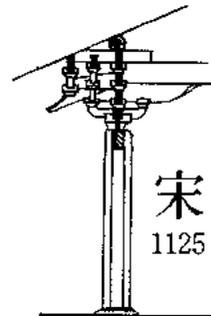
佛光寺 大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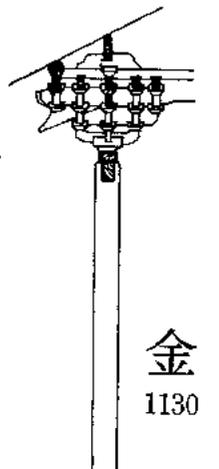
獨樂寺 觀音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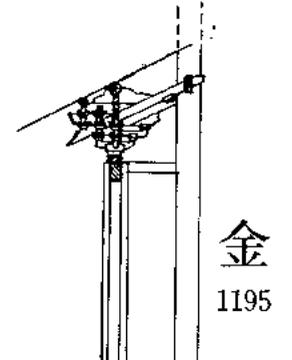
永壽寺 雨花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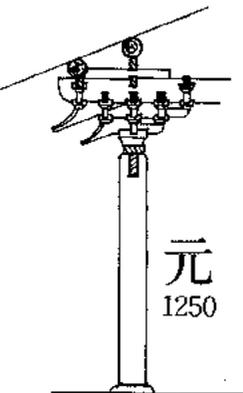
少林寺 初祖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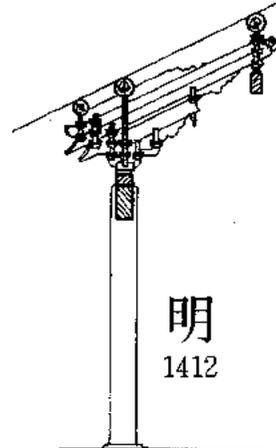
善化寺 三聖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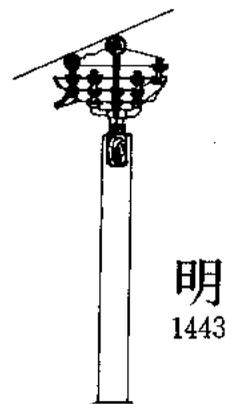
孔廟 金碑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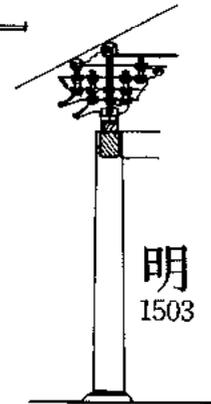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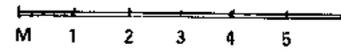
陽和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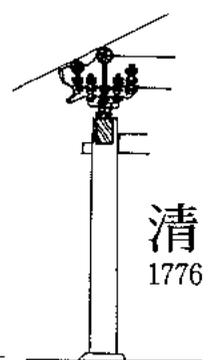
社稷壇亭殿



智化社 如來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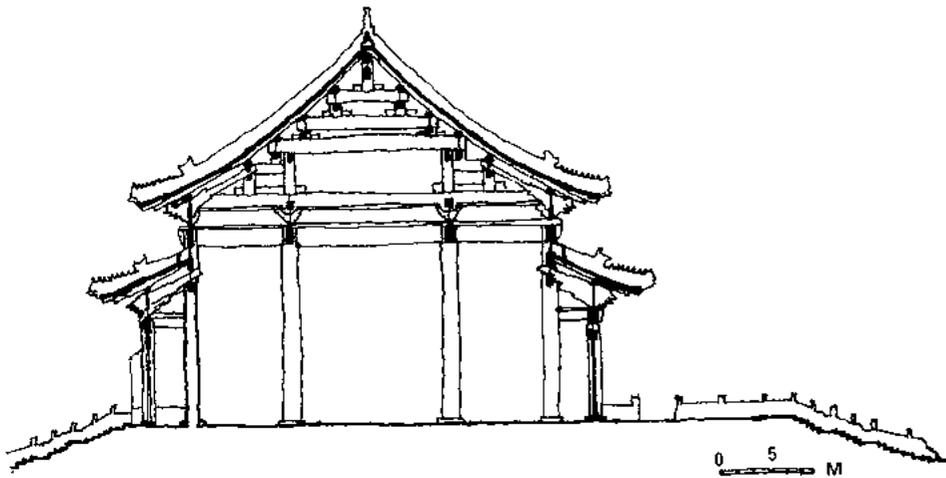


孔廟奎文閣



故宮文淵閣

12 억대 도우공(斗拱) 변천도



13. 청평, 명 청링릉스 디엔. (北平昌平明長陵棧)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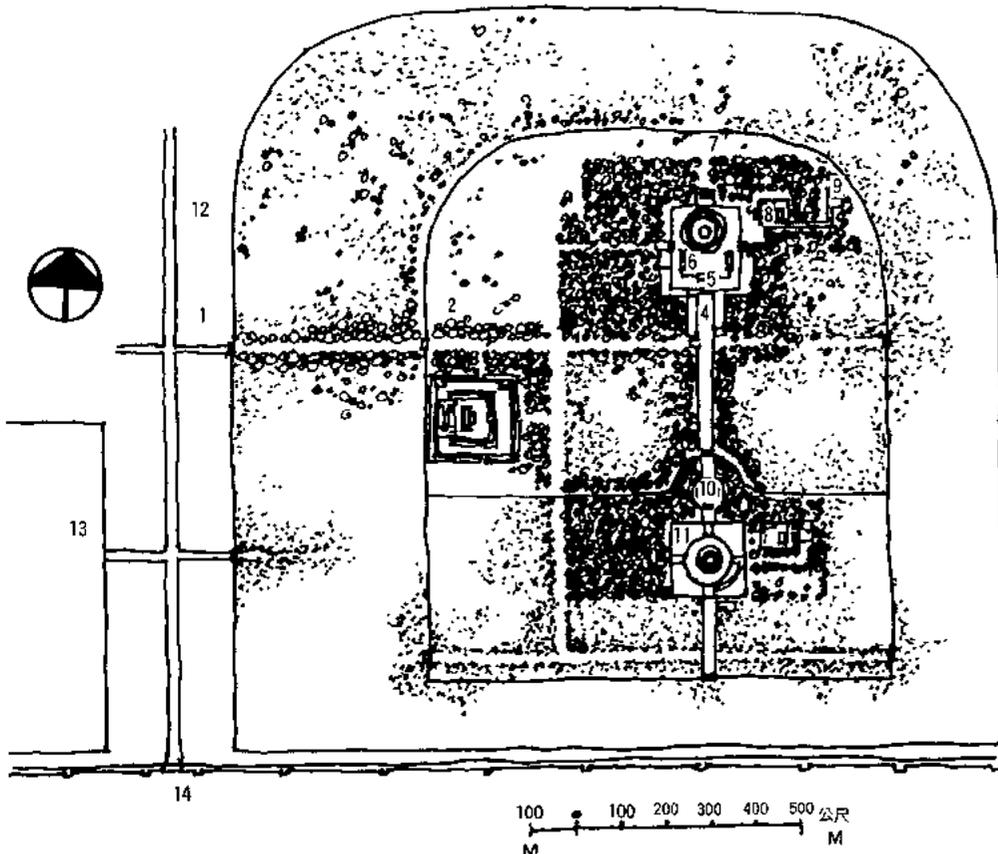
것으로서 각 시대 별로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으며 각기의 용도에 적합한 수요의 표준을 만들어 내었기에 각 시대에 따라 그 형식이 같지 않음은 물론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까지 되고 있다.

■ 건축물 배치 및 평면

배치의 형식에 있어서는 부지의 4면에 건축물을 세우고 그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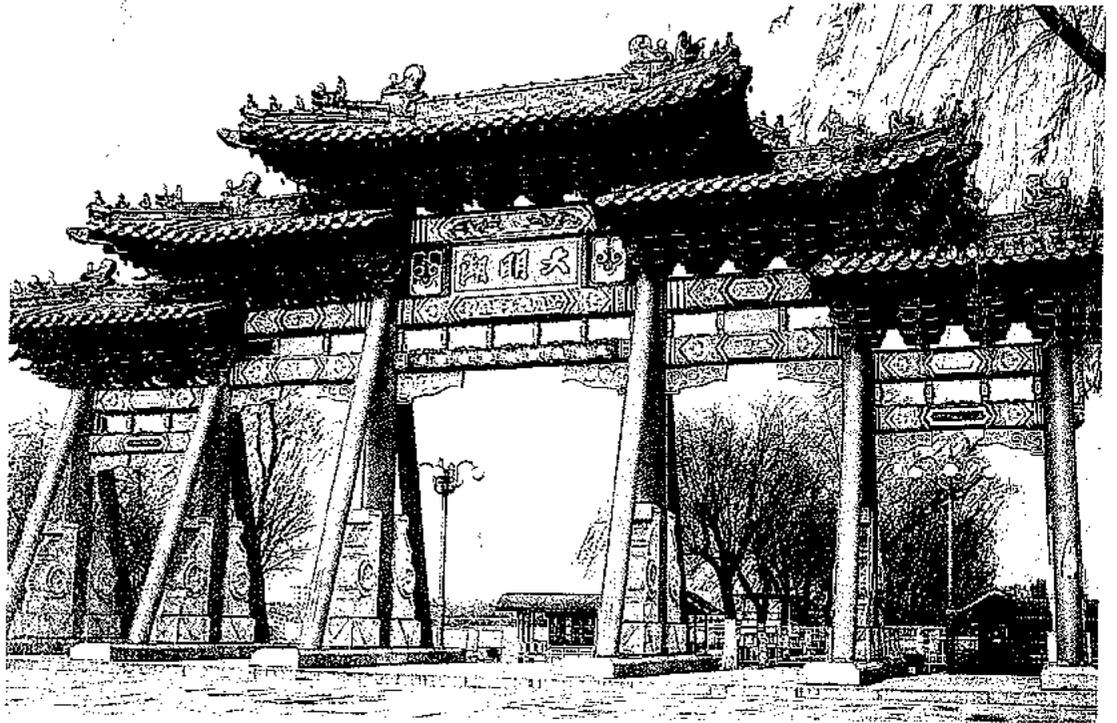
중앙부분에 뜰, 웬즈(院子)를 형성하는 방식이 근간을 이루었다. 각개 건축물의 정면은 모두 웬즈를 향하도록 배치를 하고 전체 대지의 주요한 축(軸)선상에 중요한 거실, 탕탕(廳堂)이 위치하도록 하였으며 주위 사방엔 담장이나 가옥들로 울타리를 형성하도록 하여서 그 속에서 일련의 크고 작은 텡 위엔(庭園)이 자연히 조성되도록 하였다. 텡 위엔 속에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서 환경의 질을

풍부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식의 배치형태는 건축물 외관에 있어 당연하면서도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각개 건축물의 뒷면이 담장과 어울려서 일체화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횡적인 외부 담장을 구성하는 요인이 되어서 외부담장 위로 원래있는 일련의 건축물의 지붕이 현저하게 돌출되어 표현되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즉 각개 건축물의 높이와 체적이 앞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증가되어서 입면상의 가로 방향의 건축물 윤곽이 뚜렷한 템포로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평면과 이런 평면으로부터 구성되는 공간배치는 불가분의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폐쇄적인 건축물 레이아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문(大門)으로서, 특수한 의미를 갖고있으나 대문이야말로 이런 모든 건축물 중에서 유일하게 외부를 향해서 서있는 건축물이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주택등에는 대문에다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일정한 심도(深度)를 갖고 뚜렷이 돌출이 되도록 처리한다. 규모가 비교적 큰 건축물 등에는 한채의 단독



1. 시 민(西門)
2. 시 티엔 먼(西天門)
3. 자이 궁(齋宮)
4. 쥐후타이(具服臺)
5. 치 니엔 먼(祈年殿)
6. 치 니엔 디엔(祈年殿)
7. 황 치엔 디엔(皇乾殿)
8. 선주(神廚)
9. 자이 성 텡(宰牲亭)
10. 황롱위(皇穹宇)
11. 환 치요(圓丘)
12. 웡딩먼거리(永定門大街)
13. 시엔이탄(先衣壇)
14. 웡딩먼(永定門)

14. 타엔뎨(天壇) 배치도



15. 파이황(牌坊) 주8) 참조

건축물로서 대문을 만들어 위엄을 과시하며 문 앞에는 돌사자, 스시(石獅)나 파이 황(牌坊)⁸⁾ 등 조각적인 것이나 건조물로서 대문앞 배치를 마무리 짓는다. 베이징 구궁(故宮)의 건축물 배치에서 볼 것 같으면 중화문(中華門)에서 우먼(午門)에 이르는 거리는 무려 1,200m에 이르는데 그 축선상에 4개의 문이 배치되어 있다. 즉 중화문, 티엔 안 문(天安門), 두안 문(端門) 및 우먼인바 그 문의 양 옆에는 랑우(廊屋)와 처문(側門)이 줄지어 있다. 티엔 안 문 앞에는 백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건축물과 조각(치주어 궁 차우, 七座拱橋, 돌사자, 화 삐아우, 華表 등이 배치되어 있다. 명(明)대의 13릉(陵)에 이르는 능도(陵道)는 7km에 달하는데 그 양 옆에는 돌로 된 파이 황(牌坊), 산공 차우(三孔橋), 마홍문(大紅門), 화 삐아우(華表), 룡홍문(龍鳳門), 우공 차우(五孔橋) 등이 배치되어서 이 길에 이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건축물의 주요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일종의 서곡(序曲)이나 전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개의 건축물이 갖고 있는 평면형태는 아주 다양해서 장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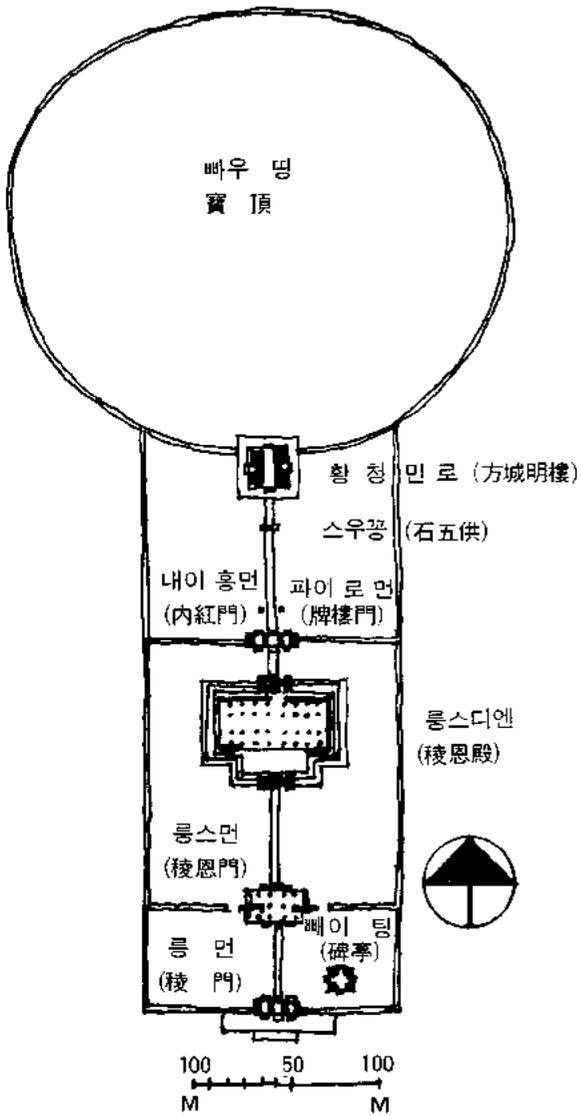
정방형, 6각형, 8각형 및 원 등이 기본형태를 이루고 거기에는 주위에 랑(廊)이나 삐아우 등이 가해져서 여러 변형 형태를 이룬다. 물론 이런 종류의 기본평면 형태는 모두 일정한 표준구조 방법하에서 제작되어졌다. 중국건축물의 평면과 공간의 배치수법은 동일한 개념으로서 도시의 배치계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고대의 도시계획은 큰 규모의 건축물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의 도시는 방(坊)⁹⁾과 리(里)¹⁰⁾로 구성되어졌다. 높고 큰 건축물을 도시의 중심 축선상에 배치해서 고대도시에 있어서의 방어개념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성벽 또한 건설하고 질박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거기에 성루나 활쏘는 누각등 방어상 필수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문은 그 도시의 면모를 나타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축물로 인식되어 왔다. 《다음호에 계속》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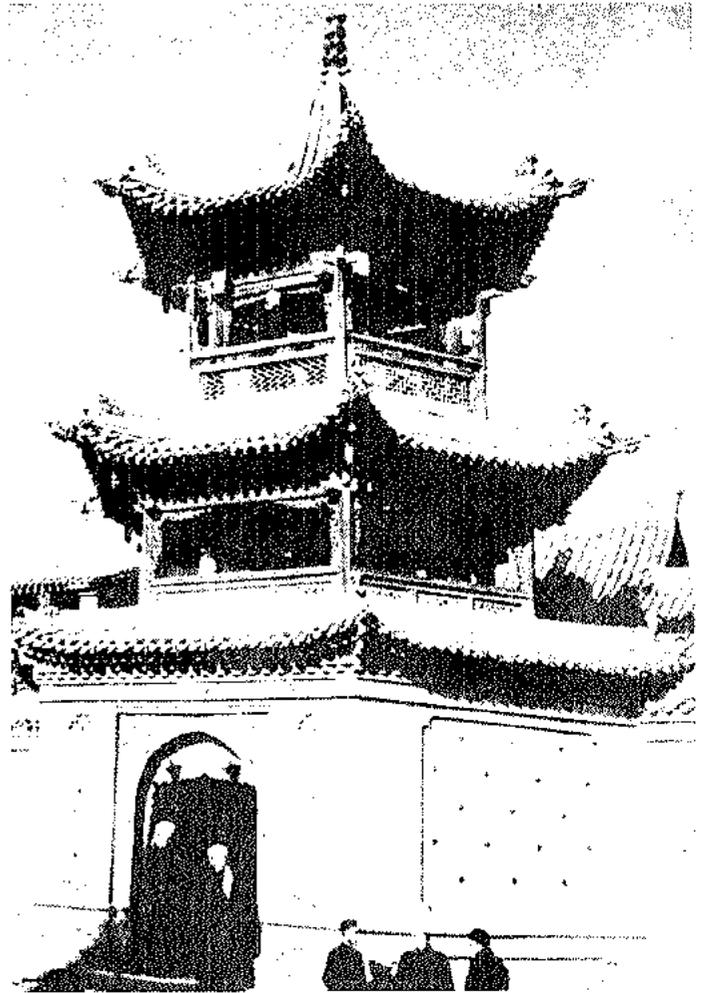
- 1) 흙을 이용해 만드는 제일 간단한 건축공법을 말함. 2개의 목판을 세우고 가운데 황토에다 물을 섞어 다짐. 제일 오래된 공법이기도 함. (리 치엔 랑, 李乾郎, 戶外生活,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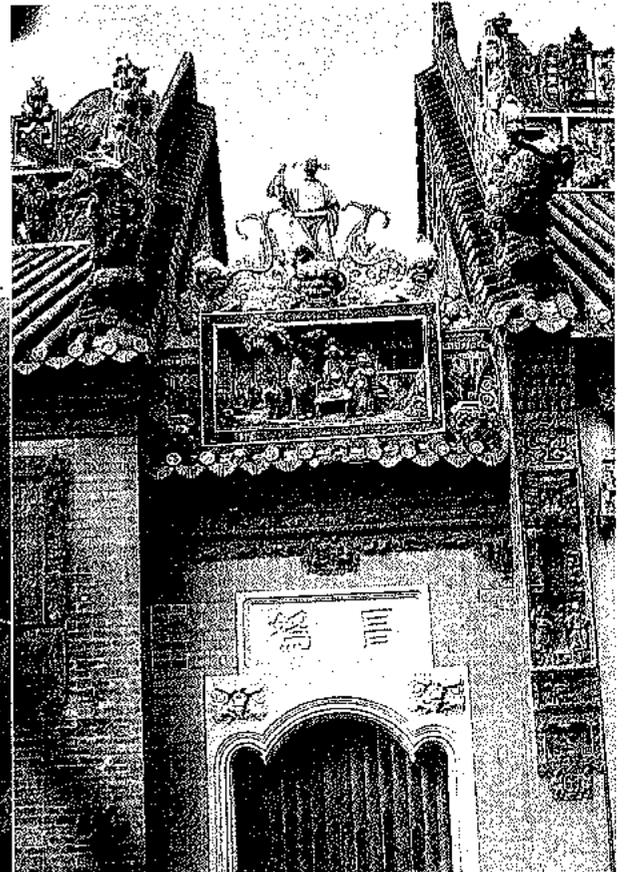
- 2)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없게 만든 벽.
- 3) 스님들이 모여 있는 곳.
- 4) 석축을 쌓듯이 구조물을 만드는 공법. (중국의 건축예술, 장 샤우 자이, 張紹載)
- 5) 텅 위엔 내에 만드는 인공산,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것은 작은 산만한 것도 있다.
- 6) 승녕2年(1103년)에 발간되었었는데 그후 800여년간 해독불능으로 사장되어 내려오다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 해독되었다. 총34권으로 되어 있으며, 양식, 호성, 재료, 도면 등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실리어 있다. (중국건축사, 량스청, 梁思成)
- 7) 용성12년(1734년) 발간. 총74권. (上同)
- 8) Memorial Archways, 제왕이 忠, 孝, 節, 義를 기리고 알리는 방법으로 내리는 구조물. 통상 주요건물 진입도로 위에 세운다.
- 9), 10) 고대 도시의 행정단위, 당대에 와서 里를 坊으로 고쳐부름. 예를들면, 周: 25가가 1里 春秋: 80가가 1里(尚書大傳) 春秋: 100가가 1里(禮記雜記下) 淸: 100戶가 1里. (中文大字典, 臺灣 文化大學教 出版部)



16. 명 창릉(明長陵)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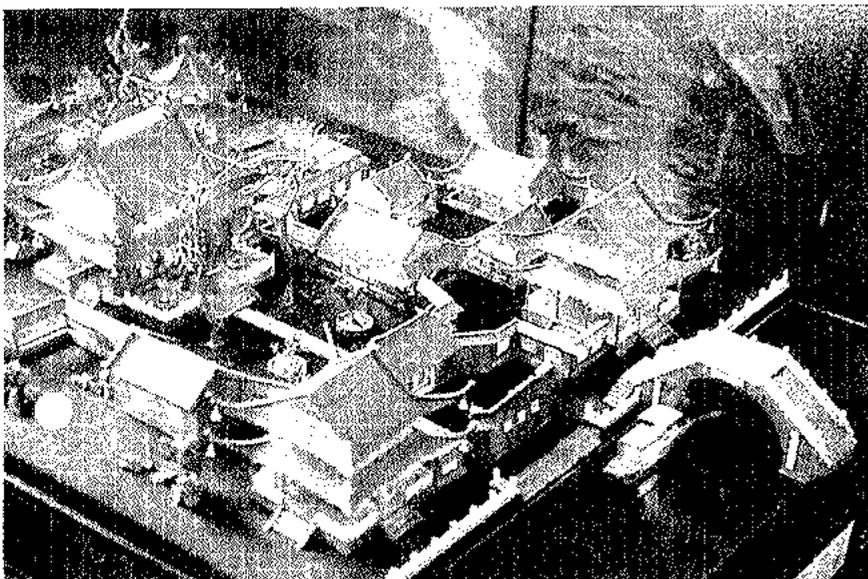


17. 남산파스, 환성로(南關大寺 喚醒樓).



18. 지방 디테일.

19. 한산스(寒山寺) 전체 모형.



葬禮儀式場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完)

金永德

(주) 한진종합건축사사무소

Report/A Study on the planning and Desing
of Funeral Ceremony Hall
by Kim, young-Duk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근래에 와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장례의식을
주거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사망자수도 급증할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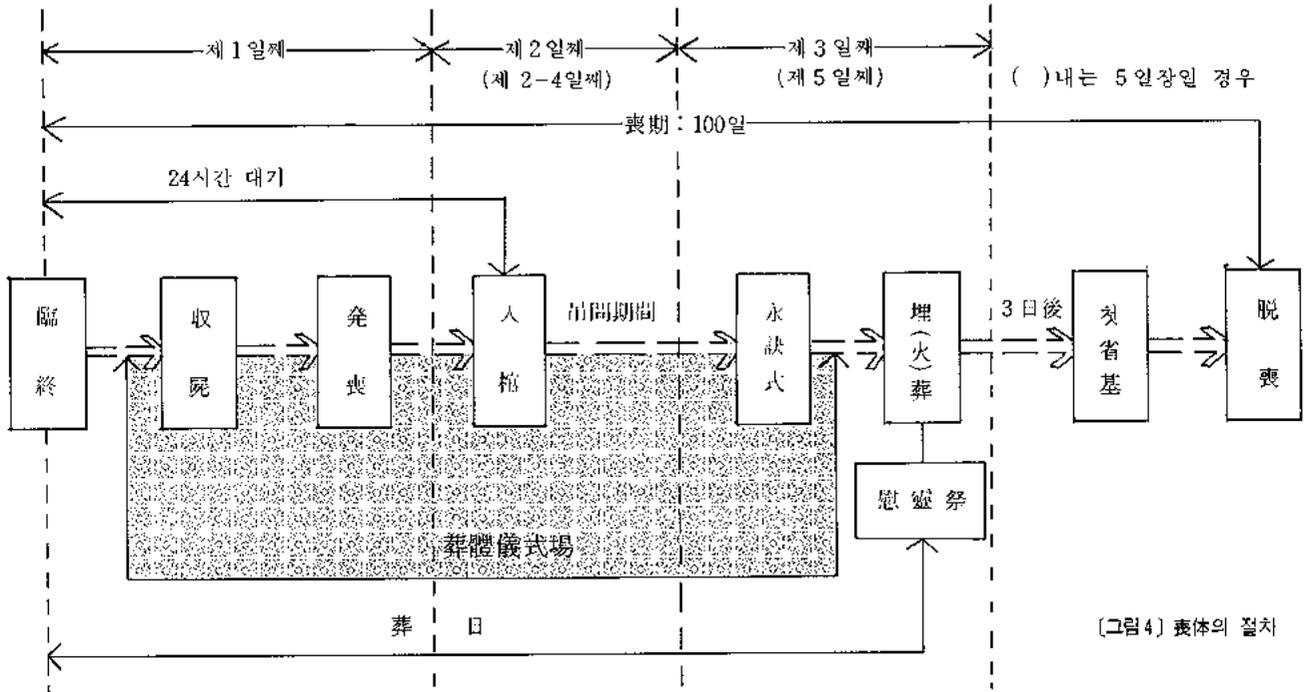
Ⅲ. 葬禮儀式場的 建築計劃

葬禮儀式場的 건축계획을 위하여
喪禮와 葬禮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喪禮와 葬禮의 절차

喪禮란 臨終에서 脫喪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고, 葬禮란 臨終에서
埋(火)葬까지의 의식절차이다. 이
절차는 각 종교마다 그 의식이
복잡하고, 가문이나 지방마다 예법의
차이가 있다. 또 國葬, 社會葬 등
儀典節次는 따로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정에서 치루는
喪禮를 기준하고자 한다.
사람이 임종하면 收屍를 하고 발상이
되어 친지들에게 訃告 한다. 운명후

24시간 경과후에 入棺을 하고 靈座를
마련하여 고인의 사진과 銘旌을
세우고 문상객을 맞는다. 의식을
치루다가 發柩時, 永訣式을 행하고
靈柩車로 葬地로 운구한 후에
매(화)장을 한뒤 慰靈祭를 지낸다.
3일후에 첫 성묘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추모제사를 지내다가 탈상함으로써 그
의식절차는 끝난다. 상례를 치루는
기간을 喪期라고 하고, 장례를 치루는
기간을 葬日이라고 한다. 종래에는
喪期는 부모상일 경우에는 3년,
장일은 최하 7일부터 3~9개월까지
장례를 치루었으나
가정의례준칙에서는 喪期는 100일,
葬日은 5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상례와 장례의 절차를 정리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 4) 喪禮의 절차

2. 設問調査에 의한 建築적 要求分析

● 葬禮를 치른 場所

(시)부모의 葬禮를 치른 經驗者를 대상으로 하여 장례를 치루었던 장소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2명중 「주택」이 54명(87.1%), 「병원 영안실」이 8명(12.9%)으로 대다수가 葬禮를 주택에서 치루고 있다. <표13 참조>

● 葬日

(시)부모 장례시 經驗했던 葬日은 「3일장」이 61명의 응답자중 55명(90.2%)으로 가장 많고 <표14 참조>, 희망하는 장일은 57명의 응답자중 55명(96.2%)으로 역시 「3일장」이 가장 많았다. <표15 참조>

● 問喪客數

(시)부모 장례시 弔問하였던 문상객수는 응답자 61명중 「100명 이하」가 24명(39.4%), 「101~200명」이 17명(27.8%)으로, 「200명 이하」가 41명(67.2%)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16 참조>

●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은 1사람의 응답자가 몇개의 문항을 자유로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바, 「주택에서

치른 경우」에는 응답자 97명중 「공간이 좁았다」가 36명(37.1%), 「음식장만」이 25명(25.8%), 「묘지선정」이 13명(13.4%), 「행정적인 수속」이 9명(9.3%), 「문상객의 안내가 어려웠다」가 7명(7.2%)의 순이었고, 「병원 영안실에서 치른 경우」는 「공간이 좁았다」와 「음식장만」이 6명(35.3%), 「행정적인 수속」이 4명(23.5%), 「묘지선정」이 1명(5.9%)이었고 「문상객의 안내」에는 응답이 없었다. <표17 참조>

● 葬禮儀式場의 종교별 분리
葬禮儀式場의 종교별 분리에 대한 의견은 「완전 분리」가 35명(37.6%), 「층별 혹은 칸막이 분리」가 31명(33.3%), 「필요없다」가 27명(29%)이었다. <표18 참조> 이를 종교별로 분석하여 보면 無宗教人은 「완전분리」가 12명(28.6%), 「필요없다」가 14명(33.3%), 「층별 혹은 칸막이 분리」가 16명(38.1%)이다. 基督教人과 불교인은 「완전분리」를 희망하였다. <표19 참조>

● 殯所의 區劃

殯所의 區劃은 응답자 94명중 「독립적 구획」이 34명(36.2%)이고 「형편에 맞게

(표 13) (媳)父母葬禮時 葬禮를 치루었던 場所

구분	빈도	N	%
주택		54	87.1
병원영안실		8	12.9
계		62	100

(표 14) 經驗했던 葬日

구분	빈도	N	%
3일장		55	90.2
5일장		4	6.6
7일장		2	3.2
계		61	100

(표 15) 희망하는 葬日

구분	빈도	N	%
1일장		1	1.9
2일장		1	1.9
3일장		55	96.2
계		57	100

(표 16) (媳)父母葬禮時 문상객수

구분	빈도	N	%
100이하		24	39.4
101명~200명		17	27.8
201명~300명		7	11.5
301명~500명		7	11.5
501명 이상		6	9.8
계		61	100

〈표 17〉 장례시 불편했던 사항

구분	자택에서 치룬경우 (총응답자93명)		병원영안실에서 치룬경우 (총응답자 8명)	
	N	%	N	%
공간이 좁았다	36	37.1	6	35.3
음식장만	25	25.8	6	35.3
묘지선정	13	13.4	1	5.9
행정적인 수속	9	9.3	4	23.5
분상객의 안내	7	7.2	0	0
불편이 없었다	7	7.2	0	0
계	97	100	17	100

〈표 19〉 장례의식장의 종교별 분리 필요에 대한 종교, 무종교인의 의견

구분	종교별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N	%	N	%	N	%	N	%	N	%
완전분리 건립	12	28.6	12	46.2	7	50	3	33.3		
분리가 필요하다	14	33.3	7	26.9	4	28.6	4	44.4		
충별 칸막이로 분리	16	38.1	7	26.9	3	21.4	2	22.3		
계	42	100	26	100	14	100	9	100		

〈표 21〉 장례의식장 외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N	%
빌딩같은 외관		4	4.3
성당이나 교회같은 외관		39	41.9
주택같은 외관		10	10.8
무엇인가 상징적인 외관		37	39.8
아무래도 상관없다		3	3.2
계		93	100

〈표 22〉 종교별 장례의식장의 건물 외관에 대한 의견

구분	종교별		무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N	%	N	%	N	%	N	%	N	%
빌딩같은 외관	2	4.8	0	0	0	0	0	0	0	0
성당·교회와 같은 외관	10	23.8	18	69.2	4	28.6	6	66.7		
주택과 같은 외관	5	11.9	2	7.7	2	14.3	1	11.1		
상징적인 외관	22	52.4	5	19.2	8	57.1	2	22.2		
아무래도 상관없다	2	4.8	1	3.9	0	0	0	0		
실용적으로	1	2.3	0	0	0	0	0	0		
계	42	100	26	100	14	100	9	100		

〈표 18〉 장례의식장의 종교별 분리 필요도

구분	빈도	N	%
완전분리하여 건립한다		35	37.6
그럴 필요가 없다		27	29
위치는 같더라도 층별, 칸막이로 분리하면 된다.		31	33.3
계		93	100

〈표 20〉 빈소의 구획

구분	빈도	N	%
독립적으로 구획한다		34	36.2
여러가구가 같이 행사를 치루어도 된다		1	1.1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59	62.8
계		94	100

선택」이 59명(62.8%)이었다.

〈표20 참조〉

● 建物外觀

외관은 93명의 응답자중 「성당이나 교회 같은 외관」이 39명(41.9%), 「상징적인 외관」이 37명(39.8%)이었다. 〈표21 참조〉 이것을 종교별로 분석하면 기독교인은 응답자 26명중 18명(69.2%)이, 천주교인은 9명중 6명(66.7%)이 「성당이나 교회같은 외관」을 선호하였고, 無敎는 응답자 42명중 22명(52.4%)이, 불교인은 14명중 8명(57.1%)이 「상징적인 외관」을 선호하였다. 〈표22 참조〉

● 建立 位置

장례의식장의 건립 위치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 93명중「교회」가 36명(38.7%), 「교통이 편리한 곳」이 30명(32.3%)였다. 〈표23 참조〉

● 설문 결과에 의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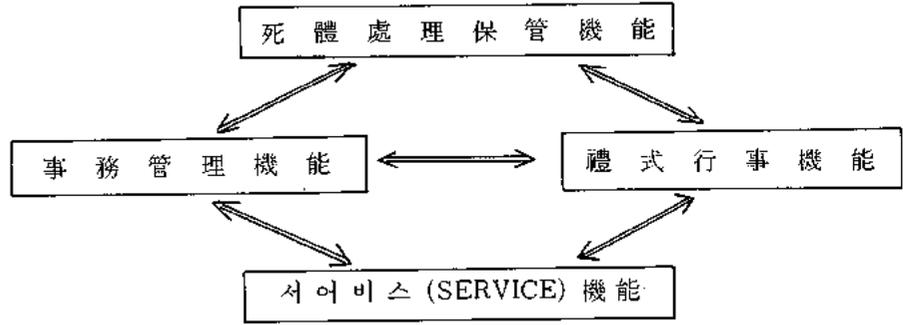
- 1) 대다수의 가정(87.1%)에서 장례를 自宅에서 치루고 있다.
- 2) 葬日은 3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殯所의 이용회수는 1개월에 10회 정도이다.
- 3) 問喪客의 수는 200명 이하(67.2%)가 가장 많고, 200명이상(32.8%)도 상당수 있으므로 殯所, 問喪客 待機室, 永訣式場 이용에 적합하도록 규모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3일장일 경우에는 제2일째 오후시간에 분상객이 가장 많이 몰리므로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4) 殯所는 1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獨立式과 여러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상객 대기실을 중심으로 빈소를 배열한 配列式을 고루 설치하여 형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5) 장례의식장은 종교별로 별도 의식을 치를 수 있게 別棟, 層別 혹은 칸막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6) 건물 외관은 각 종교적 특성을 살린 엄숙한 외관이거나 상징적이어야 하며, 위치는 교통이 편리한 교외가 좋다.

〈표 23〉 장례의식장 건립 위치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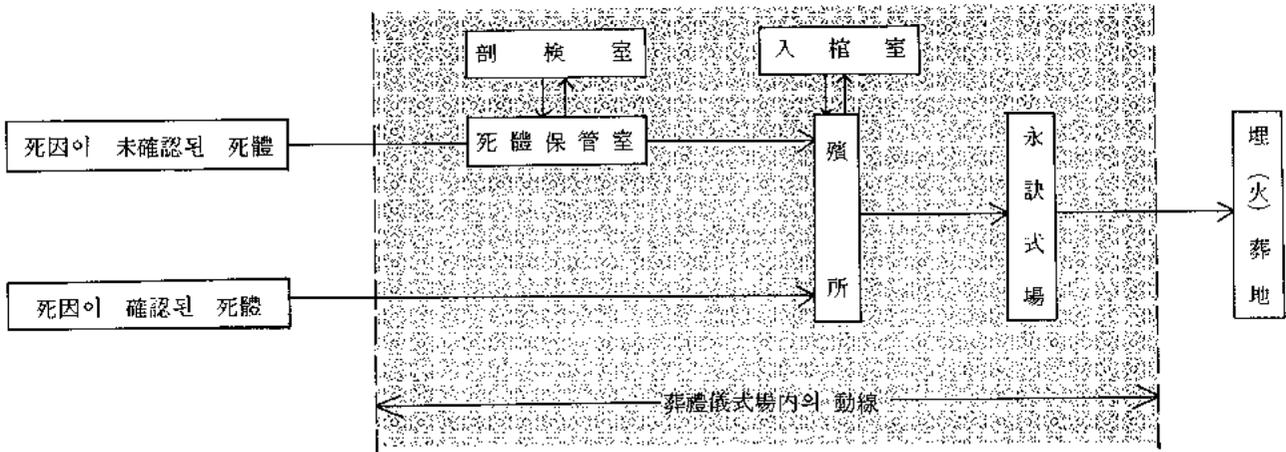
구분	빈도	N	%
집부근		13	14
시내중심가		2	2.2
교외		36	38.7
종합병원 영안실 부근		12	12.9
교통이 편리한곳 아무네나		30	32.3
계		93	100



〔그림 5〕 葬禮儀式場의 機能

〈표 24〉 機能別 主要室

機能別	主要室名
사무 관리 기능	관리 사무실, 기계실, 목공실
사체처리 보관기능	사체보관실, 剖檢室, 염습실, 약품실, 의사실
예식 행사 기능	빈소, 문상객 대기실, 영결식장
서어비스(Service) 기능	식당, 휴게실, 주방



〔그림 6〕 사체의 동선도

3. 機能分析 및 動線計劃

● 기능 분석

장례의식장의 기능은 다음 네가지로 분류된다. [그림5 참조]

- 1) 事務管理機能 : 장의예식의 예약 및 접수, 사망신고 등 행정처리 대행, 묘지 및 화장장과의 연계, 물품구매, 의식장의 보수 등 維持管理機能이다.
- 2) 死體處理保管機能 : 사체의 보관, 부검, 殮處理 기능이다.
- 3) 禮式行事機能 : 殯所를 포함한 永訣式場을 제공, 장례식을 거행하는 기능이다.
- 4) 서어비스(Service)機能 : 喪主, 服人 및 問喪客들에게 식사,

휴게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각 기능에 따른 주요실은 다음과 같다. (표24 참조)

● 動線計劃

장례의식장에서 주요 동선은 사체의 운반 동선과 상주 및 복인의 동선, 그리고 문상객의 동선으로 구분된다.

▲ 死體의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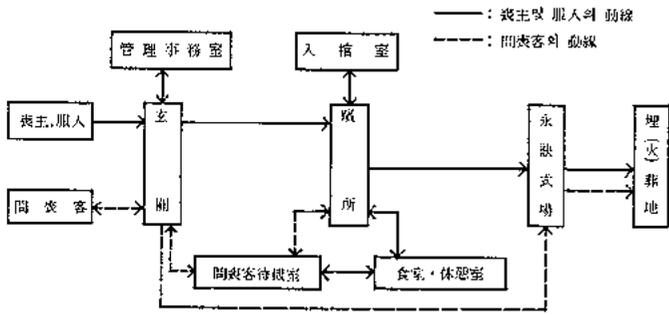
사람은 가정이나 병원에서 자연사하거나 병사한다. 또 화난이나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다. 가정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간단한 收屍를 행한 후에 장례의식장에 운반되고, 병원사인 경우에는 병원 영안실에

보관되었다가 운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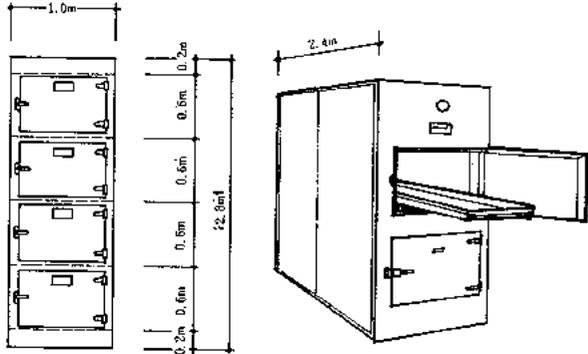
운반된 사체는 일단 예약된 빈소에 안치되었다가 임종후 24시간 경과후에 입관실에 운반하여 입관하고 다시 빈소에 안치된다. 事故死나, 死因이 미확인된 사체는 사체보관실에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剖檢을 하는 등 법적 절차를 행하고, 법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입관하고 빈소에 안치된다. 입관되기 전의 사체는 외관상 사체전용 통로를 이용하게 한다. 빈소에 안치된 사체는 葬日의 마지막 날에 永訣式場으로 운반되어 영결식을 행하고 매(화)장을 한다. [그림6 참조]

▲ 喪主 및 服人の 動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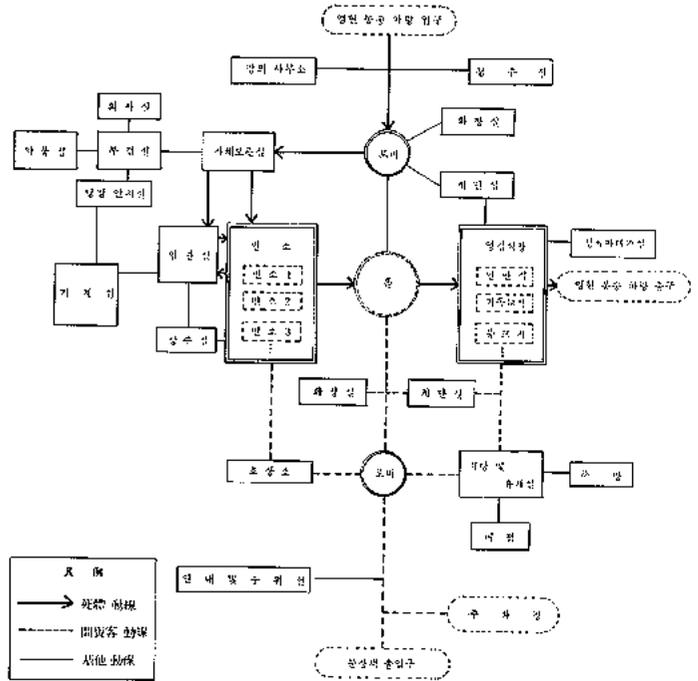
상주 및 복인은 사체를 護送하므로



(그림 7) 喪主 및 服人과 問喪客의 動線圖



(그림 9) 死體 保管 캐비닛



(그림 8) 機能 및 動線 体系圖

사체의 동선과 비슷하다. 다만 장례절차의 협의를 위한 관리사무실과의 왕래와, 빈소에서 장례기간동안 대기하므로 식당 및 휴게실과의 동선이 추가된다. [그림7 참조]

● 問喪客의 動線

문상객은 빈소에서 조문하며, 발인일에 오는 문상객은 영결식장에서 조문한다. [그림7 참조]

4. 各室의 機能 및 規模 算定

● 死體 保管室

장례의식전의 사체를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실이다. 실의 내부온도는 2℃이상 1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체를 보관하기 위하여 사체 보관 캐비닛(Cabinet)을 설치한다. 사체 1구를 보관하는 캐비닛의 크기는 폭 1m, 높이 0.6m, 길이 2.4m가 필요하다. [그림9 참조] 캐비닛은 3단까지의 높이가 사용에 적절하고 최고 4단을 넘지 않도록

한다. 캐비닛 내부의 온도는 일시적 보관에는 4℃~5℃, 장기 보관에는 0℃~15℃가 적당하다.

장기 보관이 필요한 사체가 많을 경우에는 死體冷凍保管室을 별도로 설치한다.

실의 크기는 [그림10 참조] 사체 보관 캐비닛을 열었을 때의 길이(a=최대 1.8m)를 고려하고, 사체운반 스트레처 통행에 지장이 없게 공간(b=1.2m)을 확보하고 출입구의 폭에도 유의한다.

● 剖檢室

사인의 규명 검사를 위하여 사체를剖檢하는 실이다. [그림11 참조] 중앙에 부검대를 설치하고 주위에 사체운반용 스트레처(Stretcher)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b=1.8m)이 필요하다.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하고, 부검을 위해 무명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필요시에는 입관절차를 행하기도 한다. 연결하여 약품실, 剖檢器資材倉庫, 검사실, 사체 샘플(Sample) 보관실, 의과과의

대기실 등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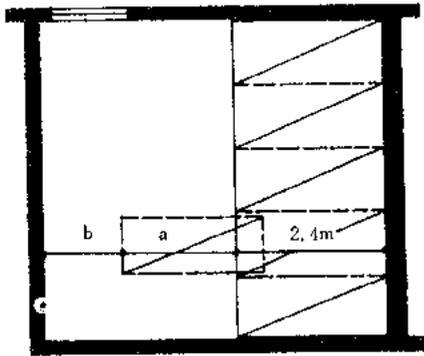
사체부검을 병원등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부검에 필요한 諸室은 없어도 무방하다.

● 入棺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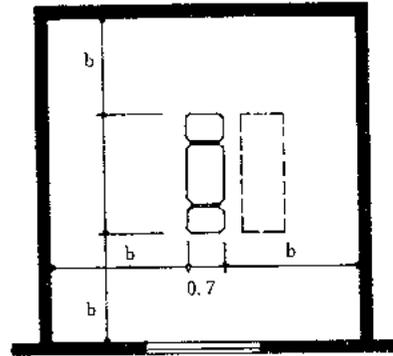
상주와 복인 참관하에 사체를 씻기고 수의를 입히며, 치장하고 입관하는 실이다. [그림12 참조] 종래의 관습으로는 빈소에서 병풍을 가리고 행하였으나 위생상 좋지 못하다. 실의 크기는 사체의 주위에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연결하여 襲身 및 입관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두는 창고가 필요하다. 입관시에 종교마다 의식을 행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입관예배를 하고, 불교에서는 득경을 외운다. 의식시에는 喪主와 親知, 教友들이 참관하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입관 작업을 볼 수 있도록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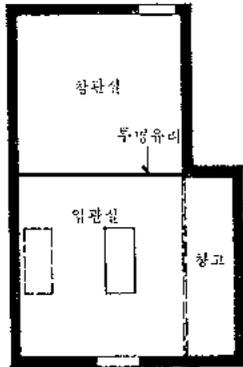
고인의 靈座가 설치되어 상주와 복인이 弔問을 받는 실이다. 입관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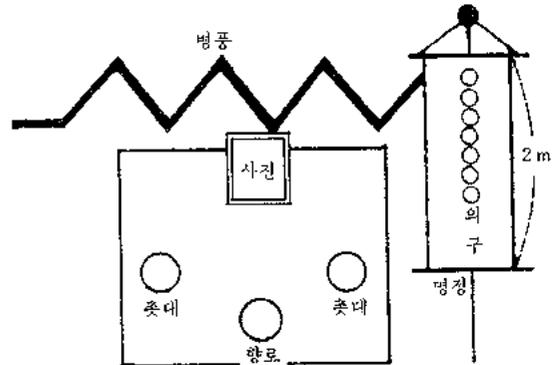
[그림 10] 사체 보관실 평면도



[그림 11] 부검실 평면도



[그림 12] 입관실



[그림 13] 銘旌 및 靈座

사체는 빈소의 상단에 안치된다. 이때 사체는 냉동설비가 된 透明櫛 내에 안치하여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사체를 병풍으로 가리고, 제상위에 고인의 사진과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후 靈座를 설치한다. 영좌의 오른쪽에는 銘旌을 세운다. 靈座는 북향 배치가 원칙이다. [그림13 참조] 빈소에서 상주는 실 오른쪽서 서고, 문상객은 弔問을 한다. 유교식에서는 문상객은 영좌를 향하여 절을 하고, 곧이어 상주와 절을 한후 위로한다. [그림14 참조] 기독교에서는 교우들이 예배와 찬송을 하고 弔問할 때에는 영좌를 향하여 훈화하고 북념한뒤 상주에게 인사를 드린다. 불교에서는 범사가 독경을 외운다. 빈소에서는 향을 피우고,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환기설비를 하고 사체가 안치되어 있으므로 위생에 유의한다. 또 호곡과 찬송, 독경을 하므로 빈소간에 방음장치를 한다. 빈소의 규모는 최소 3.6m×3.6m가 필요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대, 중, 소 여러 규모로 설치됨이 좋다. 빈소의 배치 방법은 직렬식과 원형식 등 대지의 형상 및 평면계획에 따라 여러 형식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림15, 16 참조] 빈소마다 문상객 대기실이 전용으로 부속되는 독립식과 문상객 대기실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빈소가 설치되는 배열식이 있다. 독립식과 배열식도 이용자의 요구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안배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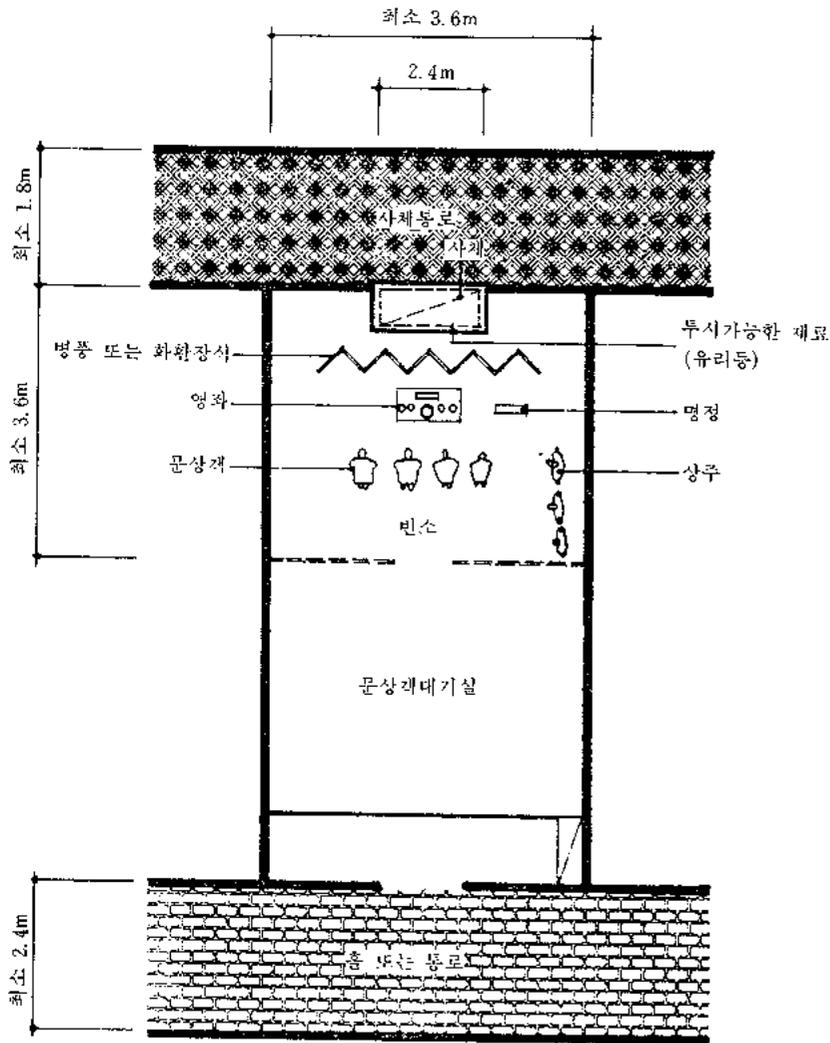
● 문상객 대기실

문상객들이 弔問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거나, 친지나 복인들이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밤샘을 하거나, 상가의 일을 돕기 위하여 대기하는 실이다. 이를 위하여 식당이나 휴게실이 연결하여야 한다. [그림15, 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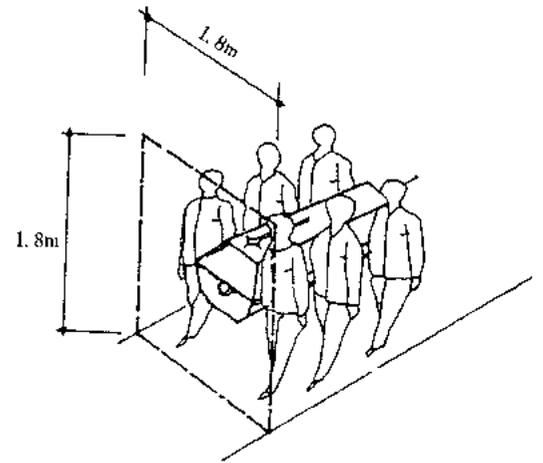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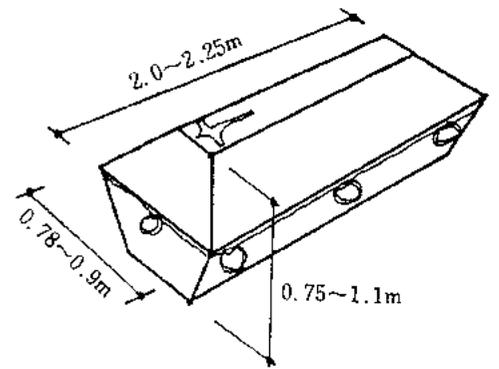
● 영결식장

장례의식의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장소이다. 이때에는 고인의 생시에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인다. 靈柩를 식당의 전면에 안치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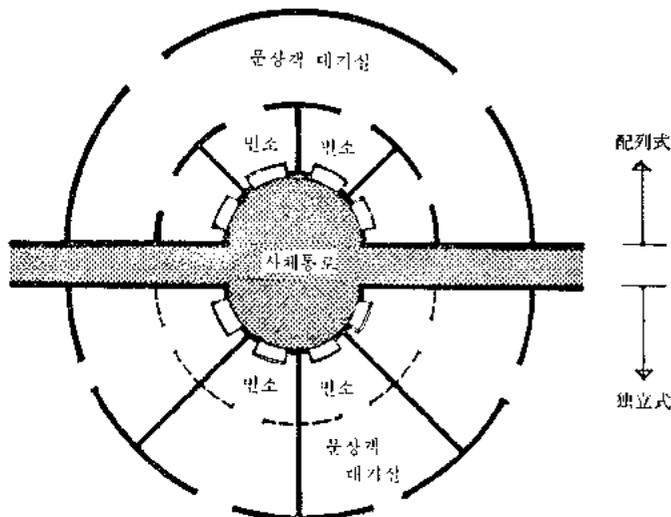
祭床에 고인의 사진, 촛대, 향로, 향합을 배열하고 銘旌을 세운다.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배치하고, 불교에서는 五方幡를 세운다. 의식의 순서와 내용은 종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家庭儀禮遵則에서는 개식, 주상 및 상제의 분향, 배례, 고인의 약력보고, 弔辭, 조객 분향, 호상인사, 폐식의 순이고, 기독교의 영결예배는 묵도, 기원, 찬송기도, 성경봉독, 설교, 기도 양력보고, 弔辭(혹은 弔歌), 광고, 찬송, 축도, 獻花이며, 불교식은 개식, 新圓寂某靈, 독경, 제분낭독, 燒香의 순이다. 모든 의식설치가 끝난 다음에 出棺하게 되는데, 靈柩를 앞세우고 조객들이 식당 밖으로 행렬지어 나가므로 중앙 통로는 넓게 계획되어야 한다. 식당의 내부 구조 및 규모는 결혼식장에 기준한다. 종교별로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못할 경우는 전면의 배경을 좌우로 바꾸어 종교별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식이 끝난 후에 매(화)장지로 운구하여야 하므로 넓은 실외공간과 주차장이 연결되어야 한다. [그림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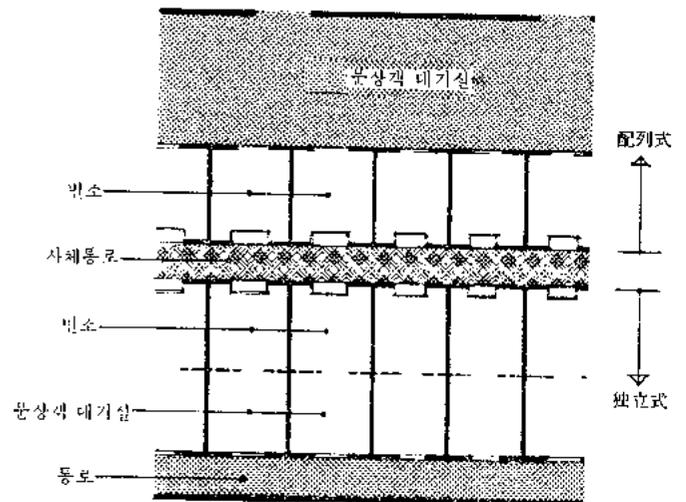
[그림 14] 빈소 평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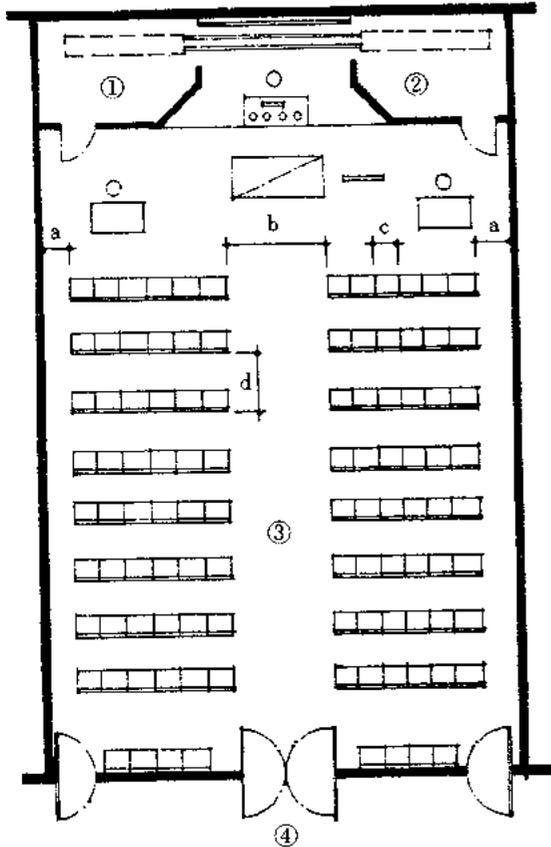
[그림 17] 棺 및 運柩에 필요한 최소폭



[그림 15] 원형식 평면 개념도



[그림 16] 직렬식 평면 개념도



a : 0.6m
b : 2.4m-3.0m
c : 0.45m

- ① 기록교식 배경창고
- ② 불교식 배경창고
- ③ 참배객석
- ④ 홀

(그림 18) 영결식장 평면도

〈표 25〉 지역별 장례의식장의 건립가능여부

구 분	주 거 지 역			상업 지역	공 업 지 역			녹지지역	
	주거 전용	주거	준주거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건립 가능 여부	×	×	×	×	×	○	○	○	×

5. 該當法規 檢討

지금까지는 葬禮儀式場의 用途에 대한 規定이 건축법에 없었으나, 개정된 건축법(86.12.29)에 의하여 묘지 관련 시설에 포함되었다.

묘지 관련 시설은

- ① 화장장
- ② 납골당
- ③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④ 장례식장이다.

도시 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따른 장례의식장의 건립가능 여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표25 참조〉

IV. 결 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의식은 선사시대부터 조상숭배

사상에 기인하며,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근래에 와서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로 장례의식을 주거공간에서 수행하는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왔고,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사망자수도 급증할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거내에서의 장례의식을 고수하는 주된 요인은

- 1) 장례는 부모에 대한 효의 기준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가정외에서의 거행이 불효라는 의식이 잠재하고,
 - 2) 실질적 이용 가능한 장례의식장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공간개념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 가까운 장래에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그 이용이 생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권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요인을 충족시키면서 효율적이면서도 전통의 예를 존중할 수 있는 장례의식장의 건축계획적 기본요소를 요약하면,

- 1) 장례의식장내부 공간에서는 가정에서 치루는 장례의식의 개념을 살려 機能的, 衛生的, 經濟的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2) 장례 절차는 家庭儀禮遵則을 기준하면서도 각 종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 3) 象徴的이고도 엄숙한 형태를 건물외관으로 도입하고,
- 4) 도시 계획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거나, 가까운 교외가 적합하며,
- 5) 건축 및 도시계획법에서 이와 같은 용도건물에 대한 건립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完)

□ 正會員



金泳律
1957. 10.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세안건축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475-19
587-0946~7



張東珍
1952. 9. 30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사사무소 "場"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8
266-6315



申彦鶴
1950. 1. 30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토우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670-6
587-1402



鄭玉基
1955. 10. 9
중앙대학교 건축미술과
(주) 동남아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다동 131
778-0429



金泳景
1936. 2. 6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1
477-7310



魚慶海
1954. 12. 5
홍익공업전문대학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5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160-43
324-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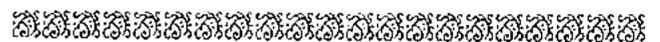
金永洙
1943. 6. 11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1
484-5519



鄭東明
1951. 6. 29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방배본동 792-10
593-7183



河在鴈
1949. 8. 29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우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0-1
549-6015



全星哲
1954. 6. 3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유원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319-17
485-1580

□ 準會員



金成澤
1954. 9. 6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주) 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0-1
544-6684



朴鍾元
1954. 7. 17
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우엔지니어링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783-6281

건축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

1987. 8. 12.

■ 주요골자

- 가. 신고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는 용도변경의 대상을 위락시설로부터 대중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경우등으로 함 (영 제4조제5항).
- 나. 건축물대장의 사본 발급수수료를 매건당 300원으로 정함 (영 제5조제2항).
- 다. 6층이상인 숙박시설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정함 (영 제20조제1항).
- 라. 지하층의 설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 (영 제22조의3).
- 마. 지중전선용배관 및 맨홀의 설치기준을 정함(영 제27조의2).

■ 개정이유

건축법의 개정(86.12.31, 법률 제3,899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86.12.29, 대통령령 제12,022호)에 따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증축등의 신고등)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축·개축·개축·대수선 또는 실세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증축등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평면도 1부
 2. 단면도 1부
- ② 법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 2서식의 농·어업용주택등신축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평면도·단면도 각 1부(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축의 경우에는 배치도 1부

③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구조내력·내화·내장·방화·피난·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면 1부

④ 시장·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하단의 신고증을 질단하여 각각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부표 제8항에 규정된 의료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4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2. 영 부표 제9항제4호에 규정된 사실강습소를 영 부표 제4항제5호에 규정된 대관도장·합기도장·유도장·요가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변경하거나, 영 부표 제4항제9호에 규정된 예능계강습소·기술계강습소(사

무관리분야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영 부표 제10항에 규정된 운동시설을 영 부표 제4항5호에 규정된 정구장·탁구장·헬스크립·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동일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이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영 부표 제11항에 규정된 업무시설을 영 부표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영 부표 제13항에 규정된 판매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영 부표 제14항에 규정된 위락시설을 영 부표 제4항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영 부표 제17항에 규정된 공장을 영 부표 제4항제7호에 규정된 용도의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 제목을 “(건축허가등의 수수료)”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사본 발급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개구부를 설치하거나 환기설비를 할 것”을 “개구부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외기에 면하는 벽체의 아래쪽 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직경 10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수보일러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구조·재료·시공 및 시험방법등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은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이하인 2중창 또는 복층유리(페어글라스)로 시공할 것. 이 경우 열관류율의 값은 1제곱미터시간 섭씨도당 킬로칼로리(Kcal/m²h℃)로 나타낸다.

4.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은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③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제19조의2 본문 및 각호중 “주택” 및 “주택등”을 각각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등”으로 한다.

제20조본문 및 각호를 동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등 개구부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부분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구를 설치할 것
- 배연구의 크기는 배연에 필요한 유효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이고, 바닥면적(영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여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

제22조의 2 제1항중 “영 제55조의2”를 “법 제22조의2”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47조제1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양수장·정수장, 공중변소,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관람장, 자동차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쓰레기오물처리장, 묘지관련시설, 동·식물원,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관망탑, 공장중 단위면적당 작업인원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면적 0.5제곱미터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각각 지름 10센티미터이상의 환기구를 항상 개방된 상태로 바깥공기에 직접 집하도록 설치할 것

제2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예비전원에 의하여 가동할 수 있게 하되, 예비전원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60초 이내에 정격전력용량을 발생하는 자동전환방식으로 하되, 수동시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나. 2시간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할 것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전력용배관 및 맨홀등의 설치기준)

영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기수용설비를 지중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배관 및 맨홀설치의 기준과 수전실의 확보공간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되, 지중전선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차량등의 통행으로 인하여 큰 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보다 깊게,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0.6미터보다 깊게 매설할 것

2. 배관은 지중전선의 배관(4구멍 이상으로서 각 구멍의 지름이 175밀리미터이상인 것)과 지중전력통계용 통신전선의 배관(1구멍으로서 지름이 100밀리미터이상인 것)으로 구분할 것

3. 배관의 굴곡반경이 600밀리미터이상인 구간에 있어서는 도로에 접한 부분으로부터 200미터이내마다, 배관의 굴곡 반경이 600밀리미터미만인 구간에 있어서는 당해 굴곡부분마다 각 내부의 크기가 가로 1.5미터이상, 세로 2.0미터이상, 높이 1.5미터이상인 맨홀을 설치하고, 직경이 750밀리미터이상인 뚜껑을 설치할 것

4. 수전기기(개폐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당해 건축물의 외부에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외부공간이 협소하거나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제27조의3(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용의 특례)

영 제82조제1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중 도시계획관계법령에서 시설임지에 관한 기준이 특별히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4) 지역에 따른 건물부위별 열관류율표(제19조제1호관련)

(단위: 킬로칼로리/제곱미터·시간·섭씨도)

부 위 별	지 역 별		
	중 부	남 부	제 주 도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 바닥을 포함한다)	0.5이하	0.65이하	1.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0.35이하	0.45이하	0.65이하
공동주택의 측벽	0.4이하	0.6이하	0.7이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복층유리)	2.9이하	3.1이하	5.0이하

※ 적용대상지역

지 역 구 분	해 당 시 · 도
중 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남 부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제 주	제주도

(별표 5) 지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기준표(제19조1호관련)

단열재 종류별 지역별 부위별	암면(광석면), 유리면, 난연성발포폴리스틸렌폼, 요소발포보온재, 폴리우렌단폼(단위: 밀리미터)		기타 재료: 열전도 저항이 다음의 값에 적용하는 재료의 두께일 것(단위: 제곱미터시간섭씨도/킬로칼로리)
	중 부	남 부	
거실의 외벽,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면하는바닥을 포함한다)	중 부	50이상	1.6이상
	남 부	40이상	1.25이상
	제 주 도	30이상	1.0이상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중 부	80이상	2.5이상
	남 부	60이상	1.9이상
	제 주 도	40이상	1.25이상
공동주택의 측벽	중 부	70이상	2.2이상
	남 부	50이상	1.6이상
	제 주 도	40이상	1.25이상

비고: 1. 위 표의 각 단열재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열성 자재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단열재로서 거실의 바닥에 시공하는 것은 내열성(온수온돌도 난방을 하는 경우에 한 한다), 내구성과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적용대상지역

지 역 구 분	해 당 시 · 도
중 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직할시·충청북도·강원도
남 부	충청남도·전라북도·광주직할시·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대구직할시·부산직할시
제 주	제주도

정직위엔 금자탑이 부정위엔 모래탑이

온수온돌시공기준

1987. 8. 12

건축법 제23조의 3항 및 동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수온돌 시공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온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온수를 방열관에 공급하여 난방하는 온수온돌의 시공에 관한 구조와 재료 및 시공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 2-1 단 열 층 : 온수온돌에서 방출되는 열이 하향으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열계밀을 단열처리한 층
 - 2-2 축 열 층 : 방열관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축적시키기 위하여 방열관주위에 골재 또는 시멘트모르타르등을 충전시킨 층
 - 2-3 공기방출기 : 순환수중에 함유된 기포를 외기로 방출시키기 위한 장치
 - 2-4 방 열 관 : 온돌속에 온수를 순환시켜 열을 얻기위하여 매립하는 관
3. 구 조

온수온돌은 바탕층, 방수층, 단열층(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축열층, 방열관, 미장마감층으로 구성된다.

 - 3-1 바 탕 층 : 지면에 면하는 바탕은 배합비 1 : 3 : 6 (사멘트 : 모래 : 자갈)인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두께 30mm이상이어야 한다.
 - 3-2 단 열 층 : 단열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른다.
 - 3-3 축 열 층 : 축열층의 두께는 40mm이상, 70mm이하이어야 한다.
 - 3-4 방 열 관
 - (1) 방열관은 호칭 직경이 15mm 이상인것으로 하고, 관의

간격은 150mm이상, 400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분기되는 1개구간의 배관길이는 50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단, 구멍탄 온수보일러일 경우에는 35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3-5 미장시멘트모르타르의 품질은 KSF22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두께는 방열관의 윗표면에서 15mm이상, 25mm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3-6 배관의 구배는 1/200정도로 하여야 하며, 구멍탄용 온수온돌은 자연순환이 가능토록 배관하여야 한다.
- 3-7 분기되는 방열관의 1개구간마다 공기방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재 료

- 4-1 단 열 재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단열재중에서 압축강도 0.9kg/cm² 이상인 것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이나 가구 등의 하중에 의하여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2 방 열 관 : 방열관은 내식성과 내구성이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 4-3 축 열 재 : 축열재는 골재, 시멘트모르타르, 콘크리트등을 사용한다.

5. 시 공

- 5-1 기 초
 - (1) 지면과 접하지 않는 스타 브인 경우에는 기초 콘크리트 및 방수층을 생략한다.
 - (2) 방수층은 주변 벽면의 10cm 높이까지 방수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5-2 단 열 층 : 단열재는 바닥전체에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5-3 축 열 층 : 축열재의 충전시에 난방배관이 뒤틀리거나 밀리지 않도록 하고, 보온재가 충격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4 방 열 관
 - (1) 받침대위에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관의 재질에 따라

1m이내의 적정간격으로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립프나 철선을 사용하여 간결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부위에서는 되도록 이음을 피해야 한다.

5-5 미장마감층 :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하고 바닥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48시간이상 습윤상태로 자연양생하여야 한다.

6. 시 험

- 6-1 마감층의 평활도 : 마감층 표면에 1m 길이의 끈은자를 놓았을때 2mm이상의 틈이 있어서는 안된다.
- 6-2 온수 순환시험 : 보일러에 연료를 연소시켜 온수순환 상태를 시험한다.

7. 기 타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구조, 재료, 시공방법으로서 본 기준에서 정하는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치 않을 수 있다.

기밀성능기준

1987. 8. 12

건축법 제23조의 4 및 동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개구부등의 기밀성능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한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공기조화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거실의 외기에 면하는 창 및 출입문의 기밀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기밀성능 시험방법

창의 기밀성능 시험방법은 건설부고시 제201호('82. 5. 19)의 "건축물의 개구부 등의 기밀성능시험 방법"에 의하되,

가압시의 풍압차는 30mmH₂O로 하고, 시험체의 틈길이가 환산에서 고정장은 제외시킨다.

3. 기밀성능

가. 창
시험결과 창의 통기량은 3m³/h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출입문

출입문에는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막을 수 있는 기밀재 (Weather Strip) 를 설치하고 방풍실을 두거나 회전문으로 한다.

건설업 종합정보센터 안내

건설공제조합은 국내건설업의 과학화와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업 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당 센터는 국내건설업체, 건축사사무소, 설계용역회사를 대상으로 전산시스템과 CAD 시스템, 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교육실, 사용자실을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전산시스템에 관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87년도 하반기 교육과정 안내

과 정	내 용	참 가 대 상	일 정	교 육 비
CAD입문	컴퓨터그래픽의 기본개념과 설계 부분의 CAD적용 및 이용사례에 관한 세미나.	경영자 및 관리자, 설계실무자	'87. 10. 13-14	15,000원
CAD 실습	당센터에 설치된 CAD시스템인 GDS 와 SVS시스템의 이론과 실습	설계실무자	1일 4시간씩 4주	150,000원
GTSTRUDL	범용구조해석 및 설계 PACKAGE인 GTSTRUDL의 이론과 실습	구조분야관리자 및 실무자	'87. 10. 26-30 (9:00~16:00)	15,000원
PROJECT/2	미국 PSDI사에서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전세계 1000개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공사관리 종합 PACKAGE인 PROJECT/2의 이론과 실습	공무, 공사관련 관리자 및 실무자	'87. 9. 7-18 '87. 11. 9-20 (9:00-16:00) 토요일은 제외	30,000원

- *교육비는 부가세별도임.
- *교육신청은 교육개시 5일전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에 관한 기초지식이 없으신분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전산서비스 안내

취 급 업 무	내 용
CAD 도면 전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조합 GDS, SVS, SYSTEM 이용 • 건축일반도, 투시도, 조감도 • Colouring, 확대, 축소, 시점별 출력 등
컴퓨터 하드웨어 파워 서비스	당 조합에 오셔서 직접 이용하거나 원거리 단말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 소프트웨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 GTSTRUDL • PROJECT/2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공제조합 전산부(관세청 옆 건설회관 3층)
- 연락처: 548-0101(교환) 473, 474, 493(구조), 494(공사관리), 495(CAD)

국민연금제도 실시방향

보건사회부

1. 국민연금제도실시의 필요성 및 배경

국민연금제도는 노후나, 불의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되는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평생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제도의 미비로 그 실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생활수준의 향상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로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한편
-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하여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른 젊은계층의 노인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노인중 80%이상인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단지 2%정도만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80%의 노인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등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6년을 기준으로 할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84년현재 8.6배, 산업재해는 12배나 더 늘어났습니다.
- 현행 퇴직금제도 역시 전퇴직자의 97.6%가 50세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을뿐 아니라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어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등에 충당되므로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보장대책이 못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존되어야 하는 바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수준이 향상되어 국민의 부담능력이 제고되었고 80년대 이후의 물가의 안정으로 장기적 연금제도의 실시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배비분」세대가 '82년

중반이후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 계층의 연금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제도의 도입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2.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18세이상 60세미만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0인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점차 확대 실시하게되며, 농·어민,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 나. 급여의 종류와 내용
급여는 크게 4종류로 구분됩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5~20년 이상이고 55~60세에 달할때 지급받는 연금으로서 급여수준은 최종보수의 40% 정도임.
 - 장애연금 : 가입기간중에 발생하는 질병, 부상으로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때 지급받는 연금
 - 유족연금 :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이 지급받는 연금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가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본인각출료에 제형저축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
- 다.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각종 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일정율의 각출료를 징수하게 되는데 국민의 부담능력과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각출료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92년까지는 근로자 월보수의 3%를 노사가 각각 1.5%씩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라.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영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출료 및 이식금으로 기금을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가 필수적인바, 시행령에서도 그 운용수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하여 운용이율은 1년만기 시중은행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정부대표 및 기타 공익단체대표등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제도의 관리운영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관리유지, 각출료징수 및 연금급여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통제가 가능하고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공단의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88.1.1부터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반 준비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 제도를 위한 정부의 준비작업에 적극 협조하시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도록 합시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지난 '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까지 마련하였으나 당시의 석유과동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연평균 16%씩 상승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실시시기를 연기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적 부담능력이 향상되었고 물가도 안정됨으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위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86.9.1일 발표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국민연금제도를 '88.1.1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85년 현재 1인당 GNP가 2천불 이상인 세계40개 국가중 노후생계보장제도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만, 아랍에미리트 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연금제도의 도입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3. 연금제도실시의 필요성

가. 노령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1) 우리나라는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고 있고 성공적인 가족계획사업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세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87년 현재 전인구의 6.8%에서 2000년에는 10.0%, 2040년에는 25.0%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2) 한편 '83년 현재 우리나라 60세이상 노인의 노후실태를 보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자녀들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도시화와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젊은 계층의 노인 부양의식은 크게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뿐만 아니라 공업화와 도시화의 가속화 과정에서 사망,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각종 소득상실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6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약 20년 동안에 8.6배나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의 발생율은 12배에 달하고 있어 사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노후생계보장을 위한 현행제도의 미비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일부계층에 국한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수혜인구는 '84년 현재 전체취업자의 5.6%에 불과합니다. 또한 '53년에 도입된 이래 현재 16인이상 사업장의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생계보장에 어느정도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 노후생계보장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전체퇴직자의 97.6%가 50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며, 60세

이상 퇴직자의 비율은 0.1%에 불과합니다.

- (2) 현행제도는 퇴직금이 일시금형태로 지급되고 있으며, 퇴직금의 대부분이 자녀교육, 결혼비용, 주택구입 등에 충당되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기업의 연륜이 길어짐에 따라 누적퇴직금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지급보장제도의 미비로 기업도산지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큼니다.
- (4) 사망, 장애발생시 배우자, 유자녀, 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장기능이 없습니다.

4. 연금제도의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과 적용방법 국민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내거주 국민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되, 기존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됩니다.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당연적용과 임의적용으로 나누어 적용해 나가되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표 1> 노령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천명)

구 분	1970	1986	2000	2040
인구(A)	31,435	41,569	48,017	49,925
60세 이상인구(B)	1,704	2,824	4,781	13,256
B / A	5.4	6.8	10.0	25.0
피부양율 ¹⁾	9.7	9.3	6.7	2.2

주: 1) 피부양율=15-59세인구 / 60세이상인구
 자료: 경제기획원 인구 및 주택센서스 인구추계자료 각년도

<표 2>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추이

구 분	1966	1980	1984
산업재해사고인원(명)	13,024	113,375	159,306
재 해	100	871	1,223
교통사고사고인원(명)	20,733	117,249	177,845
지 수	100	566	858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연보, 각년도, 교통부 교통통계연감, 각년도

사용자 그리고 10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그 근로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의적용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됩니다. 한편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외의 자로서 농·어민, 도시자영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전국민연금제의 조기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20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60세에 달하더라도 연금수급요건인 20년을 채우기 위하여 계속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5세까지 연장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급여산정방식과 구성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급여는 사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연금급여와는 달리 소득계층간에 상당한 정도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된 법정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 지급시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개인의 소득수준, 가입기간 그리고 전체가입자의 평균보수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표3>의 산정식은 그 계산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균등부분은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평균보수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연금제도에 있어서의 소득재분배기능은 이 부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1년마다

<표 3> 기본연금액 산정방법

$$2.4(A+B) \times (1+0.05n)$$

- ◇ 2.4 : 가입기간 240개월(20년)에 대한 기준치
- ◇ A(균등부분) : 사업장가입자 전원의 표준보수월액을 평균한 액
- ◇ B(소득비례부분)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보수(소득)월액을 평균한 액
- ◇ n :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

연금액이 가산되도록 하여 장기가입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급연금액은 일종의 가족수당적인 성격으로 연금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는 18세미만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인이내에 한정되며, 부모는 60세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 급여의 종류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분류되는데,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및 소득원의 유무에 따라 4종류로 세분됩니다. 급여의 종류별로 수급요건과 급여수준을 보면 다음<표4>와 같습니다.

5. 비용부담

국민연금은 제급여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매월 일정률의 각출료를 징수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제급여를 위해서는 각출료수준이 보수월액의 10%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표 4>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수급권자	수 급 요 건	급 여 수 준
노령 연금	기본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에 달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직 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100% +가급연금 (최종보수의 40%수준)
	감액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15년이상 20년미만이고 60세에 달할 때	기본연금액의 72.5% ~92.5%+가급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60세이상 65세미만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미만인 자)	기본연금액의 50% ~90%
	조기노령 연금	본 인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이고 55세이상인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때	기본연금액의 75% ~95%+가급연금
장 해 연 금	본 인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초진일 현재 가입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기본연금액의 60% ~100%+가급연금
유 족 연 금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유족	다음의 자가 사망한 때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5년이상인 가입자이던 자 ○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자 ○2급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수급권자	기본연금액의 40% ~60%+가급연금
반 환 일 시 금	본인 또는 유족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에 해당될 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자로서 가입자격 상실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하거나 60세에 달할 때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한 때 ○가입기간이 15년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사용자부담금, 본인 기여금, 퇴직금전환금에 각각 일정비율 적용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이지만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각출료부과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즉
사업장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각출료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현행퇴직금준비금에서 일부를
각출료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노·사의
신규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제도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연차별 각출료 조정계획을
보면 <표5>와 같습니다.

<표5> 연차별 각출료 계획

(표준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대비)

구 분	'88~'92	'93~'97	'98이후
계	3.0%	6.0%	9.0%
사업장 근로자	1.5%	2.0%	3.0%
가입자 사용자	1.5%	2.0%	3.0%
퇴직금 준비금	—	2.0%	3.0%
지역가입자·위의 계속가입자	3.0%	6.0%	9.0%

6. 국민연금기금의 설치·운동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가 소득능력이
있을 때에 납입하는 각출료를 계속
적립하여 발생하는 적립금과 이익금을
기금으로 하여 급여사유발생시 급여를
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실시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급여사유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상당한 적립금이 쌓이게
되므로 이를 기금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립기금은 장래의
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이의 장기적인
안정유지가 필수적인바 법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그 운용수익은 최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이 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그 운용수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사, 정부 및
연금수급권자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계획 및
결과에 대해 심의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용결과에 대하여는
일간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제도의 관리운영

국민연금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업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어떤 행태로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기록을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유지 관리하고 각출료의 징수 및
연금급여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적통제가 가능하면서도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은
연금업무의 집행조직으로서
국가 위탁관리 형태의
법인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8. 맺는말

오랜동안의 참음과 진통끝에 이제
국민연금제도라고 하는 아기는 막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탄생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역사에 있어서 커다란 한
획을 그치게 될은 물론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에 한발 성큼 다가서게
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모처럼 출범하는
제도에 조금의 차질도 없게 하기
위하여 관계제법령의 완비,
관리기구의 설립 및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등
제반준비작업에 완력을 기하고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나서 맡은바 그 소임을
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아끼고 정성껏
돌보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국민연금국 제공)



지하 3층 이상의 고수압에는 무란새 방수로 !!!

침투성 방수제 / MURANSE

무란새

포루마

수용성아스팔트방수제

(주)동방포루마 269-1 7 1 8
276-0123-4

제 7회 理事會 開催

제 7 회 이사회가 지난 7 일 오전 11시부터 본회 회의실에서 安箕泰 회장 주재로 열렸다. 개회사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부의안전 협의에서는 예산편성지침(안)은 예산편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사회 및 지부장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의 조정토록 하였으며, 연금관리방법 승인의견은 변호사, 계리사 및

금융권의 금융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세부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토록 결정하였다. 또한 실적회비 산출기준포개정(안) 승인의 견은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이 개정될 때 동시에 시행토록 하고 현행대로 실적회비를 받도록 결의하였다. 그밖의 안전에 대한 논의가 있은후 협의사항을 끝으로 오후 5 시 회의를 마쳤다.

수해지역 무료 안전진단반 편성 대민봉사활동

- 전국 14개 시도지부 나누어 실시 -

본협회에서는 금년 수해로 인한 피해 건축물 및 축대등의 안전진단을 위하여 건축사로 구성된 진단반을 전국적으로 편성하여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복구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국의 14개 시도지부로 나뉘어

실시되는 수해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신파되거나 일부 파손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설계·감리비를 50% 감면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하는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건축사업부는 물론 협회홍보활동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放送 통한 대민봉사활동 전개

본 협회는 지난 7. 27~8. 3일까지 본회 홍보위원인 鄭正治, 崔正一 회원과 본회 任仁懋 사무처장등이 참석하여 수해민의 조속한 복구와 안전대책을 위하여 KBS-TV, 라디오, MBC-TV, 라디오등

언론기관을 통하여 대민활동소개와 피해가옥에 대한 대비내용등 대민의 홍보를 적극 전개하여 본 협회는 물론 회원업무의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全国 市 道 支部長 會議 開催

— 업무보고 및 협의사항 다뤄 —

제 3 회 시도지부장회의가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安箕泰 회장 주재로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장(安箕泰)의 개회사와 任 사무처장의

주요업무보고에 이어 198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편성지침 협의등 4개항이외 協會運營 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水災 義 損 金 寄 託

본협회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불의의 재해를 당한 수해민에게 써달라고 지난 1 일 각시도지부 전회원이 적극 참여하여 모금한

수재의연금 1천 1백만원을 한국일보사에 전달하고 수해복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大阪府 建築士會 會員 31名 本會 訪問

본협회는 지난 3일 대관부건축사회 회장단의 내방을 받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小西 卍 회장을 비롯 31명의 회원이 함께 본협회를 방문 양국 건축계 전반의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눈뒤 협회소개와

간행물등 정보자료의 교환이 있었다. 이어서 한국의 건축물을 소개하는 멀티비전 상영을 마친뒤 서울의 주요건축물과 올림픽시설등을 견학하였다.



支部消息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수해복구작업 적극지원

서울특별시지부는 금번 수해로 인하여 침수되었던 건축물과 축대지반 및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곳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등 수해복구작업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번 수해로 인한 대부분의 피해가옥은 벽돌·브릭조 구조로 침수되었던 건물은 구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위험한 사항일때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복구토록 하고 있다.



서울지부회원들의 수해지구 건축물 안전진단

釜山直轄市支部

지부장 鄭煥鎬

釜山·大阪建築士 交流懇談會 開催

부산직할시지부는 지난달 31일 일본 대관부회원 29명의 내방을 받고 요모도호텔 15층에서 부산·대관건축사교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鄭지부상등 지부임원 및 회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부장의 환영사에 이어 小西 岬 대관부건축사회장의 답사와 기념품 교환을 마친후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폭넓게 논의되었으며 간단한 오찬을 끝으로 2시간에 걸친 간담회를 마쳤다.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燾

건축사업무 기술세미나 개최

광주직할시지부는 지난달 22일 '지중연속 벽 신공법'에 대한 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광주그랜드호텔에서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다기능적인 기술습득으로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실무에 폭을 넓혔다.

各市道支部 水災義捐金 寄託

본 협회 각시도지부에서는 금번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불의의 재해를 당한 수해민에게 의연금을 전달하였다. 금번 피해는 갑작스런 호우로 인해 엄청난 수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각시도지부 전회원이 적극 의연금을 모금하여 수재민을 위해 써달라고 각 언론기관에 기탁하였다.

또한 수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건축물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키 위하여 수해건축물에 대한 설계비, 감리비를 현행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액의 50%를 감면하여 수해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등 적극적인 협조로 수해민을 도왔다. 각시도지부별 회원이 모금한 의연금 전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仁川直轄市支部(지부장: 高昌永) - 6십2만원 (MBC문화방송기탁)
- 光州直轄市支部(지부장: 朴永燾) - 1백6만원 (광주일보충무국기탁)
- 京畿道支部(지부장: 趙相鎬) - 8백4십만원(각 분소별기탁)
- 忠淸南道支部(지부장: 康祐植) - 1백만원(충남도지사 기탁)
- 慶尙北道支部(지부장: 金永吉) - 1백만원 및 의연품 (메리야스 20만원 상당) (MBC문화방송 기탁)
- 濟州道支部(지부장: 白亨哲) - 1백만원(제주신문사 기탁)



변경

□ 서울지부

- ▲정해덕 / (주) 한주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9-21/546-2806
- ▲김영철·차명수 // 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성내동 551/484-5519, 478-0422
- ▲오병태 / 유일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역삼동 722/566-2481
- ▲이근욱 / 조흥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석촌동 286-1/417-2730
- ▲정구은 / 삼예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57-1/543-1031
- ▲김남수 / 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한미 / 종로구 경운동 88/735-7702
- ▲권희영 / 권희영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삼성동 34-9/545-9500
- ▲김명준 /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반포동 67-1/533-2325
- ▲김진규 / 삼창건축사사무소 / 마포구 망원동 474-15/323-4958
- ▲김형준 / 건축사사무소 준미건축 / 강남구 논현동 175-31/548-1938
- ▲양원영 / 건축사사무소 신태양 / 강동구 석촌동 290-3/418-6366
- ▲김창희·한응용·박한진 /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진한정건축 / 강동구 성내동 539-2/486-7475, 488-0100
- ▲윤 평 / 건축사사무소 서린 / 강동구 성내동 556-4/485-0528
- ▲오택길·염기섭 / 종합건축사사무소 장 / 중구 장충동 2가 188-8/8/266-6315

- ▲문제헌 / 예원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석촌동 290-3/415-5417
- ▲김정호 / 옥산건축사사무소 / 강동구 방이동산 80-33/417-7755
- ▲김장균 / 광장건축사사무소 / 강서구 화곡동 982-14/698-1240
- ▲이운복·전경진·최강식 / (주) 동방종합건축사사무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54-2/782-8069
- ▲김철수 / 거목건축사사무소 / 강남구 신사동 583-1/545-2033

□ 대구지부

- ▲조병천 / 동림건축사사무소 / 중구 대봉동 22-16/422-5233
- ▲김선돌 / 신동림건축사사무소 / 중구 남산2동 937-11/252-5160
- ▲최원태 / 기원건축사사무소 / 수성구 범어동 193-37

□ 인천지부

- ▲한창근 / 미도건축사사무소 / 남구 주안동 200-14/82-2102

□ 광주지부

- ▲류연창·정해성·현준철 / 동구 금남로3가 3-5/22-2788, 22-8850

□ 경기지부

- ▲황재성 / 현대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원미동 110-11/62-5398
- ▲이석재 / 상이건축사사무소 / 부천시 심곡동 93-1/652-3752
- ▲박중화 / 현대건축사사무소 / 송탄시

서정동 90-1/4-2215

□ 전북지부

- ▲박재남 / 전라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고사동1가 13

□ 경북지부

- ▲백운학 / 동양건축사사무소 / 달성군 화원면 천내동 417-1/632-3277
- ▲최종배·이진석 / 최종배건축사사무소 / 포항시 죽도2동 67-3/73-2421

휴업

□ 경기지부

- ▲최의준 / 건축사사무소 대응 / 안산시 고잔동 527-5/82-9900/87, 7, 31~9, 13

폐업

□ 서울지부

- ▲홍경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기산/중구 장충동2가 188-8/87, 7, 31

입원

□ 경기지부

- ▲문동석 / 동서한방병원 / 7, 3

별세

□ 경기지부

- ▲이종은 / 모친별세 / 87, 7, 8 / 자택

질서는 사람속에 사람은 질서속에